

#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교육의 참된 과학

- 교육의 참된 과학
- 그리스도인 가정
- 지, 덕, 체의 온전한 교육
-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림
- 궁극적인 목표 - 탁월함을 구함
- 그리스도인 가정의 감화력
- 새천년에 그리스도를 섬김

연말기도주일, 2015년 12월 6일 - 12월 12일

# 첫 번째 교육기관

편집부



가정은 창조주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인류를 위한 창조주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면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공중 봉사의 바로 초기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순수한 포도즙으로 변하게 하심으로 가정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증해 보이셨다.

모세는 변화된 부모들에 의한 자녀들 교육에 관하여 그 상세한 교훈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 6:4-8].

하나님께서서는 칠일의 한 주일, 하루 24시간을 교육의 중요한 사업을 이행하도록 부모들에게 명하신다. 이 영감된 말씀 속에 건전한 교육이 제시되어 있으며 가르침의 환경과 방식까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엘리야인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예기하면서 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가족의 가치관을 제시했다: “헤롯은 예리하고 강력한 요한의 증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그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다. 요한은 헤롯이 자기의 동생이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부인과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성실하게 헤롯에게 그 일이 합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헤롯은 어떤 희생도 원치 않았다. 그는 동생의 부인과 결혼했고 부인의 영향을 받아 요한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를 잡아 투옥시켰다. 간혀 있는 동안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그분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을 수 없었으나 제자들이 그에게 그들이 들은 바를 전하여 주며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요한은 헤롯의 부인의 영향으로 목 베임을 당했다.” - 초기문집, 154.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그들의 편지에서서 가족의 연합과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상세한 지침을 주었다. 그들은 신자들의 교육에 의한 가정제도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엘리야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지를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명해야 한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에 관하여 중요한 예언을 말씀하셨다: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 4:5, 6].

이 예언이 우리에게서 성취되어야 할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가족 식구들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고 분리를 촉진하도록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그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가족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망쳐놓기 위하여 불길한 목적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우리 백성들이 조석 예배를 통한 가족 제단을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대에 와 있으며 개별적으로나 가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옛 뱀의 간교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보호할 방패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

이번 기도주 동안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마련된 특별한 기별들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유력하게 도움을 주도록 숙고할 것이다.

“위대한 개혁운동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아버지과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제시함으로 시작되어야만 한다. 율법의 요구가 제시되어 남녀들이 순종해야 할 그들의 의무를 깨닫게 될 때, 그들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결정할 책임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 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멸망으로 휩쓸어 가는 죄악을 대항하는 유일한 안전책임을 알려 주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이나 불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모본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의 모본과 교훈에 의하여,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가정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미래의 생애에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가 끌 지어 준 그대로 될 것이다.” - 교회증언 6권, 119.

이 적절한 기별들을 충심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빈다!

## 교육은 과학이다!

책을 열며	2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	
교육의 참된 과학	4
그리스도인 가정	9
지, 덕, 체의 온전한 교육	14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림	18
궁극적인 목표 - 탁월함을 구함	23
그리스도인 가정의 감화력	27
새천년에 그리스도를 섬김	31
2015년 기도력 투쟁과 용기	35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딤후 3:7. 이것은 확실히 수많은 그리스도교를 포함하며 오늘날의 세상을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은 광대한 기술발전과 정보화 시대로서 정교한 교육기관 및 온라인 강좌가 넘쳐나고 있다. 지식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참된 경건의 보화, 곧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보석이 얼마나 찾기 어려운 세대인가!

이제 우리는 또다른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기회들이 오고 가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 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의 결정적인 성장에 대한 그분의 초청에 응해 왔는가?

지금은 우리가 매일 추구하고 있는 교육이 어떤 종류의지를 조사하기 위한 우리의 기회이다. 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배우는 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늘을 향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이웃을 가르치도록 초청을 받고 있다. 주님이 곧 오실 때 평강 가운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의 자비하신 품성을 반사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순복하고 우리가 이전에 결코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이번 연말기도주 낭독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홀로 사는 이들, 특히 외롭고 병든 자들에게 읽어주고 기도와 방문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힘을 얻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또한 다음 사항을 명심하도록 하자:

### 2015년 12월 12일 안식일: 금식 안식일 및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일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우리의 개념을 개혁하고 새롭게 함으로 주께서 우리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음의 시편의 간구가 반향되기를 바란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시나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시 143:10].





# 교육의 참된 과학

엘렌.G.화잇의 저서로부터 발췌함

**참된** 교육이란 어떤 특정 과목을 이수하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은 매우 광범위하다. 모든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인 재능의 조화된 계발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교육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며 생애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준비하게 한다.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교육이다. 그러한 교육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기적인 야심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을 얻기 위하여 많은 학생들은 불필요한 지식을 저들의 머리에 주입시키기 위하여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세상은 저들을 학문을 닦은 자로 간주하지만 저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저들은 교만을 살찌게 하고 기운내게 하는 세상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 저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저들에게 위탁된 재능들을 원수의 편에 두게 된다. 현 시대에 주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은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교육을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다만 학생들의 위기를 증가시킬 뿐이다.

매우 성격이 판이한 다른 종류의 교육이 있다. 세상이 전에 알지 못하던 가장 위대하신 교사께서 말씀하신 참 교육의 근본적인 원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마 6:33)는 것이다. 참 교육의 목표는 이기적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이수하는 과목들과 실업 교육 모두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산 연합을 유지하며 계발된 감정과 품성의 습성들을 활용한다. 이러한 종류의 교육이야말로 영원한 결과를 낳게 한다. “여호와의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잠 9:10)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것이 된다. -교육에 관한 특별증언, 47, 48.

## 건전한 신체의 발달

신체의 기능은 교육의 모든 올바른 방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청년들은 그들의 신체적 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 자신의 실제 능력을 계발하는 방법, 삶의 실제적인 일에서 이를 유용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학교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실제적인 유용성을 모든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신체의 훈련은 어린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결정되어야 할 질문 중 하나는 그들 식탁에 놓여 있는 음식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어린 자녀들의 발육에 영향을 주며 가족의 건강이 아주 크게 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준비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며 음식의 적당한 양과 질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

모든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녀는 우리의 친절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육의 구조 및 사용방법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신묘 막측하”(시 139:14)게 지음을 받았다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 주택인 몸을 정신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곧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이 거하시도록 친히 준비하신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시 139:15) 성전이다. ...

운동은 신체를 단련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준다. 그것은 피의 순환을 촉진시키며 신체조직에 활력을 준다. 만일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피가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근육이 탄력을 얻고 힘을 증가시키는 대신에 힘을 잃고 약하게 된다. 활동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인체기관에 세우신 법칙이 아니다. 두뇌와 뼈와 근육의 조화로운 활동은 인체기관 전체를 온전하고 건전하게 발달시키는데 필연적인 것이다. ...

모든 학생은 허약과 질병에 저항하고 건강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이런 상태에 대처할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질병이나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는 의사를 부르거나 독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보통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주님 자신이 신체의 관리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17]고 말씀하신다. 이 성구는 몸의 양심적인 치료를 명사며 모든 무지, 부주의와 태만을 책망한다. -교육에 관한 특별중언, 32-34,

## 초년기의 품성훈련

부모들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저희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사랑하도록 저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경건성에 대한 유익을 과대평가한다고 생각지 말 것이다. 청소년 시절에 받은 감명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영구적인 것들이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이 영혼의 돌비에 가장 쉽게 아로새겨지는 때는 어린 시절이다. 어린이들의 교육이 너무나도 등한시되어 왔으며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교훈을 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것은 우리들로 영원한 시대를 위하여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이 그대들의 슬하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납하실 품성을 계발시킬 수도 있고 혹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저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품성을 계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숙한 문제인가! 예수님께서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말씀하셨으며 당신의 백성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관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권고하셨다. 누가 이 교훈에 순종하고 있는가? 누가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납하실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과연 누가 저희 자녀들의 모든 낭중과 재능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전적으로 바쳐져야 할 것임을 마음에 명심하고 있는가?

한나는 주님께 사무엘을 바쳤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친히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로 외국에 있는 영혼들과 오류와 미신의 흑암 속에 사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침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그대들이 자녀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킴으로 방종하게 하고 또한 저들에게 의복을 사랑하는 기질을 키워주며 허영심과 교만심을 계발시킨다면 그대들은 저희 구원을 위하여 무한한 대가를 치루신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자녀들이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당신을 섬기기를 바라신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18, 319.

자연스럽고 소박한 어린이들은 매우 매력적이다. 어린이들을 남의 눈에 특별히 띄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저들의 용모나 언행을 칭찬함으로써 허영심을 조장시키지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값지고 사치스러운 모양으로 옷을 입혀서도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다운 단순성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저들은 작고 요긴한 의무들과 나이에 어울리는 쾌락과 경험들로 만족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유아기는 비유 가운데 있는 짝에 해당되며 그 짝은 그 나뉠대로의 아름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린이들은 억지로 조속하게 키워서는 안 되며 가급적 오랜 동안 유아시절의 신선함과 유아함을 간직하게 해야 한다. -실물교훈, 83, 84.

제일 처음으로 주는 교훈들이 가장 중요하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아직 어린 정신에 부담을 주는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시키며 때때로 음악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종종 부모들은 학비 조달의 제한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빛을 지면서도 인위적(人爲的)인 교육을 주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내(堪耐)한다. 이런 방침은 현명하지 못하다. 신경이 나약한 어린이는 그의 신체가 잘 발육될 때까지 과중한 지도를 받거나 음악을 배워서 안 될 것이다.

---

**자녀들이 그대들의 슬하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납하실 품성을 계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숙한 문제인가!**

---

모든 어린이가 처음으로 받는 교훈들을 주는 교사는 어머니여야 하며 가정의 그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 어린이가 받는 교훈들 중에는 근면에 대한 습관도 포함되어야 한다. 어머니들이여, 어린이들로 옥외(屋外)에서 놀게 할 것이며 새들의 노래를 듣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

물 가운데 나타난 당신의 사랑을 배우게 하라. 자녀들에게 자연계에 관한 책과 자연계에 관계된 사물들에서 단순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저들의 정신이 자람에 따라 책들에서 배울 교과들을 첨가할 때에 저들의 기억에 뚜렷하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초년기에서도 유용한 역할을 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집안의 일들을 나누어 각자가 공평하고 요긴한 부분을 맡아야 하며 필요한 가정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끔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저희의 연령과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유용한 일거리를 찾아 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들을 바쁘게 할 뿐만 아니라 흥미를 일으킬 만한 일감들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한다. 활동적인 손들과 머리들이 일찍부터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부모들이 자녀들의 활력을 요긴한 통로로 경주(傾注)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을 때 사단은 언제나 저들을 위하여 일감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큰 손상을 입히게 된다. 그들을 위해 선택하도록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 것인가?

### 유용한 봉사를 하도록 배움

어린이를 학교에 보낼 적령기가 되었을 때 교사는 부모들과 협력하여야 하며 학교 교육의 일부로서 노동훈련도 계속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이러한 종류의 일을 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저들은 유익한 노동을 마치 장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천박하게 여기고 있으나 그러한 태도가 말로 무엇이 진정으로 존엄한 것인지를 모르는 소치(所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하늘 궁정의 사령관이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교사와 안내자로서 그들 가운데 모든 청년들은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함이 요구되었다. 어떤 사업 분야에서도 그들이 실제적인 생애의 지식을 자기 부양뿐만이 아니라 유용하게 되도록 소유해야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

신 교훈이었다.

지상에서 생애하시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 가족의 한 모본이셨으며 가정에서는 순종하시고 조력하셨다. 주님께서는 목공 일을 배우셨으며 나사렛의 작은 목공소에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일하셨다. 그는 하늘 영광 가운데 생애하셨으나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입시고 인간들과 교제하셨으며 동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다. 한 사람으로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 영혼의 회복을 위해 일하셨으며 그분 자신이 사람과 접촉하기에 적합하게 하셨다. ...

신체 운동에 사용한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다. 끊임없이 책만 들여다 보면서 옥외 운동을 등한히 하는 학생은 스스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된다. 신체의 여러 기관과 기능에 알맞는 운동을 하는 것은 각 기관의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계속적으로 두뇌를 혹사하면서 다른 기관들을 무위 상태에 버려 두는 것은 육체적 및 정신적 질병을 초래하는 것이 된다.

단순한 경기나 장난을 위한 운동에서는 최대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근육을 운동시킴으로써 어느 정도의 유익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동일한 양의 활력을 가지고 유익한 노동에 사용한다면 그 유익은 더욱 가치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활동이 협조 정신을 길러주고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는 양심적인 생각 때문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저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어떤 일을 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저들의 포부를 각성시켜야 한다. 정신과 품성을 계발시키며 유용한 손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저들에게 맡겨진 생애의 부담을 짊어지도록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수련이야말로 체력을 강화시키고 모든 기능을 촉진케 한다. 선행을 위한 생활 습관을 길러 주는 고결한 근면성에는 보상이 있는 법이다.

부요한 가정의 자녀들도 뇌와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일에서 얻는 큰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의 윤택하심이 가정생활의 여러 의무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겁게 하고 부모의 부담을 나누어 지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보증으로 임하신다. 그들은 신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그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저들은 부모들이 사교의 즐거움과 건전한 휴양에 참여하여 더 긴 수한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인생의 실무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자녀들은 심신이 과로에 견딜 만큼 튼튼하지 못한 초년기에 학교 교실에 답답하게 갇혀서 얻은 교육보다 훨씬 우월한 교육을 받고 사회의 유능한 일원이 되기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나갈 것이다.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그들 앞에 교훈과 모본으로 참되고 무아적이며 근면하게 계속해서 배워야 할 교과가 있어야 한다.

### 교육적인 환경

가정을 택함에 있어서 부모는 단순히 세속적인 일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돈을 벌 수 있거나 가장 쾌적한 환경을 구하고 가장 큰 사회적 이점이 있는 곳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선악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생각할 것이다. 주거의 장소를 택함에 부모들의 가장 엄숙한 책임이 놓여있다. 가능한 그들은 그들 가족들을 빛의 통로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그들의 애정이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동일한 원칙이 우리 학교들에서,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또한 가족들에게 이런 교육적 이점들에 매력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도덕적 환경이 가능한 건전한 곳에 우리 학교들을 세우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연하고 있는 영향력이 청년들과 그 품성에 깊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적한 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대도시, 사업과 학문의 중심지들은 유익점들이 있어 보이나 이런 유익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

큰 도시에서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홍수 이전에 통용되었던 유사한 영향에 의해 둘러싸여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무시의 동일한 원리; 그리고 교만과 허영의 이기적인 만족의 즐거움 같은 사랑은 현 시대에 작용하고 있다. 세계는 즐거움을 주고 부도덕이 만연하며 연약하고 속절없는 사람들의 권리는 무시되고 세계적으로 대도시들은 빠른 속도로 죄악의 소굴이 되고 있다. ...

유쾌한 오락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은 심령의 깊은 갈망을 드러낸다. 그러나 세상 쾌락의 샘에서 마시는 자들은 그들의 영적 기갈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기만당하여 향락을 행복으로 오인하였다. 그러므로 흥분이 사라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낙담의 심연 속으로 빠져버린다. “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세속적 쾌락의 “터진 웅덩이”(렘 2:13)에서 마시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친 짓인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의 깊이를 느끼게 되며 우리에게 오는 이런 위험들이 우리 학교에 매력을 가진 가족들에게 유혹과 타락의 영향에 동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에 대한 지역 선정에 고려되어야 할 참신하고 중요한 감동을 주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위한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런 원칙을 중요시하셨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보냈다.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 학교에 있던 그 나라 위인들과 교제함으로써 그리

스도의 선구자의 높은 부르심에 적합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관습과 교리들이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을 할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갔다.

요한의 박해자들은 사랑하는 제자가 백성들 가운데 그의 음성과 그의 감화력을 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를 밧모섬으로 추방했다. 그러나 그들은 기록하신 교사[그리스도]로부터 그를 분리시킬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조사업을 통하여 주신 그분의 축복을 우리가 평가하기를 바라신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들이 받을 디딜 수 있는 한양금의 잔디도 없는 빈잡한 도시들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만일 그들이 시골에서 자연계의 아름다움과 평화와 순결함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하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한적한 장소에서, 세상의 오염된 금연과 관습과 흥분에서 가장 멀리 있게 되고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實在的)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교육에 관한 특별증언, 37-47.

### 무아적인 봉사를 위한 높은 목표

하나님께서서는 신령한 능력의 근본이 되시는 것처럼 지적 능력의 근원도 되신다. 세상 사람들이 과학의 놀라운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한 가장 위대한 인간들 일지라도 사랑하는 요한이나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다.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인격의 가장 고상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특별증언, 50.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단 2:49] - 나라를 통치하는 곳에서 그의 세 동무들은 상담자로서, 심판자로서 또한 통치자로서 세움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허영과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땅의 모든 통치자들보다 더 높임을 받는 자들로서 하늘 왕국이 지상의 모든 왕국보다 찬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교육에 관한 특별증언, 12.

우리는 각각 사람과 하나님의 힘을 결합하여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 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길에서 빗나가고 있다. 그들은 더욱 큰 명예와 즐거움을 찾아서 자신에게 적합치 않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 다른 직업에 적합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지적 직업(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직업)을 가

지려는 야망을 갖는 이가 많다. 농부나 직공, 혹은 간호원으로서 성공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이 목사나 변호사, 의사 같은 부적당한 지위를 차지한다. 반면에, 어떤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원기와 근면과 인내가 부족한 탓으로 안일한 지위에서 자족하는 수도 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전심으로 따라가야 한다. 가장 가까이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섭리의 지시를 주목하는 것 등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안전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 원칙인 것이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리스도께서는 거의 30년 동안의 생애를 평범한 기계적 생활로 지내셨으나, 이 기간에 그 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업을 연구하고, 당신의 감화가 미칠 수 있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셨다. 마침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병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눅 22:26, 27]. - 교육, 267, 268. 







# 그리스도인 가정

다비. P. 실바

창조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족을 형성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로서 가족을 창작하신 분이셨으며 각 가족들의 최선이 무엇임을 알고 계신다. 공중봉사의 초기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순수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심으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으며 신혼 부부에게 행복을 선사하셨다.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는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그리스도인 가정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며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인 나사렛 가정에서의 그분의 생애하신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가장 완전한 모본이 되신다. 누가는 유년 시절의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눅 2:40]

열 두살때에 유대의 최대 명절중 하나인 유월절에 참석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상에서의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그 축제가 끝난 후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서기관들을 만났으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눅 2:46] 라고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 후에 일어난 일로서 예수께서 그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돌아오셨으며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눅 2:51] 고 기록되어 있다. 그분의 하늘에서의 먼지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분 자신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완전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와 같이 지혜와 키가 자람에 따라 예수께서는 더욱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받으셨다. 그는 몸소 모든 사람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음을 보임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공명을 이끌었다. 그를 둘러쌌던 소망과 용기의 분위기는 그를 모든 가정에서 축복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종종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지자의 교훈을 낭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바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서 새로운 빛이 비취 나오는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과시를 피하셨다. 나사렛에서 사시던 온 기간에 그는 결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 그는 높은 지위를 원하시거나 높은 칭호를 받지도 않으셨다. 그의 조용하고 단순한 생활, 그리고 그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까지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아이의 생애는 조용하고 단순할수록 곧 인위적인 흥분에서 떠나고 자연에 조화될수록 심신의 활력과 영적 능력에 더 유리하다.

예수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의 유년 생애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그의 공생애 기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곳은 바로 그의 가정 생활에서였다. 그가 자기를 낮추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는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그의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높이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그의 사업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직공의 천한 직업을 신성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목수대에서 일하시던 때나 후에 군중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던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비천한 가정에서 보이신 신실과 순종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청년은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사 42:1)고 하신 말씀이 자기에 게도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시대의 소망, 74.

예수께서는 그가 태어나실 때부터 30세가 되실 때까지 요셉의 목공소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힘든 일을 하셨으며 그의 지상 가정에서의 일을 협력하셨다. 그후 그는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심으로 그분의 사명을 준비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자손들, 엘리야, 엘리사, 다윗,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 앞으로 나왔으며 자연 가운데서의 단순한 생애가 세속적인 사업과 영적 계발에 최선임을 배우게 된다. 가족들이 도시의 혼란과 소음 속에 둘러싸이지 않을 수록 생애를 위한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늘 가정을 위해 적합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 하나님과 천연계와의 매일의 교제

나사렛은 갈릴리의 매우 작은 마을로서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 가정을 둘러싼 자연 환경을 좋아하셨다. 아침 일찍 주께서는 천연계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시고 가정에서 떠났다.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의 첫 번째 교사였으며, 그는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셨다.

예수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을지라도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어머니께 최고의 존경을 표하였고 또한 돌보셨다. 그는 효자로서의 완전한 본이 되신다.

### 벤엘

그리스도인 가정은 벤엘,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찬미하고 기도하며 성경에 대한 연구가 우리의 종교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가족은 물론 개인적인 헌신은 하늘 모든 가족들을 위한 강력한 방어가 될 것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머무는 가족”은 그 정당성이 알려진 유명한 말이다.

아침에,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밤 동안에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족 제단에 모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송, 간단한 기도와 성경 연구는 예배시간이 귀찮은 의무처럼 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가족의 구성원이 가정을 떠나 밖으로 일하려 갈 때 그들은 하늘의 감화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악한 자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가 될 것이다.

가정에 돌아온 후, 가족이 하루 동안 돌보신 주께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위해 다시 한 번 가족 제단에 모여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저녁 휴식 시간을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사용한다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일깨울 것이다.

### 그리스도인 교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가족의 교제에 관하여 놀라운 교훈을 준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족의 환경을 묘사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 5:19-33].

식구들이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가정을 생각해 보라. 이런 가정에서 마귀는 전혀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가족들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엡 5:20]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 교훈에 뒤이어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권한다. 먼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

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엡 5:24] 하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엡 5:25]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아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흑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남편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3:1, 7-9].

위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그들 자신을 복종해야 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그의 아내를 영화롭게 해야 하며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권면한다.

만일 이런 조건들이 성취된다면 그들의 기도는 막히지 않을 것이다.

둘이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한다.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른다면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 부모와 자녀들

바울은 그들 가족에 관하여 부모들에게 권면한 후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교훈을 준다: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 하리라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1-4].

골 3:18-21에서 바울은 온 가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품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나니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지워 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 주며,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 계명은 또 목사들과 나라의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분부한다.

사도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엡 6:2)이라고 말한다. 잠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계명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며, 이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때 이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 -부조와 선지자, 308.

### 그리스도, 가족과 교회의 중심

“불일치와 부조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결과이다.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지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게 되며 그를 따르는 자들을 냉정하게 대한다. 빛이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은 더 넓게 분리된다. 믿는 자들 각자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 줄기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사랑과 빛의 중심이신 분과 함께 더 친밀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빛을 가진 자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화케 하는 은혜는 그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이끌릴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서로에게로 긴밀하게 이끌릴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그대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87.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족 내



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비록 이것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도-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있다.

하나의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변두리로부터 많은 선들을 그 중심에 연결시켜 보라. 선들은 그 중심에 가까이가면 갈수록 피차에 더욱 가까워진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간에 더욱 가까워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치된 행동으로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마음 품성과 인격 2권, 501, 502.

“나의 형제들이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 영감의 펜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목사들은 백성들 앞에 가정생활에 적용되어야 할 과목들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엘렌 화잇 1888 자료집, 1253.

### 세상을 비추어야 할 등대들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 간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교훈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은 예시는 이 세상에서 선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감화이다. 젊은 이들이 이러한 가정에서 나갈 때, 그들이 배운 교훈이 알려지게 된다. 보다 고상한 생활 원칙이 다른 가정에 소개되고, 향상시키는 감화력이 지역사회에 전해진다.

우리 가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의 사교적 접대는 세상의 관습을 그대로 따름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축제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장을 조력하는 사람이거나 종교 지도자와 전도자이거나를 막론한 레위인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런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손님으로 인정되어 모든 경우의 사회적 혹은 종교적 기쁨에 같이 참여하고, 병이 들거나 어려울 때는 친절하게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 가정으로 영접해야 할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와 같이 영접해 줄 때 흔히 집이 없이 가난과 많은 실망으로 고투하고 있는 선교사 간호원과 교사, 걱정에 눌리고 어려운 일에 시달리는 어머니, 연약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기쁨과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배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값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값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값을 받겠음이니라’ [눅 14:12-14].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대에게 큰 짐을 지워 줄 손님들이 아니다. 그대는 공을 많이 들이거나 비용을 많이 써서 그들을 접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대는 겉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영접하고, 화롯가에 같이 앉고, 가족들과 같이 앉아 식사를 나누고, 기도 시간을 함께 가짐으로 축복을 나누는 특권을 가짐으로써 그와 같은 믿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줄 것이다.

우리의 동정심은 자신의 영역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흘러가야 한다. 자기의 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감화를 주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따르게 된다. 만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들은 시험당하는 젊은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기로(岐路)에 서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모든 감화력과 인상은 이 세상과 내세에서의 그들의 운명을 풀지워 주는 길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악은 그들을 손짓하고 있다. 악의 장소는 찬란하고 매력적이다. 거기에 가는 자들은 누구나 환영을 받는다. 우리의 주위에는 가정이 없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가정이 도움이 못되고 향상의 능력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의 그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멸망으로 빠져가고 있다.

---

**“하나의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변두리로부터 많은 선들을 그 중심에 연결시켜 보라. 선들은 그 중심에 가까이가면 갈수록 피차에 더욱 가까워진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간에 더욱 가까워진다.”**

---

이런 젊은이들은 그들을 향하여 뻗어 주는 동정의 손길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하는 친절할 말, 간단하게 나타내 주는 적은 관심은 심령에 덮여 있는 유혹의 구름을 제거해 줄 것이다. 하늘에 속한 동정의 진정한 표현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씀의 향기와 단순하고 섬세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의 접촉을 요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흥미를 보여 주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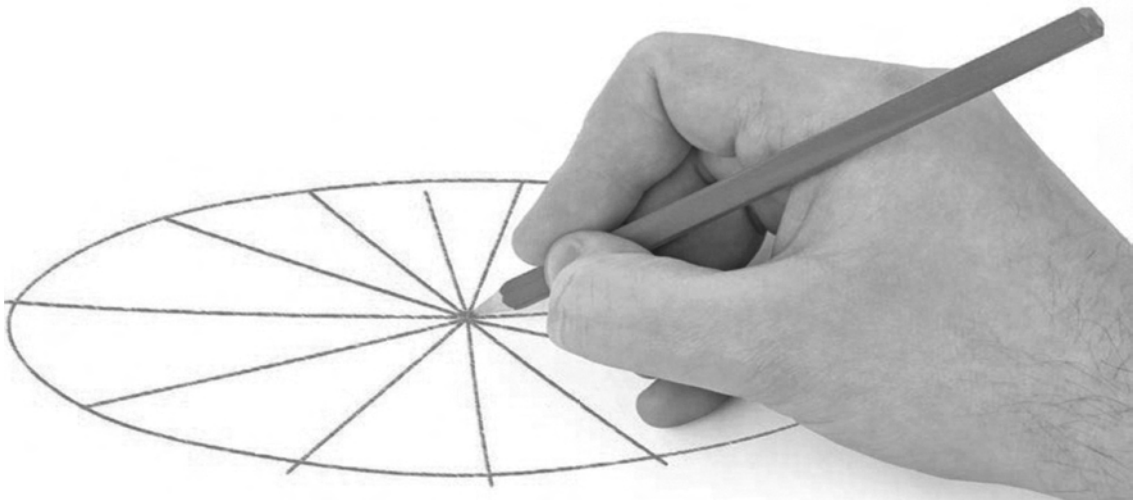
원하면 그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초대하여 유쾌하고 유익한 감화력으로 그들을 둘러 싸주라. 그리하면 그들의 발을 기꺼이 향상의 길로 돌이킬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 우리는 다만 한 번만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생애를 가장 잘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부름받은 일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친절하고 자아희생적인 정신과 확고한 목적을 요구한다. 아무리 작은 등불일지라도 그것이 꾸준히 켜져 있는 동안에는 많은 다른 등을 밝혀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좁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재능이 적고, 우리의 기회가 많지 못하고, 우리의 학력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주어져 있는 기회들을 충실히 이용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생애의 원칙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결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서 치유의 물결이 흘러나와 오늘날 불모(不毛)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과 미와 결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치료봉사, 352-355.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분의 은혜로 이 영감된 교훈들을 취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력한 설교를 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된 유업들을 틀림없이 받게 될 것이다.

이 기도주일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을 주시기를 기원한다!





# 지, 덕, 체의 온전한 교육

N. 타일러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건강 전도회를 통하여 안식일 준수자가 되었다. 그는 기별에 대해 매우 열정적인 욕망을 갖고 있었지만 심각한 학문적 결함으로 방해를 받았다. 선교사 훈련을 통해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는 잠시 동안 전도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원했던 것은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그는 의사 친구에게 이 문제를 언급했을 때, 의사는 그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의학분야의 연구의 어려움에 대해 그 청년에게 상기시키고 먼저 1년 동안 건전한 음식과 매일의 운동, 충분한 수면, 절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 등을 포함하여 예언의 신에 주어질 생활 환경을 바꾸도록 그에게 제안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은 그의 친구의 권면을 조심스럽게 따르면서 수련과정을 거친 후 좋은 성적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교육사업에서 전인교육을 숙고할 중요성을 설명해 준다. 온전한 교육은 단지 정신교육이나 정보의 학습보다 더 해결할 점을 알려준다.

##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위한 창조주의 계획은 전체를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즉시 온전한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창 1:27].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靈性)은 하나님(그를 지으신 분)을 매우 닮아 있었다.” -교육, 15.

죄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모양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구속의 약속은 회복을 포함한다. 사도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

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고 기도했다.

그리스도인 교육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위해 가지신 높은 이상에 대해 이런 전체적인 계발을 추구한다. 그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9].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 범위가 너무 좁고 그 정도가 낮다. 우리는 더욱 넓은 식견과 보다 높은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참된 교육은 ... 지(知), 덕(德), 체(體)의 능력이 균형지고 원만하게 발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 13.

하나님의 의도가 지(知), 덕(德), 체(體)의 능력이 균형지도록 교육하는데 있으므로 우리의 첫 번째 우선권은 다음과 같은 창조주의 교훈을 성실하게 유지하는데 있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참된 성공은 사람들이 창조주의 계획을 수행하는 성실성에 달려 있다.” -부조와 선지자, 595.

## 체력

최근의 연구에서 종사하는 신체 활동의 양과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비교해 보았다. 연구자들은 격렬한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사이에 강력한 연결이 있다. 따라서 온전한 교육은 신체적인 교육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초에 첫 번째 사람을 위한 환경을 만들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창 2:15]. 에덴 동산은 생명의 길을 위한 장소가 될 뿐 아니라 제도가 되었다. “이 세상의 시작과 함께 세워진 교육 제도는 그 후의 모든 시대를 통해



인류의 교육을 위한 모형이 되어야 했다. 그 원칙을 실제로 보여 주는 하나의 시범학교가 우리 시조의 보금자리였던 에덴에 설립되었다. 에덴 동산은 교실이었고 천연계는 교과서였다. 창조주께서 친히 교사가 되셨으며 인류의 시조는 학생이 되어 배웠다.” -교육, 20.

이 제도는 우리가 설립한 기관들에 대한 조언이 될 만큼 그 자체가 그토록 중요하다. “농업 분야의 연구는 우리의 학교들에서 실천하는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마땅히 착수해야 할 첫째 되는 일이다.” -교회증언 6권, 179.

### 성경의 실례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이 그들의 준비의 사업과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려주는 위대한 지도자와 교육자의 많은 우수 사례를 보여준다.

엘리사는 농부의 쟁기를 내려 놓고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나 있게 해 달라고 구하기 전에 성실히 엘리야를 섬기기를 계속했으며 선지자 학교를 지도함으로 이스라엘 교육 사업에서 중요한 시대가 오기를 구했다.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명성에 빛나는 지성과 불굴의 용기와 에너지로 충만한 유망한 젊은 남자로 상승했다. 그는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자신의 텐트 만드는 직업을 통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육의 증거를 주었다. 이 모든 기능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자가 되게 하였다.

가장 위대하신 교육자이신 예수님은 정신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에서 자신의 젊은 청년 시절을 보냈다. 그분의 몇 년 동안의 실제적인 봉사 활동에서 군중들에게 설교하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그의 치유의 손은 더 자주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사용되었다.

### 실제적인 사업

당신의 손으로 하는 작업은 지적 계발을 촉진하며 일반적인 기능을 선도하고 지적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 신문은 “실제 3차원 학습 환경에서 자신의 손으로 작업하는 것이 전체 인지 및 지적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뇌의 중요한 신경 회로를 계발하며, 우리가 실현 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육체 노동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은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노동에서 학생에게 기술의 선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 할 수 없다.

“실지로 하는 일은 면밀한 관찰력과 독자적인 생각을 조성시킨다. 이 일이 바르게 실행되면, 소위 상식이라는 실제적인 지혜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것은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용기와 견인성을 강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또한 재치와 숙련이 요구된다.” -교육, 22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델로부터 생각할 때 농업은 신체적인 훈련의 매우 중요한 국면이다. “학생들은 농업 부문의 실제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교육은 많은 학생들의 장래 사업에 고귀한 가치를 갖게 할 것이다. … 농업은 자급자족을 위한 자원을 공급해 줄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토지를 경작하는 일에 즐겨 종사하도록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311.

농업을 포함하여 실제적인 사업을 위한 적절한 제공이 교육에서 그토록 중요하므로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농사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학교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일을 올바른 면에서 발전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교회증언 6권, 178.

---

**하나님의 의도가 지(知), 덕(德), 체(體)의 능력이 균형지도록 교육하는데 있으므로 우리의 첫 번째 우선권은 창조주의 교훈을 성실하게 유지하는데 있어야 한다.**

---

### 수공

“강하고 잘 조화된 품성을 얻기 위하여 지적·육체적 능력을 행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 각자는 어떤 분야의 수공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할 것이며 만일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저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부조와 선지자, 601.

때때로 우리들은 가능한 육체노동을 피해야 할 일로 생각할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공에 의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자들까지도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601. “만약 우리가 언급한 계획 그대로 학교들을 설립했다면, 현재 그토록 많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인물들이 없었을 것이다.” -교회증언 3권, 153.

슬프게도 신체훈련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에서 때때로 등한시 되고 있다. “현재 학교들이 운영되는 것처럼 끊임 없이 연구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은 청년들을 실제 생애에 부적절한 인물로 만든다. 인간 정신은 활동하기 마련이다. 만일 그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그릇된 방향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3권, 153.

“균형진 정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노동과 연

구가 결합되어야 한다. ... 매일 몇 시간씩 노동에 바침으로 체력과 정신력이 동등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였다.” -교회증언 3권, 153. 일반적으로 이 권고를 따른 기관들은 육체노동에 하루의 절반을 쓰여지게 했다.

육체적인 일에 시간을 바치는 것은 확실히 유익한 일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계획을 따름으로 학생들은 신축성 있는 정신과 활력에 찬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회증언 6권, 180.

###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검색 엔진의 출현은 현대 사회에 문제를 도입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단지 검색 창에 일부 단어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그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 있다, 그들은 즉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는 우리가 거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덜하게 되고, 주어진 주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하지 않게 된다.



연구기관이 발표한 기사를 보자: “정보화 시대가 열림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일, 곧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그들 주변 세계에 관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영적인 것에는 근면과 진지하게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는 주의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에 의해 단계별로 지식의 단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사 28:10].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3]. 태만한 자는 결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 영적 지식도 열렬한 노력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진리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한다. -실물교훈, 111.

성경연구는 단지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다. “성경절과 성경절, 영적 사물과 영적 사물을 서로 비교하면서 성경

의 여러 문제들이 지닌 상호 관계를 찾아낸다면 우리의 정신은 신장될 것이다.” -청년들에게 보내는 기별, 262. 그대가 답을 찾음으로 그대는 정신력에 새로운 연결과 힘을 줌으로 그대의 두뇌에 활력을 줄 것이다.

나와 성경연구를 할 특권을 가졌던 한 젊은이가 그의 특이한 경험을 설명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벌써 한 번 실패했던 고교 검정 시험을 치루어야 했다. 그 동안 우리는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녀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몇 달 후, 그녀는 고등학교 검정시험을 치루어야 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준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녀는 가서 그 시험을 보았다. 그녀는 그녀의 시험 결과를 받았을 때 그녀가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고 말하면서 매우 기뻐하며 나에게 왔다. 그녀는 단단히 그녀의 정신 전력을 강화했으며 성경공부의 장점을 믿게 되었다.

온전한 교육은 학문에 근면과 끈기와 정신적 훈련이 포함된다. 이런 특질들은 인생을 성공하는데도 필요하며 또한 성경연구는 그것들을 계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성경 연구는 지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연구보다도 뛰어나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탐구하여야 할 얼마나 귀중한 사상의 분야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연구의 깊이를 가일층 더하여 진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정신은 힘을 얻는다. 그러나 아직도 거기에는 무한한 미개척지가 놓여 있다.” -청년들에게 보내는 기별, 253.

### 영적 활력

성경연구는 또한 깊은 유익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충전시킴으로 영혼에 도덕적 활력을 준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 119:11]고 증거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유혹에 덜 민감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킨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접촉함으로써 식별력이 예민해지고, 사단의 공격에서 영혼을 보존하게 된다.” -청년들에게 보내는 기별, 397. 그러므로 성경의 깊고 친밀한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 도덕적 유익을 주는 완벽한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때대로 우리는 교육이 마음에 정보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시 51:6].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시대의 소망, 308. “[하나님의]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시대의 소망, 391.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연구할 특권을 주심으로써 우리 앞에 훌륭한 잔치를 베풀었다. …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적 능력은 증가하며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난다.”-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207. 이 사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 받을 때에 마지막 기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성경주석 [E. G. 화이트] 4권, 1161.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므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찬만하신 것으로 찬만하게” [엡 3:19] 될 수 있다.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참된 교육의 기초이다. … 무아의 정신은 모든 참된 계발의 기초가 된다. 무아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능은 최고로 세련된다.”-교육, 16.

교육의 영적 초점은 바로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지신 이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이다. 경건 곧 하나님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 곧 도달하여야 할 목표이다.”-교육, 18.

신령한 사업인 교육은 현 세상을 지나서도 계속된다. “이 세상에서 시작한 교육은 이생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혼토록 계속될 것이며, 언제나 계속되어도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교회증언 8권, 328.

### 최전선에 나옴

오늘날 우리는 활기에 넘치는 청년들이 심히 요구되며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교육, 57.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天分)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교육, 57.

우리는 지금 개혁운동이 시작된지 1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 왔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지나간 시간을 되찾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올바르게 훈련된 우리 청소년 일꾼의 군대가 준비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셔서 멀지 않아 오실 구세주의 기별이 얼마나 속히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인가! 얼마나 속히 우리 자녀들에게 죄의 해와 고통을 가진 이 세상 끝이 올 것인가!”-교육, 271.



오늘날 세상은 “위대한 개혁사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치료봉사, 143.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전에 없었던, 우리는 교육의 참된 과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한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만일 이것이 하늘을 얻는 값이라면 우리의 교육은 이런 방면들에 관하여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그리스도인 교육, 1897.8.1.

우리 앞에 놓인 사업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온전한 교육,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한 교육을 구하는데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현대진리의 기별을 전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모든 명예를 깨뜨려야 한다. 우리는 참된 교육 분야에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며 세상 지혜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개혁자들이 된 기별자들을 부르신다. 우리는 기별을 이해할 백성들을 준비하고 그후에 세상에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리뷰 앤드 헤랄드, 1908.2.6.





#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림

D. 슈레쉬쿠마르

## 평온한 가정의 모습

시편 기자는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시 127:3-5]고 선포한다.

자녀들이 여호와와 기업임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재산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화살과 같은 활력을 가진 그들은 분명한 지도가 요구된다. 화살이 적합한 목표를 갖지 않을 때 무슨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가! 따라서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엄숙한 책임이다.

또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축복을 선포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시 128:1, 3].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감사해야 한다. 사랑의 표징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은혜 안에 있으므로 부드러운 포도나무처럼 그의 아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자녀들은 덩굴로서 묘사되지 않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작은 나무로 모여 있으며 그들은 희망과 미래를 분명히 자신과, 자신의 권리를 가진 별도의 작은 나무들로서 소망과 장래가 촉망되는 자녀들

로서 모여 있다. 그들이 “감람나무”들로 표상된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표현인가! 스가랴 서에는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성령으로 표상하고 있다[스 4:11-14]. 이것은 이 헌신한 부모들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가정의 모습이다.

##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위의 장면은 참으로 아름다우나 불행하게도 이런 가정을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회에 대부분이 존재하는 현재의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나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다고 하는 나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잠 30:11-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지어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서도 제공되는 소망의 놀라운 기별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하였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말 4:5, 6]. 여기에 선지자는 사업의 특성을 진술한다. 그리

스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자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던 것처럼 충성스러운 엘리야로 대표되어 있다. 개혁의 대주제가 되흔들어서 대중의 마음을 휘저어야 한다.” - 교회증언 3권, 62.

그렇다. 말라기서에서 우리는 잘 알려진 예언을 통해 고귀한 목표물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 때에 고상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뿔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기록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딤후 3:1-4].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인가?

### “황금률”에 의한 삶

우리들 대부분은 가장 규칙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 환경의 효과적인 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부모들은 그들에게 특별히 보호하도록 위탁된 젊은이들을 위하여 권위의 가장 중요한 “규칙”인 유명한 “황금률”을 끊임없이 행사해야 할 것이다. 주께서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으로서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눅 6:31].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12].

너무도 자주 그들이 젊었을 때 열렬한 훈련의 부족으로 이 슬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당하고 자신들의 변덕스러움을 나이가 들어 깨달을 때 불쾌한 얼굴을 가지고 그 사실을 대면하게 된다. 그들은 자녀들로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기를 허락해 왔으며 그들은 나이가 든 후에 그들 자신의 변덕스러운 생애를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

###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떤 자녀들은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그들 스스로의 길을 택해야 하고 부모들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부모가 그들에게 시중을 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들은 제지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부모를 돕기에 충분할 만큼 자란 후에도 그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의무에서 면제되어 왔으므로, 집에서나 밖에서나 쓸모 없는 사람으로 자라난다. 그들은 인내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부모가 짐을 다지고, 그들은 질서와 근면과 절약의 습관 없이 나태한 중에 자라도록 용납되었다. 그들은 자제의 습관을 배우지 않고, 귀여움을 받고, 제멋대로 하고, 식욕을 만족시켜 왔기 때문에 허약한 건강 상태로 자라났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들은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게 한다. 자녀들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그들이 훈계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나가서 젊은이들과 교제하고 사귀도록 허용되므로, 피차에 타락시키는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나님의 저주는 불성실한 부모에게 분명히 내릴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상처를 줄 가시를 심고 있을 뿐 아니라, 심판이 내릴 때 그들 자신의 불성실을 목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자녀들이 심판의 때에 일어나서, 부모가 자기들을 제지해 주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그들이 멸망받게 된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부모는 그릇된 동정과 맹목적 사랑으로 자녀들의 결함을 변명하고, 그 결함을 고치지 않고 지나쳐 버린다. 그 결과로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들의 피는 불성실한 부모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와 같이 훈계를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자 공언할 때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의 모든 신앙적 경험은 어린 시절의 성장에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과 동일한 고집이 자주 나타난다. 동일하게 극기가 결핍되고, 책망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받기 싫어하고, 나태하고, 의무를 회피하고, 책임감이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이 교회와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와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 싸움이 얼마나 극심한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품성의 표준에 도달하기에 필요한 철저한 훈련의 길을 걷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그들은 승천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올바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순종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벼랑 끝까지 어느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갔던지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교회증언 1권, 218-220.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순종을 배우는데 실패한 고통스런 결과를 여기서 알게 된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 자녀들의 훈련의 필요성이 조급하고 갑작스러운 조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가? 대답은

황금률에서 발견된다. 만일 그대가 어린 시절에 훈련을 받았다면 무엇을 선호할 것인가? 그대는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결합된 균형을 갈망했을 것이다. 엄숙하고 합리적인 공의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의로운 미덕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제를 실천하면서 합당하게 준비할 것이다. 헌신적인 부모의 활기차게 보살피는 사랑에 무아적이고 개별적으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는 적절하게 우리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빛나는 광채를 발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 성공의 비결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자녀 교육의 중요한 3단계 방법을 설명하셨다. 그것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친절함 말   \* 사랑스런 얼굴   \* 부드러운 접촉

말은 항상 친절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말들은 주의깊이 선택하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골 4:6] 목사에게서 청중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외모와 얼굴 표정은 사랑을 전달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감사가 가족을 연합시키는데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접촉은 온유의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너무도 사랑받게 하고 자기 희생의 사랑 같은 소중한 요소로 풍부하게 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격노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낙심하기 때문이며 [골 3:21] 부모들도 어린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해야 하며, 우리 말이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주기 때문에 일관되게 행해져야 한다. 그들은 또한 엄숙하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골 3:20]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녀들이 즐겨 순종하도록 왜 쉬운 말로 더 신뢰할 수 있게, 또한 즐겨 순종하도록 하지 않는가?

일찍 그 방법을 시작하라.

“어머니는 아이가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위에 군림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혹한 방법에 호소할 필요는 없다. 그대의 사랑을 아이에게 확신시키는 확고 부동한 손과 친절함 행위가 그 목적을 달성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출생 후 3년 동안 이기심과 분노와 고집을 그대로 방임하여 둔다면 그 아이를 건전한 훈련에 복종시키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아이의 성격은 까다롭게 된다. 또한 자행자지하기를 좋아하

며 부모의 통제를 싫어한다. 이 악한 성벽은 아이의 성장에 따라 함께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극단적인 이기심과 자체의 결핍으로 그는 우리나라에 만연된 악에 완전히 지배당하게 된다.

어린이들이 부모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도록 결코 방임해서는 안 된다. 고집을 견책하지 아니한 채 방임하여 두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장래에 행복해 지려면 친절하고 애정은 있으나 단호한 훈련이 필요하다.” -새자녀 지도법, 83.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명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순종은 꾸지람이나 위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라. 많은 부모들은 질책을 쏟아부음으로써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말할 필요가 있음을 숙고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이 어린 자녀들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며 주 예수의 소유로 사신 바 되었음을 기억하지 않는다.” -새자녀 지도법, 76.

“부모들이 자녀들의 응석을 받아 주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견고하고 과단성 있고 솔직한 행동 방침은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교회증언 4권, 313.

“내가 어머니들의 주의를 그들의 매우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이 조장하고 있는 그릇된 습관에 돌리게 하였을 때 어떤 어머니들은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며 어떤 어머니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였다. ‘아 그 어린 것들을! 어쨌건 저는 차마 그들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좀 더 나아지겠지요. 그 때가 되면 그들은 이런 화를 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까다롭고 엄하게 하여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장성하면 거짓말, 속이는 일, 나태하고 이기적인 것도 없어지겠지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진정으로 문제를 처리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방법이다. 발을 돌보지 않은 채 버려둔다면 틀림없이 해로운 잡초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일이 자녀들에게도 생긴다. 마음 발이 경작되지 않는다면 사단은 자신의 분노와 원함과 이기심과 교만의 씨앗을 뿌리며 그런 씨앗들은 속히 자라서 부모들은 수확할 때에 비통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들은 너무 늦게서야 그들의 무서운 잘못을 알게 된다. 그들이 행한 잘못은 전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자녀가 인내와 끈질긴 돌봄으로 구주께 구주의 품에 안기지만 그의 품성은 언제나 사단이 씨를 뿌리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엄격하고 귀엽지 않게 자라난다.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체에서 그들의 생애는 불만으로 가득차게 된다.” -리뷰 앤



드 헤랄드, 1907.1.24.

**건전한 훈련은 얼마나 속히 시작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촉진되어야 하는가?**

어머니는 임신기간 동안 그녀의 원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으며 그녀 자신의 선택을 이성의 제어에 순복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태어난 후에:

“만 한 살이 되기 전의 어린 아이들도 그들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며 어느 정도까지 때를 쓸 수 있는지 안다.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의 소원에 자녀들이 복종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

어머니의 감화는 끊임없는 감화이다. 그리고 그 감화가 항상 정의의 편에 끼쳐진다면 자녀들의 성품은 어머니의 도덕적 열성과 가치를 증거할 것이다. 어머니의 미소와 격려는 복돋우는 힘이 될 것이다. 어머니는 사랑의 말과 호감의 미소로써 자녀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영문시조, 1891.3.16.

**훈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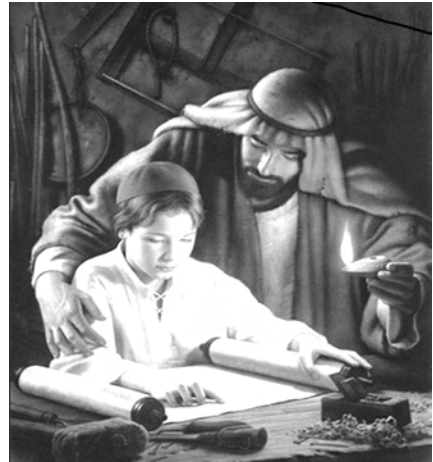
“훈련”은 “제자” 학생 또는 견습생과 같은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그리스도인 훈련은 부모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을 위한 준비를 통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

주께서는 맹목적으로 그를 따라하는 로봇이나 그의 나라를 손상시키는 버릇없는 변덕스러운 자녀들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꺼이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며 외적인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되고 진심 어린 봉사를 구하고 계시다. 내부에 있는 마음의 청결은 속으로부터 밝게 빛나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는 것이다[시 144:12].

모본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모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훈육하는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대의 감화력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되 필요한 경우에 말씀들을 사용하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신 11:18, 19].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며 그 말씀들이 매일의 생애에 저절로 나오도록 실제적인 안내자로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지시들을 따라야 한다.



**인자함은 되돌아 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공언하는 각 가족들이 참으로 마땅히 공언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행복이 가정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정 생활에서 나타나실 것이며, 부모와 자녀는 그 사실을 교회에 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돌보도록 요구하신다. 부모들을 돌보기를 게을리한 죄악들이 하는 기록책에 기록된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정을 제공하지만 사랑과 부드러움과 동정심을 나타내지 않으며 가장 필요할 때에 그들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부모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 삶에 명랑함과 햇빛이 비추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야 하는 것이 그대들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순탄하게 무덤에 들어가도록 돌보라. 부모들에 대한 이런 품행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며 또한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늙은 부모가 기쁨과 안위를 기뻐해야 얼마나 누리지 못하신다는 것을 신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녀들이 소홀함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을 부모들의 마음에 가져다주어서는 안 된다. 늙어서 무력하여진 아버지 어머니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나쁜 자녀들의 죄가 없을 것이다. 이런 죄는 하늘에 슬픔을 줄 것인데 이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들로서 기록될 것이다.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이다.” -원고모음 13권, 84, 85.

**결론**

요약하여 말하자면 “부모에게 자녀의 현재와 영원의 관심사가 맡겨졌다. 그들은 가족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통제와 지도의 고삐를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지배하여야 한다.” -영문시조, 1891.3.16.

그렇다. 죄의 저주를 통해 인간 가족에게 가져다 준 타락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씻어버릴 수 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한 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소망을 주며 장래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경험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원수의 희생물이 되도록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개혁사업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하며 차례대로 응답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지나간 시간을 만회하고 우리 모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사 54:13].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전 12:31]

### 절망적인 모습

이 지구도성에는 약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며 인생의 분명하고 가치 있는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다. 또 다른 큰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관습들을 상속받거나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잘못된 관념의 가련한 희생물로서 어떤 약속을 많이 하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자신의 존재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쾌적하고 안락한 지구촌에서 그들의 제한된 시간에 단기 목표를 세우고 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그들 중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그들이 세운 목표에 성공을 거두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에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실패해 왔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며 영원에 대한 절대적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들의 모든 초기의 완전한 구성성분인 신체, 지성, 애정은 놀라운 속도로 악화되었고 이런 그들의 사악함에 이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창조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창 6:6] 부패하게 된 것은 외적인 품행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품위의 모든 한계를 넘어 성령의 권면에 응답하기 위한

여지가 없을만큼 부패하게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5].

창조주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인류는 영혼의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그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전멸될 때까지 그렇게 부패하게 되었고 인류는 원수의 형상을 반사하기 시작했다.

죄는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보다 오히려 인류의 생활 양식의 독특한 구성요소가 되었으며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엡 4:19].

대 기만자를 따라, 인간의 가치는 크게 감소되고 인류에게 전혀 선한 것이 없을만큼 매일 쇠퇴되어 갔고 마치 노아 당시나 고대 가나안 족속들처럼 멸망이 무르익어가는 시대에 와 있게 되었다.

죄의 삶이 사망(롬 6:23)이 되어 온 이후에 인류는, 가련한 선택을 통해, 영원히 목 말라하고, 장기적인 만족도를 결코 지속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생애는 결국 죄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올 절망적이고 속절없는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모든 성취가 더 이상 유익이 될 수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 눈에 보이는 희망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땅의 창조물 중에 걸작품인 인류가 이런 숙명적인 운명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로 멸망 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실 수만은 없으셨다. 그러므로 당신의 무한하신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어 구원의 경륜을 통하여 그들의 최초의 완전을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심으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할 길을 제공하셨다.

이것은 실제로 성경의 기별이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회복을 위한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기회에 관한 것임을 보여준다.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 **성경의 각 권 각 면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상시키는 훌륭한 주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고전 15:57)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교육, 125, 126.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은 죄의 용서를 받고 과거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도덕적 퇴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함을 받는다. 이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 [요일 1:9]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생애의 궁극적인 기회로서 헤아릴 수 없는 값으로 이 기회가 제공된 이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 관하여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무시할 수도 있고 최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영의 권세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높은 수준에 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우리의 첫째 의무는 자기 계발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최고도의 완전예까지 계발시켜서 우리의 역량껏 최대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품성을 깨끗케 하고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필요되는 바 그 은혜는 우리들로 우리의 결함을 보게 하고 교정하게 하며 우리의 품성 가운데 탁월한 점을 계발시킬 것이다.” -새자녀 지도법, 164.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행되는 이 정결케 하는 역사는 단지 표면적인 역사는 아니다. 그 대신에 이것은 인간 본성의 바로 핵심이며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외적인 모양이나 행동의 몇 가지 측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전 존재의 이해와 인식과 느낌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예수께서 밤에 니고데모와의 밤중 대화에서 그 놀랍고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고 설명하셨다. 이 새로 태어난 우리 품성과 인격의 본질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2-24].

### 하늘로 난 거듭나게 하는 과정에 협력함

생애의 어떤 측면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고 또한 그것은 얼마나 멀리까지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전 존재의 모든 면에 절대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5].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며 [고전 1:4-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7].

철저한 변화를 주는 이 과정 외에 생애의 어떤 다른 과정이나 우리 존재의 다른 분야가 개입될 수 없다. “[잠 4:7; 15:2 인용됨]. **참된 교육은 이와 같은 지혜를 나눠 준다. 교육이란 능력이나 재예의 어느 한 부분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분야의 지식이 계발되고 최적화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된 교육이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사회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의무를 망라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 225.

이 과정은 성화라는 용어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 거룩함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을 위한 우리의 준비를 위하여 범사에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롬 6:17, 18, 22]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기심과 죄악의 얽어매는 것을 끊어 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사도행적, 565.

이 거룩함의 성취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그리스도인 품성의 모든 면에 완전을 주며 이 생에서 개별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사랑의 가치를 주며 내세의 영광스런 삶을 완전하게 하도록 신자의 가치를 증진시킨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은 사람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보다도 더 높다. 경건 곧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학생들 앞에는 끊임없는 진보의 길이 열려 있다. 학생에게는 이루어야 할 목표, 도달해야 할 표준이 있으며, 이 목표와 표준은 선하고 순결하고 고상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학생은 참된 지식의 각 분야에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멀리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하늘이 땅보다 더 높은 것같이 단순히 이기적이며 속된 관심사보다는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교육, 18, 19.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를 결코 타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신앙은 인간을 거칠게 하거나 난폭하게 하지 않으며 무례하거나 거만하거나 또는 성미가 급하고 완고하게 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신앙은 취미를 세련되게 하며 판단력을 성화시키고 사상을 순결케 하며 고상하게 하여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지신 이상은 가장 고상한 인간의 사상이 미칠 수 없으리 만큼 높은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 가운데 당신의 품성의 한 사본을 주셨다. ...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데 있다. 우리들 앞에는 계속적인 발전의 진로가 열려 있다. 우리들에게는 성취해야 할 목적이 있고 도달해야 할 수준이 있는데 그 목적과 수준에는 선하고 순결하며 고귀하고 고상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품성의 완성을 향해 계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전진과 향상이 있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365.

주께서는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삼상 2:30]. 다니엘과 그 세 동무의 역사는 왕에 의해 시험을 받았으며 모든 동료보다 열배나 뛰어났던 것은 그들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 특히 혹심한 시련 아래서 나타낸 많은 모범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 믿음이 이 생에서도 그들을 존귀하게 했다. [단 1:19, 20; 2:48, 49].

우리는 요셉, 모세, 또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다른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깊이 생각한다면, 모든 곳에서 동일한 패턴을 인식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 각 사람에게 그들의 약점을 보여주시고 시련을 통해 인도하시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 (엡 4:13) 도록 그것들을 이기고 자라도록 도우셨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고 그들의 뜻은 물론 그들의 충성함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을 반사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극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주께서는 각 시대에 비슷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날 주께서는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충성된 백성들을 영적 최고의 경지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의 생애에 임의로 개입하여 행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는 삶을 완전히 개선하기 위해 자원하여 성령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사람을 변화하게 하신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의 협력 없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가려뽑은 기별 2권, 236.

하나님께서서는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순종만을 받아드릴 수 있으시며 강제로 순종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나 품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즐겨 받아들이지 않는 한 주께서는 우리를 개선시키실 수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그분은 우리를 즐거워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고는 충족될 수 없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 그분은 신속하고 즐거운 마음에서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이 보다 못한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교회증언 3권, 369.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순복은 항상 고통이 없거나 안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때에 분명히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죄인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피할 수 있으며 우주의 어떤 물질적 가치에 비교하여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벧전 5:10].

### 훈련된 생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결국은 시들어 가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신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고 계발하며 모든 종류의 규칙과 제한으로 다져진 매우 훈련된 프로 운동선수들에 비교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이 하나의 목적에 그들의 삶을 바친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

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 9:25].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의 생애에서 영생을 위한 경주에서 승리하려는 성실한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생애의 투쟁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그들이 날마다 경건과 도덕적인 탁월함을 구하며 법대로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호소하였다.” -사도행적, 315.

###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

영적 달성의 우수한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시간을 활용하여 지적, 영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모든 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것은 이 목표의 달성에 가장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독특한 것이다. 이것은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생애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교육, 126.

“신실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며,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교육, 124.

우리의 목상의 주제에 따라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만일 이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매일 깊은 관심을 갖고 그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본성은 그의 모양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예수님을 바라봄으로[히 12:1-3], 우리는 앞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각 지나가는 하루 하루가 깨발의 새로운 수준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게 하며 우리의 육체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하여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용기와 굳건한

믿음으로 유쾌하게 전진하며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


###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골 1:6]. 우리에게 주신 보증을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유 3]. “누구든지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골 2:18]. 이 목적을 제시하고 사도는 우리로 포기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히 10:36, 37].

주께서 오실 때 우리는 언제나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살전 4:17; 요 14:3]. 그럼에도 우리의 발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애(贖罪愛)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企圖)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우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鼓動)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原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7, 678. 





“너희는 [주님에 의해 주어진 법칙과 판단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신 4:6].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 2:15].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이 성구의 아름다운 설명은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일본에 파견된 선교사에 의해 인용된 말씀이다. 그가 휴가를 얻어 영국에 돌아왔는데 그는 그곳, 그의 아파트에서 일본 왕실의 가족들의 방문을 받았다. 그들은 이 선교사의 지인들이었고 그때 유럽을 여행하는 중이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외쳤다. “오! 당신이 오늘 여기 왕족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선교사는 “무엇이 당신에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가?”라고 물었다. “왜냐하면 왕족의 독점 사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향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누구도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지 않으며, 그 향기로운 냄새가 아파트에서 풍깁니다. 우리는 당신이 여기서 왕족들이 방문한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한 하늘 시민들이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됨을 공언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공언하는 바가 무엇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뒤에 우리가 하늘 가족 중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영적 향기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를 주목하고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에 관하여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한 목적을 갖고 지음 받음

우리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었다.”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18, 24]. 이 둘을 만드신 의도 중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말씀 속에 선언되었다.

“여호와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18].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이 반역하여 하늘에서 내어쫓겼을 때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성경주석[E. G. 화잇] 1권, 1082.

만일 우리 첫 부모들의 불순종을 통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간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짧은 시간에 성취될 수 있었을 것이었다.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죄의 입구가 열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지체를 초래하고 죄는 하늘에 빈틈이 생기게 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죄를 짓고 쫓겨난 천사들의 빈틈을 채울 수가 없었다. 죄인들은 하늘 가족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죄인들이 되기를 그쳐야만 하였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성취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즐겨 구원 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그토록 적은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4].

우리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많은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합의에서 가인의 예를 따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처방하신 방법으로 구원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채립하실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 놓으신 계획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벧전 2:9]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빌 2:15] 도록 초청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고 말씀하셨다. 그대와 내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큰가! 그 책임이 얼마나 중한가! 하나님께서는 각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선한 감화를 끼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의 삶의 기쁨을 미리 맛보도록 경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뛰어난 존재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고전 2:9] 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이런 하늘의 축복을 실제로 충만히 즐기기에 전에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즐기고 실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맛보아야 할 모습이다. 그리스도인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자들을 위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 땅에서 하늘의 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영국의 정치가 존 바우링 경은 “행복한 가족은 하늘을 미리 맛보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 가정의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축복들 중 하나는 행복의 축복이다. 선한 가족들의 생애는 행복의 큰 근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작가들에 의해 인식되고 확증되어 왔다.

A. 에드워드 뉴턴은 기록하기를 “만일 이 세상이 진정

한 행복을 준다면 그것은 해마다 사랑과 신뢰가 증가하는 가정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괴테는 말했다. “자기 가정에서 평안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가 왕이거나 농민이거나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는 속세를 버린 은둔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자들 이라고 기록했다 [시 128:1-3].

약속된 축복을 즐기기에 위하여 한 가정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나와 내 가족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는 충만한 의미에서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아 왔다. 이런 사람은 속임을 당하고 있으며 소망도 없이 그와 그에 속한 사람이 멸망의 길에 있음을 보았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말 4:1, 3].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 [딤후 1:16] 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반쯤만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속임을 받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한 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엿새 동안은 죄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만큼 더 큰 속임은 없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일 2:15, 16] 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자로부터 온다.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 4:8, 9] 고 시험했지만 이것은 심각한 속임수였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통해 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않을 것인가?

주께서 시편 128편에 약속하신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가정이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요구되며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늘의 원칙의 고귀한 씨앗이 짝이 트고 번성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서 가정에서 부모들과 가족들에 의해 재배하는 경우, 그런 가정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온실과 같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족의 구성원들 각 사람이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감화력을 경험하도록 모든 가정을 이끌 것이다. 각각의 부모와 자녀들은 위엄과 자비심을 갖고 공정하게 대우할 것이다. 모든 가족의 복지는 각 가족의 끊임없는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족을 잃고 죄와 사단에

의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배우며 그들을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로서 “가족”처럼 대우할 것이다. 세상은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시인할 것이다.

### 자녀들에 의한 감화력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직후에 러시아어 지도자들이 소위 자본주의를 제거하면서, 가족과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시도를 했다. … 결혼제도 대신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 년이나 일개월이나 한 주일 혹은 한 밤 동안, 일정기간 함께 살도록 사회적인 계약을 맺게 하였다. …

이혼은 자주 원하는 대로 하게 했다. 몇 년 후 노숙자의 무리가 생겨 자녀들은 심지어 소련에 위협이 되었다. 수백만의 사람들, 특히 처녀들이 멸망을 당했다. 일부다처와 남편이 많은 여성 사이에 증오와 시기가 증가하고 정신 신경증 환자들이 속출했다. 공장에서의 일이 감소되고 이런 상태는 정치권의 변화를 강요했다. 국가는 순결과 결혼의 신성함과 법을 높이고 시민의 대다수를 위해 이혼할 수 없도록 1944년에 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상황을 개선하는 듯 보였다.”

가정을 신성한 제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무신론 사회는 가정을 폐지하는 것이 사회에 재난을 가져오고 가정의 회복은 사회의 존립과 국가의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더 크고 높은 단계에 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만 참으로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최고로 다스리시는 가정으로부터 만이 하늘의 원칙이 실증되며 축복 받을 수 있고 행복한 추억을 회상하고 선약간에 명백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범을 통하여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거나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나 혹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여권을 확보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돕고 있음을 명심하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신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가정에서의 그리스도교의 부재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자.

영국 신학자 헨리 엘포드는 자신의 교육 경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썼다: “우리의 국내 생활, 지금 시작하는 우리의 가정생활에 나는 많은 기쁨과 기대를 갖고 있다. 그것은 서로의 유익과 사랑과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보내야 한다. 우리의 친애하는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생각과 느낌에 선한 특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할 시대에 와 있다. 이것들을 훼손시키지 말라. …

성급한 기질과 거친 말을 삼가도록 나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 사랑으로 대하고 냉담한 태도를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도록 기도하자!” 여기에 엘 포드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 가족에 속한 축복을 드러낸다.

스위스의 교육 개혁자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분위기를 찬양하며 이 힘든 작업의 가치에 기본을 둔 교육방식을 세웠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은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기쁨]이며, 이런 자녀의 부모의 기쁨은 인류의 가장 거룩한 기쁨이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순수하고 선하고 그들 하늘 아버지를 높이도록 마음을 만들어 준다.”

대조적으로, 매우 다른 예를 생각해 보자. 다른 큰 도시인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에는 집이 없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구걸과 도둑질, 초기 매춘이 그들의 생존수단이다. 어느 날 경찰이 어린 소년을 붙잡아 청소년 회관에 데려 갔다. “네 이름은 무엇인가?” “조입니다.” 일상적인 질문이 계속되었으며 그 경찰관은 필쩍 뛰었다. “너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창녀입니다.” “그러면 너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악마입니다.” “너는 어디서 살고 있는가?”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더 많은 질문을 하기전까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평소 말다툼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당신은 창녀야”하고 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당신은 악마야”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칠고 폭력적인 언어의 흐름에 붙잡히고 결국 그들은 한가지 점에 동의할 것이었다. “이곳은 지옥이다.” 큰 저주가 되었던 이 더러운 환경에서 자라난 소년은 그 독특한 마음을 이런 환경에서 계발하게 되었다. 이것은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감화력의 부재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런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자녀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덴마크의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작가는 말한다: “우리의 범죄자들 80 퍼센트는 동정심이 없는 가정들로부터 왔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동정과 선의로 우리 가정들을 채우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할 때 없게 될 것이다.

뉴욕 소년클럽의 전 이사인 앨버트 B. 하인즈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진정한 종교 교육이 없었던 사람들과 소년들에 의해 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학자인 사무엘 스마일은 5대에 걸쳐 그 자손에게 미치는 유전적 결과를 연구했다. 한 사람은 주크스라고 불리우는 선원으로서 이 사람은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음탕한 사람이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냉철하고 품위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주크스는 딸이 다섯인데 결혼은 했지만 수년내에 창녀들이 되었다. 주크스는 5대에 걸쳐 1,200명의 자손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450명



은 매독에 걸려 있었고 300명은 전문적인 거지들이었으며 130명은 도적들이었고 300명의 대학 학위 소지자와 100명의 변호사, 80명의 국가 공무원, 60명의 의사들과 60명의 작가들, 30명의 치안관사, 3명의 상원의원들이 있었고 기타 은행가와 사업가들이 있었다. 이러한 통계의 빛에서 볼 때 인간은 가정의 감화력의 산물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미국 인디애나 주의 발파라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에게는 다섯 자녀들이 남겨졌다. 맏 아들은 반항적이 되었고, 나는 그와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거짓말과 도둑질, 그리고 내가 소년원 [불량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곳]에 그를 넣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나의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한 꿈을 꾸었다. 나는 거실 테이블에 아름다운 장식으로 성경 책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나는 아이들과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집 아이들은 새끼 고양이 같은 부드러움으로 내 주위에 모여들게 되었고 나의 큰 아들은 성경을 읽은지 2-3일 후에 그의 팔을 내 목에 걸고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윗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 119:130]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성경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킨다.

### 사회에 미치는 감화력

사회에 미치는 가정의 감화력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정 사실이다. “오늘날의 청년들과 어린이들에 의하여 사회의 장래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어떠한지 하는 것은 가정에 의존될 것이다. ...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생애의 기초를 놓아 줄 수 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힘과 생애의 어려움을 대항하여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추어 집에서 내어보낼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 속에 목적 의식을 넣어 주고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만들 능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다. 그들은 자녀들의 발이 햇빛과 어두움을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하늘로 향하도록 똑바른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 간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교훈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

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은 예시는 이 세상에서 선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감화이다. 젊은 이들이 이러한 가정에서 나갈 때, 그들이 배운 교훈이 알려지게 된다. 보다 고상한 생활 원칙이 다른 가정에 소개되고, 향상시키는 감화력이 지역사회에 전해진다.” -치료봉사, 351, 352.


다음의 인용문은 윌스트리트 저널에서 발췌한 것이다.

“미국이, 철도의 연장이나 서부 관개, 혹은 낮은 관세나 더 큰 밀(곡물) 생산, 상선 그리고 새로운 해군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은 경건의 부흥이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것과 같은, 조식 전에 드리는 가족 기도를 위해서 하던 일을 접는 것까지도 좋게 여기게 했던 경건, 한창 수확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 30분 먼저 일을 끝내고 하던 일을 정리한 후기도 회로 모이게 했고, 목회자의 월급을 위해서 돈을 차용하기까지 하고, 이러한 비능률적인 삶을 조롱하는 부자들을 위해 은밀히 열렬한 기도를 드리게 했던 경건이다. 이것이 이 나라의 심각하고 저열한 부정과 탐욕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지금 필요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쓴 글이다: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앉아 성경을 읽는 가족들의 사진은 아름다움을 주는 감동의 장면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품성을 형성하면서 선한 길을 비추고 봉사의 감동적인 행동을 밝히 비춘다. 종교는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측면에 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세계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활동가인 제인 애덤스는 미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한다: “미국의 장래는 가정과 학교에 의해 결정된다. 자녀는 가르침을 받는 대로 성장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유명한 영국 초상화 화가인 윌리엄 에이크 맨은 말했다: “문명은 가족에 따라 달라지고 가족은 문명에 따라 달라진다. 최고의 가장 온전한 깨우침은 계몽된 기독교가 우세한 곳에서 발견된다.”

모든 시민 정부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하는 것은 부패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는 힘있는 감화력을 가진 질서 정연하고 잘 정돈된 가정이다. 주의 주(主)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세상의 소금이다. 



# 새천년에 그리스도를 섬김

피터. D. 라우세빅

유년 시절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업이 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나 교회 활동에 관여할 생각을 결코 갖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 교회 활동에 어떤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꿈은 아마도 소방관들이 소방 복장을 하고 소방차 뒤에 타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긴장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교사들에게서 감동함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의 기억으로는 어느 장소이든 공적 설교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 사상이 결코 내게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 후에 우리가 금전적인 수익에 각성하면 적어도 사회의 중산층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아주 좋은 소득을 산출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애를 바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계획이나 목표, 교제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인식과 방향의 이런 변화는 분명히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7].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의 첫째와 우리의 최선과 우리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서 영접할 수 있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적인 구주로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행 2:36].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그분은 또한 나의 주가 되신다. “주” [(主) Lord]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정할 권세를 가진 자” (스트롱 사전, #2962)를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먼 장래의 어떤 날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생각에 매료될 수 있지만, 우리 각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예수를 수락할지 여부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고 공언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생애의 주로서 실제적으로 영접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보여준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그것은 오직 나의 구주께서 나의 주님이 되실 때만이 나의 생애에서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며, 영혼의 굶주림에서부터 만족할 수 있게 된다.

## 삶의 목적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 주와 구주로서 우리 주님을 섬기도록 서약했는데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대들은 과거 1세기의 매우 열렬한 박해자의 경험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행 9:1] 팔레스타인 전역을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마지막 행선지로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 꺾박하고 있었던 바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갑작스런 만남은 아니었다. 이 사건으로 사실상 바울은 최고의 박해자로서 스테반의 대담하고도 놀라운 증언으로 말미암아 심어진 씨앗의 결과로서 그 후에 그는 그의 구주와 주로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의 생애로 우리는 이것이 위기에 처한 인간으로서 평범한 굴복은 아니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의 회심을 가져온 것은 그의 깊은 신념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바울은 예수께서 그의 주이심을 즉시 이해했다.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행 9:6; 킹 제임스 역]. 한 영혼이 예수께 굴복하면 그 굴복의 결과가 속히 나타난다는 것을 이보다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없다. 바울은 그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더 이상 자유로운 중으로서 행하지 못함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참으로 그의 주님의 중

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종이 되었다. 종이란 무엇인가? 마 24:45, 46에서 “중”이란 희랍어로 “노예” 즉 주인의 명령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조로서 영접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대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생애 속에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대한 온전한 결심과 섬김의 생애이다.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기적 동기로써 구하는 행복은 발작적인 것이요 변하기 쉬운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니,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심령은 쓸쓸함과 섭섭함으로 차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정한 길로 걸어가고 방임되지 아니하였다. 또 그리스도인은 공연한 후회와 실망 가운데 버린 바 되지도 아니하였다.” -정로의 계단, 124.

그대는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가?

###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교는 사람의 생애에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며 심지어 현대진리를 갖고 있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의 경험을 결코 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1]. 사람은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사는 것만이 이런 기쁨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다 [벧후 1:8]. 이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조차도 묘사할 수 없는 용어이나 이것은 영혼의 깊은 속에서 경험이 될 것이다. 바울은 설명한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후 7:4].

왜 신자들이라고 공언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 생애 속에서 이런 빛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재미있는 일을 통해 세상의 관광명소에서, 의복과 값비싼 집이나 가구를 통하여, 또한 자동차나 금지된 교제를 통하여 행복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은 생애 속에서 그들의 목적의 성취가 주는 만족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목적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사명을 마 28:19, 20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생명을 맞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의 자연적인 반응이다. 우리가 새로 태어남의 경험을 하는 순간 우리의 계획과 목표는 방향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

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시대의 소망, 195. 자연적으로 우리는 선교사들이 된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의 권리로써 선교사가 된다. 실제적으로 그들 생애 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모두가 선교사들이며 예수님이 안 계신 각 사람은 개척지가 된다.

개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구원의 계획을 통한 기쁨과 다른 사람과 진리를 공유하는 기쁨의 자연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써 우리가 가능한 한 최고의 표준에 달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각 기능을 최대한 완전하게 개발해야 한다.” -실물교훈, 330.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수성을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 주님을 위한 일꾼들로서 우리의 책임을 성취하는데 있다. 이것이 어떤 일에든 학교에서 최선이 아닌 것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이다. 여기서 최선이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행하는 방법은 물론 성적에서 알려지는 것처럼 생애와 학과 양면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으로 비교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결정은 우리 매일의 생애의 활동을 통해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준비하게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연결하지 않고 의무를 적당히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울이 그의 개심으로 회당이나 교회들에서 보다 오히려 가정들에서 집회를 갖는 신자들의 모임이 되도록 이끌었다.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할 일을 말해 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더라.” [행 9:6; 킹 제임스 역].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당신이 교회를 가지고 계신 곳에서 당신의 조직되고 인정된 교회를 떠나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경험과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인정된 자들과는 독자적으로, 그들 홀로 그들의 빛과 경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분께서 우리를 지시하기 위하여 베푸신 그분의 가르침과 모본과 사실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정죄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하고자 한 사람, 그분의 선한 그릇이 될 사람,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그에게 진리의 교훈들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질문하자, 주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켜주셨다.” -사도바울의 생



에, 31.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그 유익을 모든 세속적인 고려의 대상보다 위에 놓겠다고 엄숙한 서약을 한다.” -교회증언 5권, 460. 만일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도록 교회를 붙들고 있게 되며 예수님의 재림을 본질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 누구인가, 나인가?

예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세주의 명령은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위탁되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저희 동료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임명되었다. 교회는 바로 이 사업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며 교인이 되기 위한 신성한 서약을 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기로 서약한 것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466. 이것이 “그리고 회심을 통하여 대열에 가담하는 모든 자는 그의 의무의 자리를 할당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이 전쟁에서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의무이든지 즐겨 감수해야 한다. 교인들이 기별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을 할 때, 그들은 주님의 기쁨 안에서 살게 되고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승리는 언제나 단호한 노력의 결과이다.” -교회증언 7권, 30. 봉사의 생애는 그리스도교가 가져다주도록 의도된 기쁨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비록 모든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기대되고 있으나 우리 구주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치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청년들의 헌신과 힘을 우리 앞에 있는 이 과업을 성취하도록 요구된다 [요일 2:14]. 이것이 저들 생애를 일찍 주님께 그들의 마음을 바치라고 초청하시는 이유이다.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이다” [잠 23:26].

비록 모든 사람이 그들의 생애를 주께 드리도록 초청을

받게 되나 청년들은 그들의 남은 생애를 드리는 어떤 사람보다 그들의 전 생애를 온전히 바쳐 더욱 많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젊은이의 마음은 귀한 재물이며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다. 그대들의 모든 인격과 소유한 모든 능력은, 거룩한 헌물로 다시금 하나님께 즐겨 되돌려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성한 위탁물이 되는 이유이다.” -청년들에게 보내는 기별, 407.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들의 남은 생애를 바쳐서 그토록 많은 일들을 돕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보다 특히 청년들이 이 특별한 사업에 호응하도록 초청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섬기도록 자금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올바로 훈련된 우리 청년들로 이루어진 일꾼의 군대가 준비된다면 십자가에 못박히고 부활하셔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구세주에 대한 기별이 얼마나 신속히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인가! 얼마나 빨리 고통과 슬픔과 죄악의 끝인 세상의 종말이 이를 것인가!” -교육, 271.

### 봉사를 위한 훈련

활동과 봉사는 같은 일이지만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우리는 봉사 활동에 어떻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가? 유익한 훈련을 받은 경험을 가진 자가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이것이 첫째는 부모를 위해, 그 다음은 국가를 위해, 이스라엘에서 훈련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게 한 법칙이 된 이유이다 [신 6:6, 7 참조]. 우리 자신이 진리를 경험한 후에 다음 세대들이 연장자들의 경험으로부터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까닭을 공유해야 한다. “내가 주의 증거를 목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 [시 119:99, 100].

“사무엘은 보편화된 부패에 대한 방벽이 되고 청년들의 도덕적 영적 복리를 도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고문으로 봉사할 자격 있는 사람들을 배출시킴으로 장래의 민족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 -부조와 선지자, 593.

다른 직업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훈련하는 일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교육과 훈련은 실생애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준비로 알거든 하물며 세상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완전한 준비가 없어서 되겠는가? 그러나 이 훈련은 다만 설교를 들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짐을 져야 한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538. 이것은 단순



한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에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도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병든 이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할 책임을 생각하므로 우리의 훈련 기관들이 선지자들 학교들처럼 더욱 필요함을 느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셋째천사의 기별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상학교에서 인정을 얻기 위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모세가 행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학교에 가서 다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준비가 아니다.

### 누가 학교에 다닐 것인가?


교회에 연합한 각 사람은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 기별을 전할 의무가 있으나 각 교인이 이 훈련을 필요하다고 결론짓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장래의 직업이 무엇이 되든 각 사람이 선교학교들에 다녀야 할 이유이다.

“혹자는 ‘왜’라고 말한다. 즉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것처럼 철저하게 훈련이 필요되는 다른 직업을 택하기로 결심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젊은이들 모두가 것처럼 철저하게 훈련받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소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모든 요구에 응해 주지 않겠는가?”

아니다, 나는 결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의 학교에서 교육받을 축복과 특권을 얻도록 허용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되기 위한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6권, 197.

하나님의 사업에 공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 각 사람은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예수

님을 위한 증인이 될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모든 사람은 그토록 가장 유력하게 일할 훈련이 요구된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촉진할 수 있다. “이 지상의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구성된 남녀들이 그 사업에 함께 동원되어 그들의 노력을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로 더불어 연합시키기 전에는 결코 마쳐질 수 없다.” -교회증언 9권,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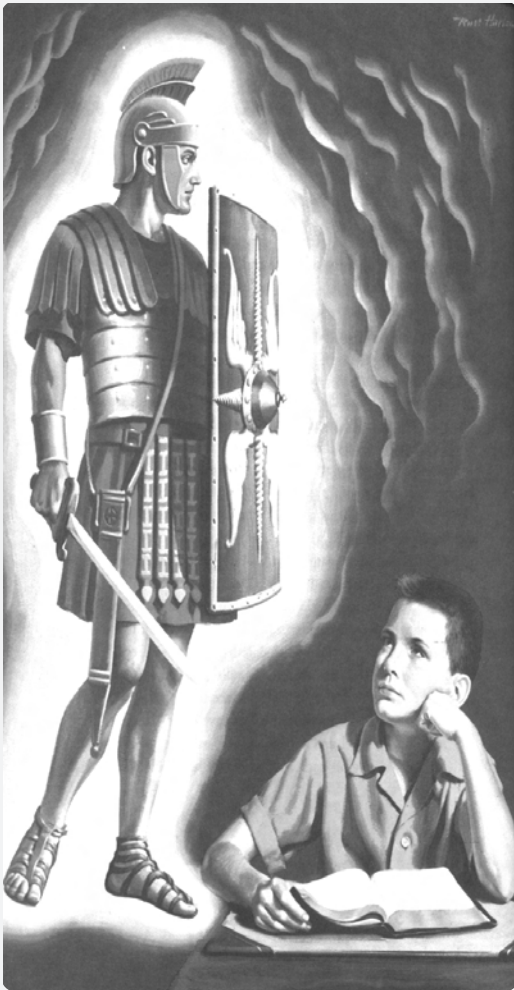
내가 태어난 세르비아의 본자카 반자에 정말 높은 점프대를 가진 올림픽 경기 규모의 수영장이 있다. 어느 날 우리가 그 주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플랫폼에서 뛰어 내렸다. 나는 상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젊은 마음에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경험의 결과로, 나는 건설 현장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층 지붕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내 아래에 물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어떤 종류의 공포증을 느낄 것이다. 한번은 우리가 한 사람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타이머에 있었다. 나는 점프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다른 사람은 레일을 붙잡고 그 다음에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 손으로 레일을 붙잡고 용기를 갖고 마지막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여전히 레일을 붙잡고 있으면서 뛰어 내리지 않았다. 몇 번 시도한 후에 나는 결국 두려운 점프를 했다. 강 밑의 다리에서 점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봉사의 영역으로 점프할 때 우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고 약속하신 구주를 모시고 있다. 그대는 우리 주께 봉사하기 위해 그대의 생애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이 경우는 나이 어린 청년이 연장자로부터 배운 것을 순종하는 것과 또한 성실하고 더 나이 많은 교사가 연장자로서 그의 지식을 더 젊은 세대들에게 나누어주는 것과 비교하고 있음



2015년 기도력

## 투쟁과 용기



엘렌 G. 화잇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 10:41, 42.

천사는 요한이 나기 전에 사가라에게 선언할 때에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눅 1:15)리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다. ...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요한이, 산헤드린이 파견한 사자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약속하신 분으로서 가리켰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 그리스도의 봉사를 보고 느낀 그의 이기심 없는 기쁨은 일찍이 사람이 나타낸 것 중에서 가장 숭고한 형태의 기쁨을 보여 준다. ...

엘리아처럼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거나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휘두른다는가 하는 능력이 요한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구주의 초림을 전파하며 그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촉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그는 그토록 그의 사명을 신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그가 그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던 교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주님의 제자 된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증거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를 연결시키는 고리였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교의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섰었다. 그는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다. 요한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것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빛도 예수의 교훈과 모본에서 비춰나오는 것만큼 타락한 인류에게 그렇게 명백히 비춰주었거나 비추일 빛은 없다. ...

요한이 그의 사명 가운데서 발견하였던 기쁨을 빼다면 그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다. 그의 음성은 광야 이외의 곳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생활은 고독하였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보다 큰 빛에 따르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을 목격하는 것은 그의 특권이 아니었다.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앓는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비친 빛이 예언의 약속 위에 영광을 발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으신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던 가장 작은 제자라도 이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욱 훌륭한 특권을 받은 것이므로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 시대의 소망, 219, 220.



## “와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 1:45.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렀다.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지적할 때에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보자 실망하였다.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요한의 기별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다면 그는 결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함에 의해서였다. 오늘날 선입견을 가지고 선으로부터 물러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만일 그들이 “와 보”면 그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의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 에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하였다. 빌립은 부름을 받아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실례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

애정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봉사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이웃의 남녀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였더라면 구원받았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전도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 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 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 ...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시므로 그 제자들이 사람들을 가운데서 그의 대표자로 선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지어진 언행 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139~142.

##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 1:47.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구세주를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세계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외모를 보고 실망하였다. 고생과 궁핍의 흔적을 가진 저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노동자였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셨다. 나다나엘은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듯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성품의 소유자였는지에 대하여 결정적인 견해를 굳히지 않았다. 그는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사실상 그분이 메시아였는지 하나님께 물어 보았다. 그가 아직 그곳에 있을 때에 빌립이 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사렛”이란 말이 또다시 그의 불신을 자극시켰으며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 그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빌립은 그의 편견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빌립은 단순하게 “와 보라”고 하였다. ...

우리들 역시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서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해야 옳을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내려다보신 것처럼 우리들을 내려다보실 것이 아닌가? 나다나엘은 주님을 믿게 되었으며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부르짖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414, 415.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의혹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입견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나다나엘은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이제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믿음은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한 자의 믿음을 능가했다. -시대의 소망, 140.

그의 불신은 사라졌고, 든든하고, 힘차고, 지속적인 믿음이 그의 영혼을 차지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의 신뢰하는 믿음을 칭찬하셨다.

나다나엘의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기별과, 또 이를 믿는 자들과 접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들의 불신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반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심지어 영혼들이 하늘에서 온 진리에서 돌아선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널리 반포하여 정직한 영혼들이 듣고, 보고, 스스로 깨닫게 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의 사업은 빌립이 했던 것처럼 “와 보라”고 외치는 것이다. 우리는 감추고 싶은 교리가 없다. -교회증언 6권, 37, 38.

##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좃으니라” 막 1:17, 18.

그들은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만 세상의 빛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앉히시려고 부르신 그 지위에 합당하게 할 수 있으셨다. 구주께서는 교육을 멸시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그 사업에 헌신할 때에 지적 교양은 축복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시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완고하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는 것을 비웃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 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당시의 유전과 그릇된 관습들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겸손하고 온순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평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만일 부름을 받아 활동한다면 그들을 세상의 가장 존귀한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일과를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잠재 능력들을 일깨워 주는 데는 솜씨 있는 접촉이 요구된다. 예수께서 당신의 동역자가 되도록 부르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기와 친히 사귄 유리한 지위에 두셨다. 세상의 어떤 위인도 이런 스승을 모신 적은 없었다. 제자들이 구주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고 나올 때에는 그들은 더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의 마음과 품성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시대의 소망, 249, 250.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사 하늘의 교훈을 받게 하신다. -시대의 소망, 297.

## “나를 좃으라”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좃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좃으니라” 눅 5:27, 28.

팔레스타인에 있던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은 자는 없었다. 외세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독립이 떠나갔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을 계속적으로 자극하였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박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치부하는 착취자였다.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 이 직책을 맡은 유대인은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로 여겨졌다. 그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레위 마태는 이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게네사렛에서 부름을 입은 네 제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 있는 것을 아셨다.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악 됨을 드러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랍비들의 배척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이 크신 교사께서 자기를 주목해 보시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세리 마태는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 자기를 향하여 “나를 좃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매우 놀랐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좃으라”였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족하였다.

이전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 역시 그러하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다. 이 제자 중의 어떤 이들에게는 생계를 그들에게 의존하는 친구가 있었으나 구주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 머뭇거리거나 내가 어떻게 생활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할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들은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예수께서 후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들은 “없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눅 22:35).

부유하던 마태에게나 가난하던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똑같은 시험이 이르렀으며, 똑같은 헌신이 각 사람에게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고 옛 생애에 대한 충동이 가장 강하던 성공의 순간에 예수께서는 바다에서 일하던 제자들에게 복음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셨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다. -시대의 소망, 272, 273.

## 세리도 제외되지 않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 6:6.

마태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큰 분노를 일으켰다. 한 종교적 교사가 직접 수종하는 자로서 세리를 택한다는 것은 종교적·사회적 및 민족적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였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편견에 호소함으로써 여론의 흐름이 예수를 반대하기를 원하였다.

세리들 간에는 광범위한 관심이 일어났다. 그들의 마음은 하늘의 교사에게로 이끌렸다. 마태는 새로운 제자가 된 기쁨에 이전의 친구들을 예수께 데려오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친척과 친구들을 함께 불렀다. 세리들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평판을 받고, 보다 철두철미한 그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던 많은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잔치는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배설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이 호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이 호의를 받으시는 것이 바리새파를 성나게 하리라는 것과 또한 이 행위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성을 저락시키는 일이 될 것을 잘 아셨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문제도 예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예수에게는 외형적인 차별은 가치가 없었다. 예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예수께서는 세리들의 식탁에 귀빈으로 앉으시고 당신의 동정심과 사교적인 친절한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이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갈급한 심령에 예수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임하였다. 새로운 충동이 일깨워지고 새 생애에 대한 가능성이 사회의 버림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

랍비들은 마태의 집에서 베풀 잔치에 예수께서 참석하신 것을 알자 예수를 비난할 기회를 포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기로 택하였다. …

질투심이 많은 랍비들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고 물었다. …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 비난에 답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친히 대답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 건강하므로 의사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세리들과 이방인들은 영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간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의사로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시는 것은 그가 하실 일이 아니었던가? -시대의 소망, 273~275.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 이 행위로써 그는 세리나 죄인까지라도 그분에게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셨다. -영문시조, 1898. 6. 23.

## 자칭해서 된 제자 유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요 6:64.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이려고 힘썼다. 그는 가롯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제자들의 이 핵심적인 모임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배척도 환영도 않으시고 다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19, 20)는 슬픈 말씀을 하실 뿐이었다.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었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반열에 김으로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난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희망을 끊어버리실 계획이셨다. …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었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반열에 김으로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

제자들은 유다가 그들의 동료가 되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당당한 풍채의 소유자로서 예리한 식별력과 행정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제자들은 당신의 사업에서 크게 조력할 자로서 유다를 예수에게 추천하였다. … 유다의 후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생각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줄 것이었다. …

그러나 유다가 제자들과 합류했을 때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영혼들을 구주께 이끄는 신령한 능력의 감화를 느꼈다. … 구주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 보셨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정되지 않는다면 유다가 빠져 들어갈 죄악의 깊이를 아셨다. 예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당신과 연결을 갖게 함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발로에 접촉할 수 있는 처지에 있게 하셨다.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 문을 열었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어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품성면에 인간적 요소가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예수에게서 배운다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똑같은 귀중한 교훈을 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진리의 실천은 그의 욕망과 목적과는 반대되었으므로 유다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 293~295.



## 변명의 여지가 없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씨 자기를 췌렸도다” 딤후전 6:10.

구주께서는 장차 당신을 팔 자를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던가! 예수께서는 가르치는 중에 탐심을 뿌리째 없애시기를 피하시고 자선의 원칙을 역설하셨다. 예수께서는 흉악한 탐욕의 특성을 유다 앞에 내보이셨다. 유다는 자기의 품성이 묘사되고 죄가 지적된 것을 여러 번 인식하였으나 불의를 자복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는 자부심이 강하였으며 유혹에 대항하는 대신에 부정행위를 계속 따랐다. … 그러나 교훈에 교훈이 주어졌지만 유다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탐심을 날카로운 책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인내로 이 과실을 범하는 사람을 참으시는 한편 유다의 마음을 펼쳐 놓은 책을 읽듯이 읽는다는 증거를 그에게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자극을 유다에게 주셨으므로 그는 하늘의 빛을 거절한데 대해 핑계하지 못할 것이었다.

유다는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에 결함을 그대로 지니기로 선택하였다. 악한 욕망, 복수심, 어둡고 음산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나 마침내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원수의 대리자가 되었다.

유다가 처음에 예수와 사귀었을 때에는 교회에 축복이 될 수 있었던 품성의 몇 가지 특성을 가졌었다. …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점이 지적당할 때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자신을 불합당하게 했다. -시대의 소망, 295.

사단은 모든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한다. 그는 실제적 동정이 마음의 순결과 이타심의 시금석임을 알고 있다. 그는 남들의 필요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닫게 하여 고통을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도록 온갖 애를 쓰고 있다. 그는 사랑과 동정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많은 장애물을 놓을 것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유다를 망가뜨렸다. 유다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다. 이 면에 있어서 그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 우리는 유다와 같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다. 유다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동정심이 없다면 우리는 유다가 그리스도밖에 있으므로 사단의 유혹의 노리개가 된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의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는 즉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지 않는 태만은 다른 것, 또 다른 것을 위해 문을 열어 급기야는 마음의 원수의 원칙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기심이 함양되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아무 다른 것이 굴복시킬 수 없는, 마구 삼키는 정욕이 된다. -교회증언 6권 264, 265.

## 분쟁의 씨를 뿌리는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 20:26, 27.

유다로 말미암아 반항적 요소가 제자들 사이에 들어왔다. 그는 예수님과 관계를 갖게 된 이후로 그분의 품성과 생애에 마음이 이끌렸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진심으로 바랐으며,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이런 경험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 소망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주도하지는 못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그가 기대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얻을 이기적인 은전에 대한 희망이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닌 하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주권에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 속에 자기의 판단과 의견, 그리고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경향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행동과 동기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의혹과 불만을 품었다. 그런데, 그의 의혹과 야심은 은연 중에 제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제자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불만을 갖게 된 대부분의 원인은 유다에게 있었다. -교육, 91.

그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반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논법을 되풀이하면서 논쟁을 끌어들이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유다는 복음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표면상의 장애물들은 복음의 진실성에 불리한 증거라고 해석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경절을 소개하고자 했다.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성경절들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계속해서 그들에게 밀려오는 낙담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성실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갔다. 제자들이 크신 교사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는 반면에 유다는 그들이 거의 알지 못하게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려 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매우 종교적이고 표면상으로는 현명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빛과는 전혀 다른 견지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주님의 말씀에 없는 다른 의미를 첨가하고 있었다. …

그러나 유다는 구주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때까지만 해도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구주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유다는 자기의 탐욕적인 기질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하는 듯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려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를 지배하게 했다. 이것은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람들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시대의 소망, 719, 720.

##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막 3:14.

이 최초의 제자들은 피차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교사가 될 운명에 있었으나 서로 다른 성격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는 로마에 협조하여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은 세리 레위 마태, 로마 제국의 권위에 강하게 반발한 열심 당원 시몬, 충동적이며 자부심이 강하고 온정적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교양과 재능은 있었지만 비열한 정신을 가졌던 유대 사람 가롯 유다, 충실하고 열성적이었으나 더디 믿은 빌립과 도마, 같이 뿔뿔히 형제 중에 과히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결점과 미덕이 모두 확실히 나타난 유력자 야고보와 유다, 아기처럼 순진하고 신뢰심을 가진 나다나엘, 대망과 애정을 가진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 제자들은 원래의 성격과 교육 정도, 그리고 생활 습관이 서로 전혀 달랐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일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감정과 사상과 행동이 서로 일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 그들을 위한 그분의 고심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 17:21).

열 두 제자 중에서 네 사람이 각각 독자적인 입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이에 맞도록 그들을 교육하셨다. 겹에 의해 급사할 운명의 야고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주를 따라다니며 일하고 박해를 받은 요한, 여러 세대에 걸쳐 장애가 되어 온 것들을 타파하고 이교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할 선구자 베드로, 형제들보다 더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유다, 이 네 사람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관심의 목표가 되었으며 그분에게서 매우 자주 주의 깊은 교훈을 받은 자들이었다. -교육, 85, 86.

우리 주의 사도들 중에서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 오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노력의 성공은 오로지 하나님 때문임이 명백했다. 이런 사람들의 생애, 그들이 계발시킨 품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위대한 사업 등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 지에 대한 증언이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서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 주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250.

##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 4:7.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큰 결함을 가졌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멸시하면 그들은 분노하여 도전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감화에 마음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견책하시고 또한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으나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택하였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당신의 생애의 교훈을 배우기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서로 매우 상이하였다. 그 가운데는 세리였던 레위 마태, 맹렬한 열심 당원(셀롯)이며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후천적 경향을 지닌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했다. ...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대표자로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인간, 곧 그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

그들은 친히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그 길이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견져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믿음이 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혼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 대신 와서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동여매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시대의 소망, 295~297.

## 의심과 질문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 14:27.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명령에 그토록 쉽게 굴복한 자신들을 꾸짖었다. ...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희가 예수께서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만큼 높임을 받는 것을 보기를 몹시 원하였다.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선생과 함께 있으면서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그들은 과연 항상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결코 왕으로서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실 것인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심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더 수월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는 침례 요한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지 않으셨던가?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께서 과연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제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기이하신 행적을 목도하였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이 그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어야 했다. 만일 그들이 마음에 가득한 일들에 대하여 피차에 이야기하였더라면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에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하였으나 그들은 그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다. 각 사람은 모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 ... 밤 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다. 그러나 지쳐버린 지금,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노젓기를 단념하고 말았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저들은 선생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한 줄기의 빛이 물 위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한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 그들의 사랑하는 주께서는 돌아서시고 그의 음성이 저희의 공포를 가라앉혔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시대의 소망, 380, 381.

## 은밀한 회견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딤후 3:5.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의 영예로운 의원이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의 교훈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부자요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초라한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다. ...

그는 예수와 면담하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를 공공연히 찾는 것을 꺼려하였다. ... 그는 도시가 잠이 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를 찾아갔다. ...

그는 말하였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 그는 그 말로 확신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가 자기의 말을 신임하도록 계획했던 것이었지만, 사실 그 말은 불신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개 교사로 인정하였다. ...

예수께서는 이 인사의 말을 인정하는 대신에 마치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자기 앞에서 있는 자가 진리의 탐구자임을 아셨다. ... 예수께서는 이 방문의 목적을 아시고 듣고 있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잡은 확신을 더욱 깊게 하시고자 엄숙하게, 그러면서도 친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요점을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

니고데모는 침례 요한이 회개와 침례에 대하여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는 분을 가리키는 말을 들었다. ... 그러나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감찰하는 기별도 그에게 죄를 자각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의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 깨끗하여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거듭남에 대한 비유는 니고데모에게도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다. 이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은 흔히 방금 태어난 자녀들로 비유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차려야 했다. 그러나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이다. 그는 그 비유의 말이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직한 욕망과 싸웠다. -시대의 소망, 167~171.



##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니고데모는 이 말에 깜짝 놀라 분개하였다. 그는 자신이 지성인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종교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 그는 이 증생의 교리와 그가 알고 있는 종교의 개념과를 조화시킬 수가 없었다. 그는 회심의 이치를 만족할 만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정밀한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비유로써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그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작용은 분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그는 회심의 과정은 결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결과만은 알아볼 수 있었다. ... 아무리 박식한 학자가 안출한 어떤 인간의 이론으로도 인간의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생애와 행동에 나타나는 그 결과는 볼 수 있다. ...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진리를 영접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자연계의 사실(바람)만은 용납하였다. 각 시대에 살아온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보다는 형식과 치밀한 의식이 종교에 있어서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리뷰 앤드 헤랄드, 1896. 5. 5.

우리는 혹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생애는 정직하였고 우리의 도덕적 품성은 바르다고 자만하였을는지 모른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보통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비할 필요가 없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애의 모든 행실을 더럽게 한 우리 동기(動機)의 이기적인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적의(敵意)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이 씻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28, 29.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 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 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173.

## 거듭남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요 3:21).

니고데모는 예수와 더불어 토론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왔으나 예수께서 진리의 기초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증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구원하는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셨을 때에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 예수께서는 이 무언의 질문에 대답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다. 예수가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것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외에는 없다. ...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의 교훈을 숙고하였다. 그는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계획을 거둬들여 좌절시켰다. ...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예기하였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 171~176.

## 야곱의 우물에서의 대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

피곤하기 때문에 쉬기 위하여 우물가에 그분께서 앉으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기 위해 나왔다. 그분은 그녀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셨고, 그녀를 통해서 큰 흑암과 오류 속에 빠져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하셨다. 비록 피곤하셨지만, 그분은 당신의 영적인 왕국의 진리들을 제시하셨으며, 그것은 그 이방 여인을 매혹시켜 그리스도께 대한 찬사로 가득 차게 했다. 그녀는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갔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의 증거를 통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녀의 기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왔으며, 그분의 말씀을 인해 믿었다. -교회증언 3권, 217.

그 여자는 예수와 이야기할 때에 그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 그 여자는 수가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달았다. 자기가 이제까지 접촉하여 오던 어떤 것도 자기의 필요를 이와 같이 크게 깨닫게 해 준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붙잡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의 임재하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그는 책망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그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그녀를 거의 압도하였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 두고 다른 사람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동네로 돌아갔다. … 그는 우물에서 나온 용무도 잊어버렸다. 그는 구주의 목마르심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물을 떠 드리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시대의 소망, 189~191.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여자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하였다.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은 장래에 마쳐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 바로 주변에 거두어야 할 영혼의 수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증시로 자기 부락민들에게 전하였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은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시대의 소망, 195.

## 의심에서 믿음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할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 4:48.

그 신하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를 찾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괴로워하는 탄원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 32:26) 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칠 수 없으시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나 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바로 그 시각에 가버나움의 집에서 죽어 가는 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들은 갑작스럽고 신비스러운 변화를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병자의 얼굴에서 거두어졌다. 열던 홍조가 사라지고 건강으로 돌아온 연한 혈색으로 변하였다. 흐리던 눈은 총명으로 빛나고 허약하여 마른 신체도 기운을 되찾았다. 그 아이에게 병의 흔적은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의 불덩어리 같던 몸은 부드럽고 축축하여져서 그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 …

그 고민하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요구를 수락하시는 여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그 신하는 그가 믿기 전에 자기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시대의 소망, 198~200.

머지 않아 사단은 우리 앞에서 것처럼 의심하는 자들의 요구를 따라 그런 종류의 증거를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거짓 확신을 굳게 해주기 위하여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진리의 빛에 대하여 눈을 감으면서 저들을 기만에 빠지게 하는 이적들을 구하는 자들의 상태는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복음전도, 594.

## “나는 합당치 못한 사람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마 8:10.

백부장은 구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몸소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고 말하였다. …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워 주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 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도록 요청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는 그들은 크신 교사되신 예수를 잘 알고 있으므로 예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시대의 소망, 315, 316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백부장 자신이 보낸 기별, 곧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는 기별을 받으신다(눅 7:6).

그렇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간다. 그러자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그 기별을 종결 짓는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눅 7:7; 마 8:8, 9). …

그리스도께서는 “네 믿은 대로 될지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마 8:13).

유대의 장로들은 백부장이 자기들의 민족에게 보여 준 호의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께 추천하였다. 그들은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치료봉사, 63~65.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시대의 소망, 317.

## 하나님께서서는 계급 제도를 미워하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롬 10:12, 13.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님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마 15:22)고 하였다. 이 지방 사람들은 고대 가나안 족속에 속하였다.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므로 유대인들의 경멸과 증오를 받았다. 지금 예수께 나온 여인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다. …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에 즉시로 응답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이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태도로 이 경멸을 받는 민족의 대표자를 응대하셨다. … 그 여인은 더욱 큰 열성으로 자기의 사정을 역설하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부복하여 부르짖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그가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구주께서는 만족히 여기셨다. 그는 자기에 대한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이다. … 예수께서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시각으로부터 그 여인의 딸은 완쾌되었다. 사귀가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

구주의 베니게 방문과 거기에서 행하신 이적에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이 있었다. 괴로워하는 여인만을 위함도 아니요 제자들과 또는 그들의 사업을 받아들인 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교만과 편견이 서로 같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았다. …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중에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 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계급 제도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질의 것은 어떤 것이나 두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시대의 소망, 399~403.



## 그것은 개인적이어야 함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 9:21.

이 말은 한 불쌍한 여자, 곧 12년 동안 그의 생애를 괴롭힌 질병으로 고생한 한 여자의 말이었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의사들과 치료에 써 버렸지만, 다만 고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의 희망은 소생되었다. 그 여자는 “만일 내가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으리만큼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치료봉사, 59.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 그러나 그 여자는 혼잡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그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를 붙들 수도 없었다. ...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군중 가운데서 물러나오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갑자기 말걸음을 멈추셨다. ...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 숨길 수 없음을 알자 그 여자는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렸다. 그 여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고통당한 이야기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부드럽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 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주린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治癒)를 가져올 수 없다. .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시대의 소망, 343~347.

## 내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눅 18:18.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던 젊은 청년은 이런 대답을 들었다. “계명을 지키라.” -고 회증언 4권, 219, 220.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율법속에 나타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과 융화하려면 그분의 율법의 원칙들이 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이다. 주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나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은혜의 언약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니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청년은 “어느 계명이오니이까”라고 물었다. ...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율법을 말씀하셨다. 그는 둘째 돌비에 기록된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셨다. ...

이 청년 관원은 서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말했다. 율법에 대한 이 관원의 개념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다. 사람의 표준에 따라 판단할 때 그는 흠 없는 품성을 보전해 왔다. 그의 외적 생애는 별로 죄가 없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묻게 되었다.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이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그 청년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患部)를 보여 주셨다. 그 청년은 주님께서 더 이상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神)이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 -실물교훈, 391, 392.

## 그는 시험에 낙제함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막 10:21.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생애를 환히 아시고 그의 품성을 살피시는 것처럼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셨다.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으며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자 갈망하셨다. 예수께서는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

구주께서는 청년이 성령의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열렬히 간원하셨으며,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던가! … 그 관원은 재빨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고 슬퍼하게 되었다. …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그의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다. 그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그 때 후로 항상 세상이 그의 경배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

무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호된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택한다. 그들은 젊은 관원처럼 나는 이분을 나의 지도자로 모시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구주로부터 돌아선다. … 하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조건들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사람들은 속고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아니요”라고 말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라. 관원은 “아니요.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도 그와 같이 말하겠는가? …

그 관원의 재산은 그가 충실한 청지기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위탁된 것이었다. 그는 이 소유물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분배해야 할 것이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에게 위임된 선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는 자는 구주와 동역자가 된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의 대표자로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젊은 관원의 경우와 같이 신임 받는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도 큰 희생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처세훈(處世訓)이다. 순종만이 가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주 그것은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제시되고 명령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런것들을 잘라 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시대의 소망, 519~523.

## 그는 사물을 올바르게 만드심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부자인 세무 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의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에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이제 새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는 입술을 열었다. 삭개오는 그의 자복과 회개를 공표할 것이다.

군중들 앞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시대의 소망, 552~555.

별로 이렇다 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더 좋은 방법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릇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눅 19:5)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러한 말이 임할 것이다. 완고한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돌아보신 까닭에 저희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부드럽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극악한 죄와 허물 속에서 나와 일찍이 기회와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 그분의 보좌 다음에 서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236.

## 부자와 하나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역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겔 33:15.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에게서 돌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란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었다. 그들은 서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하며 놀라서 부르짖었었다.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예증을 보았다(막 10:24, 26; 눅 18:27).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그의 죄를 자복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침에 복종하였으며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에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서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뚜렷이 나타낼 것이다. 세리장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그의 성실함을 증거할 것이다. ...

만일 우리가 불의한 상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매매에서 사취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기를 했으면 비록 이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잘못을 자복하고 힘이 미치는 한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가 탈취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했다면 축적되었을 모든 것을 변상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구주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삭개오 자신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식구도 축복을 받았다. ... 그들은 랍비와 예배자들의 멸시를 받고 회당에서 추방당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온 여리고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을 저희 가정으로 모아 거룩한 교사의 주위에 앉게 하여 다 같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서 그를 영접하였다. -시대의 소망, 555, 556.

## 그 여자는 모든 소유를 다 바침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막 12:43.

예수께서는 연보게가 있는 마당에 계셨으며 거기서 저희 예물을 넣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셨다. 많은 부자들이 매우 자랑하는 태도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 예수께서는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으며 그들의 후한 예물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얼마 후에 한 불쌍한 과부가 남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면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빚었다. 부요하고 거만한 자들이 그들의 예물을 넣으려고 옷자락을 질질 끌며 지나가는 것을 보자 그 여자는 감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뒤로 움츠렸다. 그러나 그 여자는 비록 그것이 적을지라도 그가 사랑하는 사업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하였다. 그 여자는 수중에 있는 예물을 보았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예물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었으나 이것은 그의 소유의 전부였다. 자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여자는 급히 두 렵돈을 놓고 빨리 돌아갔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는 중에 그 여자는 자기를 주목하여 열심히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다.

구주께서 제자들을 불러오시고 그들에게 과부의 가난함을 주목하도록 명하셨다. 그 때에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여자의 귀에 들렸다. ... 자기의 행동이 이해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에 그 여자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 ...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다.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임을 믿었으며 성전을 유지하는 데 그의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다. 그 여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고 영원히 그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예물과 함께 바쳐졌다.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 ...

부자들은 그들의 풍부함에서 바쳤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드린 큰 예물은 그들의 안락이나 사치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또 아무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과부의 푼돈과는 그 가치에 있어서 비교될 수가 없었다. ... 과부의 자아 희생의 모본은 각 나라에서 각 시대를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마음에 호소하였으며, 그들의 헌금은 과부의 예물의 가치를 증대시켰다. 과부의 푼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대한 결과들의 근원이 되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진지한 열망으로 모든 예물을 드리고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유익하게 하는 이 결과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 -시대의 소망, 614~616.



## 염려하고 근심함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눅 10:41, 42.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놀라운 교훈을 주실 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때에 음식 준비하는 일로 당황한 마르다가 예수께 나아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다. 구주와 그의 제자들이 여리고로부터 도보로 수고스러운 여행을 한 직후였다.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염려하는 나머지 손님에게 베풀어야 할 예의를 잊어버렸다. 예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버릴 일을 위해서 더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 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 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525.

젊은이들이, 심지어 장년들까지라도 너무도 쉽게 유혹과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명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는 확고하고 결정적인 의지력의 결핍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등한히 한 결과이다. 그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상을 고취시켜 주는 데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게 하지 않을 뿐더러 불순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에서 마음을 분리시키고자 열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거룩한 교사를 알고자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생애에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정신과 심령이 고상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올바르게 분별하기만 하면, 노소를 막론하고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강직한 마음, 곧 힘 있는 원칙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치료봉사, 458.

48 진리의 기둥과 터

## 사랑의 선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막 14:8.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의 제자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다. 시몬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의 하나이었다. 그는 예수를 한 교사로 알았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그의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었다.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 이끌려왔다. 그는 감사를 표하고자 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에 그는 구주와 그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

식탁에서 구주는 시몬과 나사로와 같이 앉으셨는데 한 편에는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앉았고 다른 편에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마리아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예수께서 은혜로써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고 미끈한 머티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의 동작은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진행되었으나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였으므로 마리아의 행위는 마침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유다는 이와 같은 행위를 매우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낭비를 묵인하신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

제자들을 돌아보며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다. ... 식탁 주위에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줄 수 있었도다” 하는 불평이 들었다.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들었다. ... 마리아가 피하려고 할 때에 주의 음성들이 들렸다.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 비난의 수군거림보다 더 옥 높은 음성으로 예수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557~560.

## 향기가 퍼져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막 14:9.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던 향기로운 선물을 그는 산 몸에 부은 것이다. 장사 때에 이 향기는 무덤에만 가득할 뿐이지만 지금 이 향기는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희의 사랑의 선물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차디찬 의식 없는 몸을 위하여 값진 향료를 가져왔다. 향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뒤였기 때문에 저희의 수고가 헛된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의 헌신을 의식하실 때에 구주께 대한 사랑을 쏟으므로 그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두움으로 내려 가실 때에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으시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귀중한 선물들을 죽은 자를 위하여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차디차고 말없는 시체 주위에 둘러서서 거리낌 없이 사랑의 말들을 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감사와 애착 등의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 놓는다. 피로한 심령이 그것들을 매우 필요로 할 때에,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면 그 언행의 향기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되었을까!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비난자들의 말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왜 그가 예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 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신다. …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행동의 의미를 말씀하셨으며 이로써 그가 받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마리아에게 주셨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옥합이 깨어질 때에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되실 것이나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다. …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복음에 관하여 확실히 말씀하셨다.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진바 될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 줄 것이다. -시대의 소망, 560~563.

##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아무 것도 없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후 5:14.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재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님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비할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이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교훈이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분이셨으나 그들은 미구에 예수 앞에 있을 수 없게 되고 저들이 그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늘의 궁전을 버리고 인간으로서 생애하신 그리스도의 고독에 대하여 제자들은 응당 이해했어야 했지만 전혀 이해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었다. 제자들에게서 받으셨어야 할 것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는 때때로 슬퍼하셨다. 만일 제자들이 당신을 옹위하고 있던 하늘 천사들의 감화 아래 있었다면 그들 역시 마음에서 우리 나오는 신령한 사랑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헌물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임을 예수께서는 아셨다.

예수께서 저들과 가까이 계셨을 당시에 제자들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예수께 행하였어야 할 많은 일들의 참뜻을 깨닫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예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같이 계실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참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으며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했던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하였다. 오, 만일 제자들이 저희 비난의 말을 철회할 수 있었다면,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제시한 그들의 잘못을 철회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상하신 몸을 보았을 때에 더욱 심한 가책을 느꼈다.

이와 같은 부족함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게 불과하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의 큰 사랑이 그들에 의하여 표현되었을 것이며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행하여졌을 것이다. 값진 향유는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 것도 없었을 것이요,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 희생이라도 예수를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564, 565.

## 시몬의 마음의 변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롬 2:1.

주인 시몬은 마리아의 선물에 대한 유다의 비평에 마음이 움직였으며, 그는 예수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그의 바리새인적 자존심은 상하였다. 그는 많은 손님들이 불신과 불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살았으나 죽음만도 못했던 처지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지금 시몬은 구주께서 선지자이신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당신에게 접근하도록 허락하신 까닭에,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여인을 분노하여 물리치지 않으신 까닭에 그 여인이 타락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몬은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시몬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감정의 표시를 매우 자유스럽게 한다는 것 외에 이 여인의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신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 것이다. …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셨다. 그는 주인인 시몬이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하셨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었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 주기를 원하셨다. 오백 데나리온의 빛이 오십 데나리온의 빛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

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시몬은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그를 기쁘게 하였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보았다. … 그의 종교는 바리새주의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엄정한 율법은 그를 정죄하였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그가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었다. …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님께 진 빛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시대의 소망, 566~568.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심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눅 7:47.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풀지워왔던 환경들을 아셨다. 그는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 주신 분은 그리스도였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일곱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었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의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 되었어야만 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그의 진노의 잔을 쏟게 할 수 있으시다. 그는 그의 우주에서 이 흑점을 일소해 버릴 수도 있으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예수께서는 향단 곁에 서서 그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다.

그에게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예수께서는 참조자들과 구설의 다툼으로부터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이 영혼들을 참조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그들을 연합시키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죄짐을 지신 위대하신 분 곁에 선다. -시대의 소망, 568.



## 베드로가 뒤를 돌아다 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 14:31.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다 보고 그는 그의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키게 되었다. 바람이 맹렬히 불어 닦쳤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예수 사이로 직접 밀쳐 왔다. ...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그는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물결이 그를 삼키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의 눈을 성난 물결에서 돌이켜 뒤를 쳐다보고 예수께 고정시키며 “주여 나를 구원 하소서”라고 외쳤다. 예수께서 즉시 내민 손을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구주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서 배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굴복하여 말이 없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랑할 이유가 없었으니 이는 불신과 자고심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그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기 때문이었다.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켰을 때에 그의 발디딤은 허물어지고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공경이 닦쳐올 때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우리의 눈을 구주께 고정시키는 대신에 파도를 쳐다본다. 우리의 발걸음은 미끄러지고 교만한 물결은 영혼을 뒤덮는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시고 그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당신을 따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후에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사 43:1-3)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곧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그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를 원하셨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만일 베드로가 바다에서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을 배웠더라면 큰 시험이 닦쳐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상 생활의 환경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지정하신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들이 맡은 부분을 행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 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 있다. -시대의 소망, 381, 382.

## 서슴치 않고 대답한 베드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5, 16.

슬프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시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적을 보고 그가 다윗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선언하였다. 벳새다에서 양식을 먹은 군중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으나 그가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 자신에 관계되는 두번째 질문을 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당초부터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었었다. 침례 요한의 전도로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투옥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와서는 예수가 과연 저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절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는 못하였다. ...

베드로는 열 두 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반대와 사칭(詐稱)이 물론 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아직도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일찍이 받은 훈련의 감화, 랍비들의 교훈, 인습의 영향 등이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여전히 가로막았다. 때때로 예수에게서 나오는 귀중한 빛줄기가 그들을 비쳤지만 흔히 그들은 암중 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나 믿음 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 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였다. 잠시 동안 저희의 눈은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후 4:18). 인성의 모습을 하신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바 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욥 11:8). 오직 성령께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하시느니라”(고전 2:9, 10). -시대의 소망, 411, 412.

##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 16:23.

사단은 항상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자신을 개입시키려고 한다. … 베드로에 관계된 이 교훈은 주의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서신 65, 1894.

베드로는 그의 주를 사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고난에서 막겠다는 욕망을 나타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시므로써 가르치려 오셨던 자아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말이 주는 인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과는 정 반대의 것이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입술에서 떨어진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

사단은 예수를 낙심하게 하여 그를 그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그 충동적 호소의 이면에는 그의 교사(敎唆)가 있었다. … 사단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의 눈을 돌려 보기를 원하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에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에게 유혹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시험을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제자를 위하여 염려하셨다. 사단은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굴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의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나의 실수하는 중 사이에 더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으로 면대하여 나의 사랑의 오묘를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은 고뇌와 비천으로 수놓여 졌다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쓰라린 교훈이었고 그는 이 교훈을 느끼게 깨달았다. 이 제자는 그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풀무불의 열기속에서 그는 그 축복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오랜 후에 그의 활동적이던 몸이 연령과 활동으로 굽어졌을 때 그는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4:12, 13) 고 기록하였다. -시대의 소망, 415, 416.

## 베드로가 그분의 교훈을 배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1, 32.

대담하고, 잘 다루고, 자신감이 넘치며, 지각이나 행동이 예민하고, 금방 복속하고 금방 용서하는 성질을 가진 베드로는 때때로 잘못을 거듭하여 견책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충정과 헌신도 다른 성질 못지않게 강했다. 이 때문에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이 성급한 제자를 다루심으로 그의 자만을 견제하시고, 그에게 겸손과 순종과 신뢰를 가르치고자 노력하셨다. 그러나, 그가 배운 것은 그 교훈의 일부분뿐이었다. … 그에게는 “내가 …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눅 22:34)는 경고가 거듭 주어졌다. 그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눅 22:33)라고 맹세하듯 말했다. 이것은 그의 사랑하는 마음과 슬픈 심정을 고백하는 말이었다. …

“내가 너를 위하여 …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던 구주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불드는 지주가 된 것은 그가 재판정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연민과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한 그분의 눈길과 마주친 때였다. 그 순간 그는 구주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되살아나, 전에 그분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동산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민의 핏방울로 적셔졌던 잔디 위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죄를 미리 아셨으나 그를 절망 가운데 버려 두지 아니하셨던 것이다.

만일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눈길 대신에 견책하시는 눈길을 보내고, 그의 죄를 미리 말씀하실 때에도 희망의 말씀을 함께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를 두른 암흑이 얼마나 짙었겠는가! …

당신의 제자가 그 고뇌를 경험하지 않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홀로 그 괴로움 속에 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분의 사랑은 용기를 잃게 하거나 못본 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사람은 그 자신도 죄가 많으면서 시험에 빠져 있는 자와 허물이 있는 자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남의 마음을 읽어 볼 수도, 또 그 마음속의 투쟁과 아픔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견책, 치유를 위한 타격, 희망을 속삭이는 경고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다. …

이리하여, 한때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제자가 희생과 수고의 경험을 마쳐 갈 즈음에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다. 전에는 주님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그분께서 돌아가신 방법으로 죽는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베드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비심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적이었다. 크신 교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평생 동안 배워야 할 교훈이다. -교육, 88~91.

## 다정한 어머니의 요청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1.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를 통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의 성질에 관하여 거듭거듭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보좌와 왕권을 취할 메시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그의 아들들이 이 나라의 명예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탐낸 그 어머니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시련과 고통을 지적하시는 그분의 신비스러운 말씀들을 회상하였으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이다”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주님께 일어나게 될 모든 일에 동참하여 그들의 충성심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여겼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고 선언하셨다. 당신의 앞에는 보좌 대신 십자가가,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형악자들이 있을 것이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될 것이었다. 전자는 칼에 의한 신속한 죽음을 당할 운명이었고 후자는 수고와 비난과 박해중에 다른 모든 제자보다 가장 오랫동안 주님을 따를 것이었다. 예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다(마 20:21-23).

예수께서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동기를 아시고 두 제자의 교만과 야심을 책망하셨다. …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위가 정실을 통하여 획득되지 않는다. 이것은 얻는 것도 아니고 독단인 증여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한 상태의 증거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자아 정복의 증거이다.

오랜 후,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함을 통하여 그분을 동정하게 되었을 때에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조건이 무엇임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당신의 자아 희생의 사랑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고전 13:4, 5) 즉 우리 주님을 움직인 것처럼 제자를 움직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이 될 것이다. -사도행적, 541~543.

##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요 21:20)로서 다른 제자들과 구별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우정을 크게 누렸고 구주의 신임과 사랑의 많은 증거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겿세마네에서 당신의 고민을 목격하도록 허락을 받은 세 사람 중의 하나였으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고민의 시간에 당신의 어머니를 모시도록 맡긴 것도 그에게였다.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구주의 애정은 모든 힘을 다하여 행하는 열렬한 헌신으로 되돌아왔다. 요한은 마치 포도나무가 우뚝 선 기둥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렸다. 요한은 그의 주님을 위하여서는 법정의 위협들을 무릅썼으며, 십자가 주위에 머물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열심히 뛰어 성급한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으로 달려갔다. -사도행적, 539.

요한은 교제하기를 좋아하며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곁에 앉아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곤 했다. 마치 꽃이 태양과 이슬을 받듯이,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생명을 받아 마셨다. -교육, 87.

주님께 대한 깊고도 열렬한 요한의 애정은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요 결과이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변화시키는 감화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춰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요일 1:2),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요 1:16).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 구주께서는 열두 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으나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으며 아이의 신뢰심을 가지고 더욱 예수께 그의 마음을 열었다. 이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 더 동정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요한은 어떤 다른 제자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잘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품성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영혼에서 그가 느낀 것을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내었다. 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그는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의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사도행적, 544, 545.



## 요한과 유다의 현저한 차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 2:6.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증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기로 인해 겸손하여졌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 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해마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 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 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이룩해 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성화와 현저히 대조되는 것은 그의 동료 제자 유다의 경험이다. 유다는 그의 동료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했지만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둔감하지 않았다. 때때로 구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거나 그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다. 거룩한 감화를 거절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공언한 주님께 욕을 돌렸다. 요한은 자아의 결점과 열렬하게 싸웠으나 유다는 그의 양심을 범하여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에 일치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버릴 수 없었다.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그는 어두움속에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침침하고 음울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이 두 제자는 모두 거룩한 모본을 연구하고 따를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들을 특권을 받았다. 각자는 심한 품성의 결점을 가졌고 품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는 겸손히 예수를 배운 반면에 후자는 자신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듣기만 하는 자임을 나타내었다. 전자는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죄를 극복함으로써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었으나 후자는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거절하고 이기적 욕망을 품음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진다. -사도행적, 557~559.

## 돈의 노예가 됨

“그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마 26:14, 15.

유다의 생애의 기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을 고히게 된 것을 보여 준다.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더라면 그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 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수세기를 통하여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증오심은 없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역사의 종말에 나타난 특질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격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유월절 조금 전에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했다. 그 때 그는 구주께서 기도하고 목상하기 위하여 자주 가시는 곳에서 그분을 잡기로 계획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는 후에 유다는 자기가 하기로 약속한 행동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의 의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는 중 한 명의 몸값인 은 삼십에 영광의 주를 팔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였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

유다는 제자들에게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그의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그는 그들은 저희들에게 오는 기회를 볼 줄 모르고 환경도 이용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교회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아서는 결코 번영하지 못 할 것이다. 베드로는 성급하여 생각없이 날뛰다. 유다는 요한을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나 주위 모아 간직하는 보잘 것 없는 재정으로 생각했다. 모든 일에 정확하게 행하도록 훈련받은 마태는 유별나게 정직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사 숙고하고 이 일에 너무 골똘하기 때문에 그에게 민첩한 행동과 긴 안목을 요하는 사업을 위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살림꾼으로서 자신의 수완이 아니면 교회는 때때로 혼란과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우쭐했다. -시대의 소망, 716, 717.

##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어 있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한 제자들은 아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심지어 그들의 일꾼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대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들은 그분께서 세우신 원칙들로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경험이 열은 동료 일꾼들에게 이따금 혼란과 낙망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아무도 잘못 인도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본을 보여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세상 끝까지 곡식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인내로써 결길로 나간 자들과 심지어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들까지도 오래 참으신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들 가운데도 배반자 유다가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분의 일꾼들 가운데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해서 놀라고 낙심할 이유가 되겠는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서도 그 사람에 대하여 참으셨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인내심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참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큰 결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모두가 유다와 같지는 않다.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하고, 교만한 베드로는 때때로 유다보다 더 큰 단점을 드러내었다. 그는 더욱 빈번히 구주의 책망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는 얼마나 큰 희생과 봉사가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대하여 얼마나 큰 증언이 되고 있는가! - 치료봉사, 493.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와 충동적인 베드로를 자신과 연결시키셨는데, 이것은 유다가 탐심이 많고 베드로가 열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위대한 교사이신 그분에게 배워서 그분과 같이 이타적이고 온유하고 심령이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이 두 사람에게서 좋은 자질을 보셨다. 유다는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만일 그가 생애의 아주 사소한 일에 있어서까지 이기심과 부정과 탐심을 정죄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을 심령에 간직하였다면 교회에 큰 가치가 있게 되었을 것이다. - 교회증언 4권, 486.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거짓 형제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초대 교회는 어떠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다. … 가룟 유다도 사도중에 한 사람으로 계수되었다. 구주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패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 실물교훈, 72, 73.

## 오직 예수님만 아심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계 좋은 뻘하였느니라” 마 26:24.

유월절 전에 유다는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 주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순결한 것처럼 제자들과 섞여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흥미를 나타냈다. 제자들은 유다의 의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예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비밀을 폭로시키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 사랑의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시중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리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순간동안 사라졌던 옛 감정이 다시 그를 지배하였다. 유다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성이 났다. 예수께서 자신을 이처럼 비천하게 하실 진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세속적 영광과 현세적 왕국에 대한 모든 희망은 소멸되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을 확신했다. … 마귀는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그의 주를 배반하는데 있어서 하기로 동의했던 그 일을 완성하고 자 결심하였다. - 시대의 소망, 645.

반역자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았다. 그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 곳에 앉아서 반역자는 음흉한 목적을 꾀하고 있었으며 엉뚱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 시대의 소망, 653.

그러나 유다는 아직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두 번이나 구주를 배반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후에도 회개할 기회는 있었다. 유월절 만찬 때에 예수께서는 반역자의 의도를 폭로하심으로 당신의 신성을 밝히셨다. 그분은 친절하게도 제자들에 대한 그의 봉사에 유다까지 포함시키셨다. 그러나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예수께서 씻기셨던 발이 그분을 팔기 위하여 나아갔다. - 시대의 소망, 720.

이 발걸음을 내딛기까지는 유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그분의 동료인 제자들 앞을 떠날 때에 최후의 결정은 이루어졌다. 그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 시대의 소망, 654, 655.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같이 그들의 주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는가? - SDA 성경주석 [E.G. 화잇 주석] 5권, 1102.

## 믿음이 더딘 제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9.

제자들이 나뉘어 이뤄진 무리 중 한 무리의 머리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실려 있다. 빌립은 예수께서 “나를 좇으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신 최초의 제자였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인 벳새다 태생이었다. 그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믿는 데는 느렸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에 관하여 나다나엘에게 한 그의 선언은 그가 예수의 신성을 완전히 확신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지만 빌립에게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요 1:45)였다. 5천명을 먹이시던 때에 빌립의 믿음의 부족이 다시 나타났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빌립의 대답은 불신의 편에 있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요 6:5, 7). 예수의 마음은 슬펐다. 빌립은 예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능력을 느꼈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에 관하여 빌립에게 질문하였을 때에 그는 그들을 구주께 소개할 기회를 붙들지 않고 안드레에게 말하기 위하여 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몇 시간 전에 한 빌립의 말은 신앙을 꺾는 그런 것이었다. ...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 제자는 그렇게도 마음이 느리고 믿음이 연약하였다. -시대의 소망, 292, 293.

빌립의 의심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행하면서 나의 말을 듣고, 오천명을 먹이는 이적을 보고, 끔찍한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죽음의 밥이 되어서 그 몸이 참으로 찌었던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도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 될 말이나? 하신 것이다. ...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외모를 봐올 수가 없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아버지를 인간에게 대표하실 수가 있으시다. -SDA 성경주석 [E.G. 화인 주석] 5권, 1141, 1142.

어린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믿음은 빌립의 불신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다. 그는 매우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재를 붙들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으며 하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 있게 참으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좇아 교사가 되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알았고 듣는 자들에게 자각을 주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다. -시대의 소망, 293.

## 원수의 편에서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된 두 계층에 대한 교훈은 사도 베드로의 생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자가 된 초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막 14:27) 고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막 14:29)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자부심(自負心)이 그의 판단을 흐렸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는 저주와 맹세로써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실물교훈, 152.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하므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나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귀므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들을 방치해 둔다. 그들은 저희를 유혹하도록 원수를 초청해 들이고, 다른 환경 아래 있었더라면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행한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시대의 소망, 712.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그윽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다.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이제 그의 자부심은 사라졌고 전에 자만스럽게 장담하던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고 그의 발이 다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였다. 이러한 그의 경험 속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실물교훈, 152~155.



## 드디어 회심함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21:17.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세번 베드로를 시험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 21:15)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다만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에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디”(요 21:17)고 호소하였다. -시대의 소망, 154.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경우에도 필요하였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회복하는 일은 악의 근원에까지 미치지 않으면 결코 철저한 회복 작업이 될 수가 없다. 반복해서 새로 나온 가지가 잘려지지만 쓴 뿌리가 남아 썩어 나사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 죄가 숨어있는 그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서 도덕적 감각은 심판을 받고 또 받아야 한다. …

그리스도께서 세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마음을 살피는 지남침은 그 영혼의 중심부를 찔렀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관해 보았기 때문에 그 크신 반석 앞에 엎드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디” 하였다.

이것은 의와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한 모든 영혼 앞에 놓여 있는 일이다. 유혹을 받은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수술하는 칼은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는 결코 그의 자리를 다시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금방 취급한 경우는 이 주장과 다르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드려서 얻은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위탁하실 때에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그가 참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주님이 굳게 믿는다는 증거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양을 먹일 뿐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받았다. -SDA 성경주석[E.G. 화잇 주석] 5권, 1102.

베드로는 이제 아주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 때 조급하고, 허풍을 떨고, 자신만만하던 그 제자는 통회하고 복종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그가 부인하였던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베드로에게 빛이며, 위로요, 축복이었다. 그는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박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도 머리를 아래로 하여 못박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되 그토록 가깝게 참여한 그는 주께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SDA 성경주석[E.G. 화잇 주석] 5권, 1102.

## 가야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율 2:13.

대제사장은 자기 의복을 찢어서는 안 되었다. 레위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사형에 처할 행위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은 그의 예복을 찢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유대인들 중에는 친구가 죽을 때에 옷을 찢는 풍속이 있었으나 이 풍속을 제사장들은 지키지 말아야 했다. … 제사장들이 입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크신 원형(原型)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였다. 의복과 태도에 있어서나 말과 생각에 있어서 완전함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다. 하나님은 기록하시니 그분의 영광과 완전함이 지상 봉사에서 나타나야만 한다. … 유한한 인간은 죄를 뉘우치고 겸손한 정신을 나타냄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간하실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의 예복은 찢지 말아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사물에 대한 표상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소망, 708, 709.

제사장직은 당시에 매우 타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가야바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짓된 몸짓으로 그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참람하다고 고소하였다. -SDA 성경주석[E.G. 화잇 주석] 5권, 1104.

그는 주께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신 바로 그 일을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정죄하에서 있었지만 그리스도께 참람죄를 선고하였다. … 그가 참람죄를 참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감명시키기 위해서 그가 찢은 제사장복이 악으로 가득찬 마음을 덮었다. -성경주석[E.G. 화잇] 5권, 1105.

참 대제사장과 거짓되고 타락한 대제사장 가야바 사이에는 참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스도는 그 거짓 대제사장 앞에 단 한점의 죄도 없이 순결하고 더럽히지 않은 모습으로서 있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다. 그분은 가야바의 영혼에 위선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외식으로 옷을 찢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야바의 죄까지도 참으셨다. 그리스도는 그의 옷을 찢지 않으시고 그의 영혼을 찢었다. 그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신의 옷은 찢기어졌다. -성경주석[E.G. 화잇] 5권, 1105.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옷을 찢을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도 않았는데도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는 회개의 쇼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이다. 겉으로는 죄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지만 그들의 회개는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가 아니다. -SDA 성경주석[E.G. 화잇 주석] 5권, 1105.

## 우유부단한 빌라도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 27:24.

당초에 빌라도가 굳게 서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정죄하기를 거절했다라면 그는 평생동안 그를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 숙명적인 죄사슬을 끊었을 것이다. 그가 의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실행하였더라면 유대인들도 감히 그로 하여금 사형령을 내리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당하신다 해도 그 죄는 빌라도에게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의 양심에 거스리는 길을 따라 그의 발길을 한 걸음씩 내딛었다. 그가 공명 정대하게 재판한다고 자신을 변명하였으나 이제 그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수중에서 속수 무책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흔들림과 우유 부단함이 그를 멸망시켰다. -시대의 소망, 732.

공포와 양심의 가책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찌푸린 수다한 얼굴들 가운데 그분의 얼굴만이 평화스러웠다. 그분의 머리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비취는 것처럼 보였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군중들을 향하여 “나는 그의 피에 무죄하다”고 그는 선언했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여, 내가 그분을 의인이라고 선언한 것에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 날의 일에 대하여 나를 재판하지 않고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예수께 “이 행동에 대하여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대를 구원할 수 없노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도 다는 차라리 무죄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면서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고 있는가!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 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길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협에 처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다.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4:12). -시대의 소망, 738.

## 십자가를 지는 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눅 23:26.

바라바를 위하여 마련된 십자가가 나오고 그분의 상하여 피흘리는 어깨 위에 그것이 놓여졌을 때 예수께서는 빌라도 법정 문밖까지도 걸어 나올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나마 매를 맞아서 출혈이 과도하고, 과로와 심한 고통 때문에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가 정신이 깨어났을 때 십자가는 다시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졌고 앞으로 걸어 나가도록 재촉을 받았다. 그는 그 무거운 짐을 친척 몇 걸음 비틀거리며 걸어다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땅에 다시 쓰러졌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고통하는 희생자를 동정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가 그 십자가 형틀을 그 이상 지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원고, 127.

두째번 채찍질이 있을 후에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지워졌다. 인간의 체력으로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분은 십자가의 짐에 눌러 졸도하였다.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분의 허약하고 비틀거리시는 발걸음을 보았으나 그분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그분을 조소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짐은 다시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다. 그분은 또 다시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셨다. 박해자들은 그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굴욕의 짐을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고심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을 따르던 폭도들 중에서도 몸을 굽혀 십자가를 질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때에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쳤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다. 그는 떨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가 그분을 측은이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웠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 때 이후로 그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하여졌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서 하게 하였다. -시대의 소망, 742.

시몬이 갈바리까지 그나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그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자원하였고 자신의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것이며 그 짐을 졌던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하였다. ...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고 ... 시몬의 마음은 그것들을 믿었다. -원고 103, 1897.

## “나를 생각하소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눅 23:42.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김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심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재판장에서와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요 19:4)하였노라고 선언하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다. ...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그는 동료 죄수를 돌아보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말했다. 죽어가는 강도들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 할 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제 그는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그의 생애의 역사를 끝마치려 하고 있다. ...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때에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보았다. ...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 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발견했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이게 되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그는 부르짖는다.

응답은 즉시 이르러 왔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조롱과 저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셨다. ...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왔다. -시대의 소망, 749~751.

## 더 이상 숨기지 않은 친구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회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온지라” 요 19:38, 39.

요셉과 니고데모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 계실 때에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산헤드린 의회에서 축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헤드린 의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게 되기를 바랐다. 한 동안 그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저희가 그리스도께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교활한 제사장들은 그들의 계획을 꺾어 버렸다. 그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준 바 되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왔다. 이 때야말로 부자요 존경받는 이들의 도움이 크게 필요 되는 때였다. ...

예모 있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은 순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다. 그들은 그분의 상하고 찢어진 모습을 보고 동정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요셉은 바위를 잘라 만든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하여 파두었던 것인데 갈바리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제 그는 이 무덤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준비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료를 뿌리고 그분의 시체를 세마포로 조심스럽게 싸서 요셉의 무덤으로 옮겼다. ...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 15)고 그 밤에 감람산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던 그 안식일에 니고데모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이제 더욱 밝은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신비스럽지 않았다. 구주께서 살아 계실 때 자기 자신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 큰 손실을 당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갈바리의 사건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죽어가는 강도의 간청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학식 많은 의원(議員)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어진 휘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확립되었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써 극복되었다. -시대의 소망, 773~776.



## 의심하는 자, 도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 20:29.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에는 어둠과 불신이 가득하였다. 도마는 부활하신 구주의 경이로운 출현에 대한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 들어갔다. 만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문자 그대로 세상 나라에 대한 희망은 더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주님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그 동안 도마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눈으로 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그의 정신과 마음에 질투와 불신이 자리잡도록 놔두었다. -시대의 소망, 806, 807.

그는 겸손히 제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한 태도로 그가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 보고 날카로운 창날에 찢린 옆구리를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도마도 거기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을 친히 만나 보았다. 그러나 그는 보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만져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고집을 세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는 그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다. -초기문집, 188.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지니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고백을 받으셨으나 그의 불신을 부드럽게 책망하셨다. ...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저희가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서 받았던 그 같은 증거를 받는다면 저희는 믿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 도마를 다루신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는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셨다. 예수님의 모본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보여 주신다. 예수께서는는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도 않으시고, 그와 시비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도마는 자기의 믿음의 조건들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분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는 당신의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셨다. 불신은 언쟁으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 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지니이다”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807, 808.

60 진리의 기둥과 띠

## 종교자유와 대원칙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행 4:19, 20.

얇은땀을 고친 다음날,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의 다른 고관들과 함께 심문을 위해 모였고, 죄수들은 그들 앞에 나왔다. 바로 같은 방에서, 그리고 바로 그 몇몇 같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치욕스럽게 그의 주님을 부인했었다. 그가 심문을 받기 위해 나왔을 때 이 일이 분명하게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이제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심문받으실 때 취했던 행동을 기억하는 참석자들은 이제 그를 투옥과 사형의 위협으로 겁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우쭐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충동적이고 자신 만만하던 베드로는 심문받기 위해 산헤드린 앞에 선 베드로와는 크게 달랐다. 범죄 이후 그는 개심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았고, 그 대신 겸손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며, 이 능력을 의지하여 한때 그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의 반역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결심하였다. -사도행적, 62, 63.

예수의 이름으로 더이상 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선언하던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 담대한 원칙은 종교개혁 시대에 복음을 고수하던 자들이 고수하려고 투쟁하던 그 원칙과 동일하다. 1529년 독일의 제후들이 스파이어스 의회에 모였을 때에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개혁 교리들을 더이상 보급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황제의 칙령이 제출되었다. 마치 세상의 희망이 꺾여지는 것처럼 보였다. 제후들이 이 칙령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직도 흑암 중에 있는 군중들에게서 복음의 빛이 거두어져야 할 것인가? 세상을 위한 중대한 문제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은 함께 모여 만장일치로 “이 칙령을 거절하자. 양심문제에 있어서 다수는 힘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해야 한다. 복음 교회의 창시자들과 그 이후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증인들에 의하여 높이 들렸던 진리와 종교 자유의 깃발은 이 마지막 투쟁에 있어서 우리들의 손에 위탁되었다. 이 큰 선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지식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에게 놓여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세운 정부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규범으로 인정하고,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거룩한 의무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그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상치될 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법보다 높다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이란 말을 “교회와 이렇게 말하기를” 혹은 “국가가 이렇게 말하기를”이라는 것 때문에 파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지상 군주의 왕관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 -사도행적, 68, 69.

## 하나님의 것을 잘못 취급함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신 23:21.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간략하면서도 비참한 역사는 영감의 빛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중요한 교훈은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충분한 무게로 깨달음을 주지 못했다. … 이러한 하나님의 보복적 공의에 대한 이 두드러진 증거는 두렵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러한 형벌을 가져올 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특권을 가졌다. …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 감화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은 특정한 땅을 주께 드리기로 서원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이 하늘의 영향 아래 있지 않게 되자 그 감화력은 약화되고,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한 서원을 이루는 데서 물러섰다. … 그들은 먼저 탐욕을 품었다. 그 후 하나님께 바치기로 엄숙하게 서원한 것을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드리기 아까워했다는 사실이 형제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속이게 되었다. … 그들의 거짓이 알려지자 그들은 즉각적인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 -교회증언 4권, 462, 463.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중히 여기심에 대한 이 실례는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 대해 하나의 위험 신호로 주신 바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였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자 한 욕망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음 전파 사업이 당신의 백성의 수고와 헌금에 의존되게 하셨다.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과 십일조는 주의 사업에 재원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신 재물의 일부분, 즉 십일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많이 드리든 아니하든 모두 자유로 두신다. 그러나 마음이 성령의 감화로 감동을 받아 열마의 금액을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서약한 사람은 성별한 부분에 대하여 더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 사람에게 한 그런 류의 약속들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렇게 구속력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한 약속은 얼마나 더 구속력이 더하겠는가? 양심으로 결정한 약속이 사람들의 계약서보다 구속력이 덜하겠는가? …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함부로 돈을 쓴다. 남녀들은 쾌락을 찾아 그들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한편, 거의 마지못하여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엄격한 설명을 요구하실 것이며, 그분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이 창고에 드리는 적은 금액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사도행적, 74, 75.

##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함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행 6:15.

일곱 집사 중의 으뜸되는 스테반은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비록 유대 태생이었으나 스테반은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사람의 관습과 예절에 익숙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헬라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매우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유식한 랍비들과 율법의 박사들은 쉽게 승리하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스테반과 공개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다. …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스테반의 설교에 함께 한 능력을 보고 격렬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다. … [그들은] 스테반을 체포해서 산헤드린 앞으로 데려다가 심문했다. …

이 죄수의 논증을 반박할 목적으로 인근 나라들로부터 학식 있는 유대인들이 소환되었다. 다소 사람 사울이 참석하여 스테반을 대적하는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사울은 이 사건을 지지하는 무게 있는 웅변과 랍비의 이론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스테반이 기만적이고, 위험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스테반이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였다. …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스테반의 명석하고 침착한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까닭에, 그를 본보기로 징계하고자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복수에 불타는 증오심을 만족시키는 한편, 공포심을 조장하여 다른 사람들로 그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증인들을 고용하여 그가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참람되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다. …

주위의 잔인한 얼굴들을 보고서 그 죄수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으나 요동하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는 분노한 제사장들이나 흥분한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광경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종을 불드시고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사도행적, 97~101.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자들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국외로까지 널리 퍼져 나갔다. … 고상하고 웅변가인 스테반이 …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복음 사업에는 전혀 손해가 없었다. 스테반의 얼굴을 영광으로 물들게 한 하늘의 빛과, 그가 죽으면서 드린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훈은 곁에 선 완고한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예리한 화살과 같았다. 그리고 또, 핍박하던 바리새인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택함을 받은 그릇이 되었다. -산상보훈, 33, 34.

## 바로 한 사람을 위하여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행 8:26, 27.

바로 한 사람, 에디오피아인 하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는지 주목해 보라. -교회증언 8권, 57.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명망과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개심하면 그는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음을 위하여 더 큰 감화를 끼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빛을 찾는 사람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는 구주께 인도되었다.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은 그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하셨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가서 그가 읽고 있는 예언을 그에게 설명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성령께서는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 ... 성경 말씀의 설명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흥미로 벅찼고, 그 제자가 설명을 마치자 그는 주어진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세상의 높은 지위를 복음을 거절하는 핑계로 삼지 아니하였다. ...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빌립과 같은 선교사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많은 계급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이기를 기다리면서 하늘 나라 경계선에 있다.

한 천사가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은 성령께서 저희 혀를 성화시키고 그 마음을 정련하고 고상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빌립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 자신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위해 일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인간들이 동료 인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시다. -사도행적, 107~10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서 기별을 전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옹바로 가거나 가버나움으로 간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그 장소로 보내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주어야 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빌립을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로,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에게로,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를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에게로 보내어 도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남녀들과 젊은이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신다 -치료봉사, 473.

## 첫번째 도르가

“옴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행 9:36.

룻다에서 가까운 옴바에 도르가라하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도르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 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숨쉬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그녀가 “그 때에 병들어 죽”었다. 옴바의 교회는 그들의 손실을 깨달았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자 교인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시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어 보”였다. 도르가가 살아 온 봉사의 생애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슬퍼하면서 생기없는 시체 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슬픔을 보았을 때에 사도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감동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울고 있는 친구들을 방에서 내어 보내도록 지시하고, 무릎을 꿇고 도르가에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는 시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도르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의 숨쉬와 힘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이 합당함을 아셨고, 또한 이 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굳게 하려 하셨다. -사도행적, 131, 132.

하나님께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는 근로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성경에서 배우게 한다. 그들이 하여금 “선지자의 생도”(왕하 6:1-7) 즉 생도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친히 집을 짓다가 빌어 온 도끼를 잃자 그것을 건지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신 기사를 읽게 하라. 목수 예수님이나 천막 제조업자 바울이 직인(職人)으로서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연결케 된 기사를 읽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소년이 가진 다섯 개의 떡 덩어리가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이적에 사용되고, 재봉하는 여인 도르가가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옷 만드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일, 잠언에 기록된 지혜 있는 부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 주며 여중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포도원을 심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연은 양식을 먹지 아니” 한다는 말씀을 읽게 하라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잠 31:30, 31)고 하신다. -교육, 217.



## 아무런 국가적 장벽도 없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어 무슨 일 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읍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행 10:4~6.

베드로가 묵고 있던 집의 사람의 직업까지 지칭한 이 분명한 명령은 하늘이 모든 계급의 사람들의 역사와 사업을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노동자의 경험과 일을 보좌에 앉은 왕의 그것처럼 익히 아신다. -사도행적, 133, 134.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내신 관심을 읽을 때, 나의 마음은 매우 부드러워진다. 고넬료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빛대로 엄격히 따라가고 있었다. 주님께서 특별한 기별을 하늘에서 그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다른 기별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그를 방문하여 그에게 빛을 전해 주라고 지시하셨다. -교회증언 6권, 79.

고넬료는 기쁨으로 그 환상에 순종하였다. 천사가 떠난 후에 백부장은 “집안 하인 둘과 중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읍바로 보내”었다.

많은 이방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흥미있게 듣고 있었으며,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되었지만, 고넬료의 개종은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업이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야 할 때가 이르렀다. 많은 유대인 회심자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닫았던 문을 이제 열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할례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이 유대인 제자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하였다. -사도행적, 134-136.

이와 같이 복음이 낯선 자들이요 외국인이었던 이들에게도 전파됨으로써 그들은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고넬료와 그 가족의 회개는 거두어들여야 할 수확의 처음 익은 열매였다. 이 가족으로부터 광범위한 은혜의 역사가 그 이교의 도시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낮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 주께서 당신의 사업에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들은 주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지는 하지만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매는 인연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데는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이 영혼들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들은 저희의 책임과 인간적인 유대 때문에 큰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적, 139, 140.

우리는 고넬료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분은 고넬료를 인도하셨으며 그 종이 기도하는 동안 그의 마음을 이끄셨다. -하늘조정에서, 322.

## 은 세상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행 10:34, 35.

베드로가 ...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

그 환상으로 베드로는 책망과 교훈을 받았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의 축복의 후사가 될 것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무너진 장벽이 아직도 존재하여 그들의 노력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을 복음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생각한 까닭이었다. 이제 주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가 세계적인 것임을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

유대인의 교육으로 인해 베드로의 마음 깊이 뿌리박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시는 일에 주께서는 얼마나 주의 깊게 일하셨던가! 보자기와 그 속에 든 물건들의 환상으로 주께서는 사도의 마음에서 이 편견을 없이하여 하늘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같이 귀중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도들도 복음의 축복과 특권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었다. ...

[베드로는]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를 주저하였지만 감히 불순종하지는 않았다. ...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일가와 친구들에게] 예수를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지적할 때에 그는 자신이 전에 보았던 계시의 뜻을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그가 제시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올랐다. ...

이와 같이 복음이 낯선 자들이요 외국인이었던 이들에게도 전파됨으로써 그들은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고넬료와 그 가족의 회개는 거두어들여야 할 수확의 처음 익은 열매였다. 이 가족으로부터 광범위한 은혜의 역사가 그 이교의 도시에서 이루어졌다. ...

유대에 있는 형제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모인 무리에게 전도하였다는 말을 듣자 놀랐으며 몹시 분노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께님께 보이는 그러한 행동 노선이 베드로 자신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밝혔다. ...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의 직접적인 성취였으므로 그들의 편견과 독선이 복음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였다. -사도행적, 132~142.

## 천사의 수호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해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행 12:11.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베드로의 처형이 유월절 이후로 연기되는 동안, 교인들은 마음을 깊이 살피고 열렬히 기도할 시간을 얻었다. 그들은 베드로가 그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망할지도 모를 지점에 이르렀다고 느꼈다. …

베드로의 처형일이 마침내 결정되었다. 그러나 신자들의 기도는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으며, 그들이 온 힘과 동정심으로 뜨겁게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투옥된 사도를 지키고 있었다. …

사도들의 이전의 탈출을 기억한 헤롯은 이번에는 이중의 예방 조치를 취하였다. 탈출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교대로 주야 감시하는 16명의 군사들의 감시 아래 두었다. 감방 안에서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 놓여 있었으며 양팔에는 사슬을 채웠는데 각 사슬은 병사의 손목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병사들 몰래 움직일 수 없었다. 옥문들은 든든히 잠겼으며, 각 문에는 강한 과수병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인간의 방법을 통한 구출이나 탈출의 기회는 모두 단절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

베드로는 바위를 깎아 만든 감방속에 갇혀 있었으며 그 문들은 굳게 잠겨 있었다. 보조병들은 죄수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였다. 그러나 인간적인 도움의 모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문지방들과 로마의 과수병들은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 완전하게 할 뿐이었다. 헤롯은 전능자를 대적하였으므로 철저히 패배할 것이었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 귀중한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다.

예정된 처형일 전날 밤, 하늘로부터 한 능력 있는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도록 보내심을 받는다. -사도행적, 145, 146.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들은 외관적으로는 불리한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수행하고 있는 싸움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주의 깃발 주위에 집결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나아가면 새로운 정복 사업은 성취되고, 새로운 명예를 얻게 된다. 모든 하늘 천사들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므로, 이 지상에 있는 주의 일꾼들의 군대가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늘 찬양대는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찬양을 돌린다. …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하늘 존재들의 협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함이 좋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운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다. 힘이 탁월한 그룹과 스랍,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 (히 1:14) 신 바 된다. -사도행적, 154.

## 하늘과 연결됨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 34:7.

하늘 궁정에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왔던 바로 그 천사가 헤롯에게는 진노와 형벌을 내리는 사자가 되었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처서 잠에서 깨운 것과는 달리, 악한 왕을 쳐서 그의 교만을 낮추고 그에게 전능하신 분의 형벌을 가한 것은 전혀 다른 일격이었다. …

거룩한 공의에 대한 이 실례는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감옥과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반면 박해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이 각 지방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로 하여금 진리를 찾는 자를 만나도록 인도한 빌립의 경험,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가져온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의 경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안전하게 구출된 베드로의 경험 등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의 관계가 밀접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천사들의 방문 기록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한다.

하늘은 그 기초가 땅에 확고히 박히고 그 꼭대기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에 연결된 신비스러운 사다리로 인해 땅과 가까워져 있다. 천사들은 이 빛나는 광명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곤궁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전달하고, 축복과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인간 자녀들에게 가져다 준다. 이러한 빛의 천사들은 영혼의 주위에 하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린다. 우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 영적인 귀로써만 하늘 음성의 조화를 들을 수 있다. …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원하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시 91:6)에서 보호하도록 사명을 주신다.

계속하여 천사들은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왔다. 거듭거듭 천사들의 격려의 말은 충실한 사람들의 낙담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사물을 초월하게 하여 승리자들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둘러서서 받게 될 흰옷과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가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당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천사들의 일이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들을 위해 끈기 있게 일한다. 죄인들이 자신을 구주께 바칠 때에, 천사들은 그 기별을 하늘로 가지고 가며, 하늘 천군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다. -사도행적, 152, 153.

## 다메섹 성문 밖에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행 9:3, 4.

복음 사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갈릴리 제자들의 믿음과 경험이 열성적인 한 예루살렘 학자의 지성과 결합되었다. 다소 사람 사울은 이방 도시에서 태어난 로마의 시민이었다. 그는 혈통을 보나 평생 동안 받은 교육, 애국심, 신앙을 보나 완전한 유대인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고명한 학자들 문하에서 교육을 받고,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과 관습에 따라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편견이 대단하였다. 그는 청년의 때에 이미 산헤드린의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다. 그는 고래의 전통적 신앙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로, 전도가 유망한 사람으로 촉망을 받았다.

유대의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론을 더 중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랍비들 나름대로의 교훈과 해석에 의해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세력 부식(扶植), 권세에 대한 욕망, 시기와 배타심, 완미(頑迷)하고 교만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당시의 교사들을 지배한 주의와 동기였다.

랍비들은 타민족뿐 아니라 동족 앞에서도 자신들의 우월성을 자랑하였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대하여 격렬한 저항심을 가지고, 국가의 주권을 회복할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야망에 찬 음모와는 대조적인 평화의 기별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오하고 죽였다. 이 박해 운동에서, 사울은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행동 요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애굽의 군사 학교에서 무력의 법칙을 배운 것이 품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의 법칙으로 지도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조용한 교제를 나누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바울 역시 이와 똑같은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다메섹 성문 밖에서 바울이 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상은 그의 생애의 방향을 일변시켰다. 박해자가 제자로, 교사가 학생이 되는 순간이었다. 다메섹에서 쓸쓸히 보낸 어두운 며칠이 그에게 마치 몇 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기억하고 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의 연구 자료가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사가 되셨다. -교육, 64, 65.

바울은 그가 바리새인의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경했을 때 어떤 참된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바울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하늘의 빛에 따라 그 자신을 땅에서 멸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백성들과 연결시켰다. ... 그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순교의 고통을 감수했다. -원고, 41, 1894.

## 사울이 바울로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행 9:6.

바울의 놀라운 개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본다. ... 그가 어떤 사람들의 이름보다 미워하고 경멸했던 예수께서, 무분별하나 정직한 그의 길을 저지하심으로써 이 가장 가망성이 없는 도구를 이방에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바울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다. ...

예수께서는 당신이 맡기신 일을 그때 그 자리에서 그에게 맡겨 줄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신앙 가운데서 지도를 받아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심하게 핍박하던 바로 그 제자들에게로 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서 배우게 하셨다. 하늘에서 비추인 빛은 바울의 시력을 앗아갔으나, 소경들을 고치신 위대한 치유자 예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바울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답변하신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바울의 눈먼 것을 고쳐 줄 수 있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장래의 길을 말씀하심으로 그의 의무를 알게 할 수도 있으셨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능력과 자비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그분은 바울에게 진리로 개심하는 과정에서 이 땅위에 최근에 조직된 당신의 교회와 관련 없는 독자적인 경험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그 경우에, 바울에게 주어진 놀라운 빛은 그를 놀라게 하고 사로잡았다. 그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바울의 경험 중 이 부분은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루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예수께서는 의무에 대한 보다 넓은 지식을 위하여 그를 교회에 속한 당신의 일꾼들에게로 보내신다. 그리하여 그분은 당신의 조직된 교회를 인정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하시고 확신시키는 일을 하셨다. 이제 바울은,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에게서 배울 입장에 놓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확신시키는 당신의 선택된 종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를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키셨다. 바울이 멸절시키고 자했던 바로 그들이, 그가 멸시하고 핍박한 신앙을 그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

한 천사가 파송되어, 사울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지시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어떤 집으로 가라고 아나니아에게 지시하였다. 사울의 자만심은 사라졌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상급을 받을만한 선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겸손하게 회개의 심령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땅바닥에 구부리고 엎드렸다. 그는 용서를 받기 위하여 열렬하게 탄원했다. ...

그리스도 대신에 아나니아는 그의 눈을 만져 세력을 얻게 하였다. 그리스도 대신에 그는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으며,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교회증언 3권, 429~433.



## 아라비아에서의 수련 기간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 1:17.

생명이 위협에 처하자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당분간 다메섹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 그는 거기서 비교적 조용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묵상하기에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 바울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더 깊이 회개하고 싶었고 또한 너무도 크고 중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와 연구를 통해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바울이 사도로 선택받은 것은 사람에게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또한 그의 사업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야 할 것이 명백히 지시되었다.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 그는 사도들과의 교제도 끊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가납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큰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바울은 장차 그의 봉사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확증을 얻기까지는 투쟁을 그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바울은 몸예 그리스도의 영광의 표지, 하늘 영광으로 멀었던 그의 눈과 그리스도의 불들어 주시는 은혜의 확증을 항상 가지고 있기를 갈망하였다. 바울은 하나님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그와 더불어 말씀하셨으며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였고 당신의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셨다. -살아남는 이들, 274, 275.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쉬지 않고 일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시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명령하셨다(마 9:38). 그분께서는 당신의 최초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고에 지친 당신의 일꾼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천연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세상과 세상의 풍습과 습관에 일치되지 않은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분께서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음성이 그치고 정적 속에서 그분 앞에 나갈 때, 조용한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확실히 구별하게 된다. ...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인 준비가 된다. 분주한 군중들과, 긴장된 생애의 활동 속에서 이와 같이 기운을 회복한 사람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에 싸이게 될 것이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의 생애는 향기를 발산하고, 사람들의 심령과 접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치료봉사, 58.

## 바울이 십자가를 높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전 2:2~4.

설교를 할 때 웅변적 스타일을 취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다. 왕들 앞과 아테네의 크고 학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만한 사람으로는 바울이 적임자였다. 그가 쌓은 지식이 복음의 문을 여는데 더러는 도움이 된 때도 있었다. 그는 아테네에서 그것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그가 바라던 성공은 거두지 못하였다. 그가 그것을 반성하고 난 다음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의 지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그는 보다 차원이 높은 근원에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하는 일에 들어오셔야 하고 모든 영적인 발달을 성화시켜야 한다. -SDA 성경주석[E.G. 화잇 주석] 6권, 1084.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생애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 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감화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회개하였을 때, 바울은 동료 인간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에 능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고무되었다. 그 후로는 그의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사랑과 능력을 묘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그의 큰 동정심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 그가 그분의 성도들을 꺾박함으로 그처럼 혹독하게 박해하였던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다.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다. ... 사도의 노력은 공중 설교에만 국한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방법으로는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 그는 병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방문하였고 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압박당하는 이들을 일으켰다. 그가 말하고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 바울은 그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운 감화로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자신은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높임을 받으셨다. -사도행적, 245~251.

## 복음 천막을 제조하는 자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라” 고후 11:9.

바울은 천막 제조공이었으며 그 직업에서 일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렇게 일하면서도 그는 자기와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고 많은 영혼을 오류에서 진리로 돌이켰다. 그는 구주에 대하여 말하고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도울 기회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서신 107, 1904.

사도 바울의 역사는 노동이 도무지 천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인간의 참된 위대함이나 고상함, 혹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에도 일치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끊임없는 증거가 된다. 그의 심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때문에 그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나 이지적이고도 웅변적인 그의 설교의 호소력이 감퇴되지는 않았다. ... 그가 사람들 앞에 펼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은 그의 생계를 위하여 아무에게도 돈을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증언해 주었다. ... 때로는 그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하여 자신은 굶주리면서도 동역자들까지도 부양하였다. 그가 자기 수입을 누가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디모데가 선교여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그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서신 103, 1930.

바울은, 복음은 육체적인 수고의 필요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당시 교회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던 생각과는 반대되는 모본을 세웠다. 그는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는 여러 곳에서, 헌신한 평신도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실제적인 방법으로 예증하였다. 그의 행위는 그들이 매일의 노동으로 자신들을 부양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고무시켰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 전파 사업에 그들의 전시간을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일꾼들을 쓰셔서 아볼로에게 진리의 길을 더욱 완전히 보여 주게 하셨다. 주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떤 이들은 그들의 모든 정력을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바치도록 택하심을 받는 한편,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간의 손이 안수한 적은 없었으나 영혼 구원에 중대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

끊임없이 말씀과 교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은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의 일에 있어서 보수가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며 그는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그의 의무를 버리지도 아니한다. 그는 그의 사명을 하늘에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업을 마칠 때, 보수를 얻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본다.

이러한 일꾼들이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딤후 4:15) 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을 순종할 충분한 기회를 갖도록 불필요한 근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이시다. -사도행적, 355, 356.

## 유익한 모다불

“민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행 19:18, 19.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책들을 불사름으로 저희가 한때 좋아하였던 것을 이제 미워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한 것은 마술을 의존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그와 같이 분개를 나타낸 것은 마술을 대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참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었다. ...

제자들이 이 책들을 보유했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을 시험에 노출시켰을 것이며, 그것들을 팔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길에 시험거리를 놓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흑암의 왕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그 권세를 떨리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진리는 사람들의 편견과 돈에 대한 사랑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출현으로 바로 그 미신의 성채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큰 승리를 얻었으며 그 일로 인한 영향력은 바울이 실감했던 것보다도 더 널리 퍼졌다. 소식은 에베소로부터 널리 유포되어 그리스도의 사업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사도 자신이 그의 사명을 다한 오랜 후까지도 이 광경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어서 복음으로 나아오는 회심자들을 얻는 방편이 되었다.

이교의 미신들이 20세기의 문명 앞에서는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하는 사건들의 엄연한 증언은 마법이 고대 마법사들의 시대와 똑같이 이 시대에도 행하여지고 있음을 명백히 한다. 고대의 마법 제도는 사실상 현대 강신술로 알려진 것과 동일하다. 사단은 자신을 죽은 친구들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냄으로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 있다. 성경 말씀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전 9:5)다고 선언한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랑, 그들의 증오심은 사라지고 없다. 죽은 자는 산 자와 교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단은 그가 최초로 사용한 간계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이 계략을 사용한다. ...

오늘날의 점쟁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 이교 시대의 마술사와 같이 강신술의 영매들이다. 엔돌과 에베소에서 발한 신비스러운 음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의 눈 앞에서 휘장이 견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곳은 어디서든지 사단이 그의 매혹시키는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의 감화에 굴복할 때 그들은 머지 않아 마음이 어리둥절하게 되고 영혼이 더럽혀짐을 알게 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의 다음 권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엡 5:11). -사도행적, 288~290.

## 젊었을 때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딤편 4:12.

디모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교사가 되었을 때 그는 한 소년에 불과하였지만,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그의 원칙은 확고하였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직책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으로 그 책임을 졌다. 그는 신실하고, 굳세고, 진실하였다. 바울은 그를 택하여 그의 동역자로 삼아 함께 일하고 함께 여행을 다녔다.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나 않을까 하여 그에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디모데는 아무 일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는 그가 자부심이 강하지 않고 계속 인도를 간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양심에 의하여 행동하지 않고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디모데는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가”하고 자문하였다. 그는 특별히 빛나는 달란트를 갖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쳤다. 이것이 그의 일을 가치있게 만들었다. 주님은 그의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펼치고 형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보셨다.

만약 오늘날의 청년들이 주님의 지도를 따를 것 같으면 주께서 디모데를 쓰심같이 그들을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된다는 것은 그대의 특권이다.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라. 그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서 주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구주를 알겠는가? -SDA성경주석[E.G. 화잇 주석] 7권, 915

디모데는 그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바울의 충고와 지도를 구하였다. 그는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매 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를 물으면서 깊이 숙고하고 침착하게 생각하였다. …

성경의 교훈이 매일의 생애 속에 역사할 때에, 그것은 품성에 깊고 영속적인 감화를 끼치게 된다. 디모데는 이 교훈을 배우고 실행하였다. 그는 특별히 특출한 재간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그의 사업은 귀중하였는데 이는 그가 하늘이 준 능력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한 까닭이었다. -사도행적, 205.

우리 청년들의 최고의 목적이 진기한 어떤 것을 찾아서 힘을 다해 애쓰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디모데의 마음과 그의 한 일 가운데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청년들이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은 모든 의의 원수의 손 안에서 오직 지식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사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마침내 반역자가 된 자는 바로 매우 뛰어난 지적 존재자였고, 그의 능력은 지금도 탁월한 지적 재능을 가진 많은 두뇌들을 이끌어 그의 포로로 삼고 있다. 청년들은 그들 자신을 성경의 가르침 아래 두어야 하며 그 교훈들을 매일의 생각과 실 생애에 짜 넣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하늘 법정에서 가장 고귀하게 분류될 속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8. 5. 5.

## 어려서부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편 3:15.

그[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가 가정 생활을 통해 보았던 경건은 건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가졌던 성경에 대한 신앙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따르는 축복을 끊임 없이 생각나게 해주었다. -사도행적, 203.

여기에서 우리는 디모데가 가진 유리한 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경건과 참된 신앙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틀림이 없는 모본을 보고 자라났다는 것이다. 신앙은 그의 가정의 분위기였다. 가정 안에 있었던 분명한 경건의 능력은 그의 언어를 순결하게 보존해 주었고, 모든 타락케 하는 영향에서 벗어나 줄 수가 있었다. -SDA성경주석[E.G. 화잇 주석] 7권, 919.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당신의 요구를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을 취급하신 일에 대하여 잘 알게 하도록 명하셨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특별한 의무, 곧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할 의무 중에 하나였다. 낯선 사람의 입술 대신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저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은 일상 생활의 모든 일과 관련되어야 하였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오실 구주에 대한 언약들은 이스라엘인들의 가정에서 자주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였다. … 하나님의 섭리와 내세에 대한 대진리가 젊은이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자연의 경치와 계시의 말씀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보도록 교육을 받았다. 하늘의 별들, 들의 나무와 꽃들, 높은 산, 잔물결을 일으키는 시내 이 모든 만물은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성소에서 거행되는 제사와 엄숙한 예배 의식과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였다.

모세는 고센 땅의 천한 오두막 집에서, 사무엘은 충성스런 한나의 곁에서,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에 있는 거처에서,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조상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나사렛에서의 그리스도의 초기 생애도 역시 그와 같았으며 “외조모 로이스와 … 어머니 유니게”(딤편 1:5, 3:15)의 입술로부터 성경을 배운 아이 디모데도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부조와 선지자, 592.

부모들이여, 그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대들이 해야 할 큰 사업이 있다. 주님을 그대들의 안내자요 조력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고귀한 은사 곧 당신의 독생자를 그대에게 아끼지 않으셨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단은 마치 강철로 된 줄로 묶듯이 어린이들을 자기 자신에게 단단히 묶으려고 노력함으로 그대들은 오직 단호한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만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19.



## 영적인 아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바울은 디모데의 충성, 끈기 그리고 진실을 보고 그를 수고와 여행의 동료로 선택하였다. 유년 시절에 디모데를 가르쳤던 이들은 그들이 관심을 기울인 아들이 그 위대한 사도와 친밀한 교제를 맺도록 연결됨을 봄으로 보상을 받았다. …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딤후 1:2) 된 디모데를 사랑하였다. 그 위대한 사도는 종종 젊은 제자를 데리고 나가 성경 역사에 관하여 물어보고 또한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주의 깊이 가르쳐 주었다. 바울과 실라도 디모데와의 그 모든 교제에 있어서, 복음 교역자의 사업의 신성성과 중요성에 관하여 이미 그의 마음에 끼쳐진 감명을 더 깊게 해주고자 노력하였다. -사도행적, 203, 204.

바울은 말로 친구들을 많이 얻게 되었는데, 그들은 폐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을 찾아 왔었고, 축복의 말을 세상의 황제의 말보다 더욱 더 가치가 있는 말로 여겼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시련의 날에 그가 그리워한 사람은 디모데였다. 바울은 그의 사랑과 동정을 간절히 그리워하였고, 그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탁하였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행 때에 그를 에베소에 남겨 두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오고간 사랑은 디모데가 회심하였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두 사람 사이의 유대는 그들이 소망과 위험과 선교 활동의 수고를 함께하는 동안 점차 강화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한 사람인 것같이 되었다. 그들의 연령과 성격의 차이는 서로를 위하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열렬하게 만들었다. 열심이 있고, 열렬하고, 강직한 바울의 정신은 온유하고, 양보심이 많고, 수줍어 하는 디모데의 성격에서 휴식과 위로를 발견하였다. 신실한 봉사과 부드러운 사랑의 소유자인 이 고난의 동반자는 그 사도의 삶의 많은 어두운 시간을 밝게 해 주었다. 펠랑히톤과 루터와의 모든 관계, 한 아들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관계가 젊은 디모데와 시련 중에 있는 쓸쓸한 바울과의 관계이었다 -SDA성경주석[E.G. 화이트 주석] 7권, 917.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실천적인 경건과 진리에 대한 그의 명민한 지식은 그를 빼어난 사람이 되게 하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의 경건하고 감화력이 있는 가정생활은 값싼 질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분별력이 있고, 거짓된 의견에 의하여 부패되지 않는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를 인도하는 법칙이었다. … 가장 숭고한 명령, 실천이 가능한 명령이 주는 감명을 그는 그의 마음에 간직하였다. 가정에서 그를 가르친 교사들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젊은이를 교육할 때에, 아주 초년기에 그에게 할당된 짐을 지게 하였다. -SDA성경주석[E.G. 화이트 주석] 7권, 918.

## 햇불을 전달함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1, 2.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최후의 편지에서 바울은 젊은 교역자 앞에 높은 이상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목사로써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지적하였다. …

디모데와 같이 매우 열렬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주어 진 이 엄숙한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사업의 중요성과 책임에 대한 강한 증거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하고, 그에게 사람의 말이나 관습이 아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한다. 바울은 그에게 무리들 앞에서나 사담하는 자리에서나 길가에서나 화롯가에서나, 친구들에게나 원수들에게나, 안전할 때나 고난과 위험, 비난과 손실을 당할 때를 막론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고 명하였다.

디모데의 온순하고 양보하기 쉬운 기질이 그로 하여금 그의 사업의 한 긴요한 부분을 피하게 하거나 않을까 염려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죄악을 책망하는 일에 충실하고 악을 범한 사람들을 날카롭게 책망하라고 권고하였다. 오직 디모데는 이 일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여야 하였다. 말씀의 진리로 그의 책망을 설명해주고 강요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나타내야 하였다.

죄를 미워하고 책망하면서 동시에 죄인에 대한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얻으려는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 열렬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더욱 예민해질 것이며, 정도에서의 어떤 이탈에 대해서도 더욱 더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우리는 행악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하지만, 죄의 지극히 사악함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오를 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인내와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지만 또한 그의 과오에 대하여 지나친 관용을 보임으로 그가 자신이 책망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책망을 쓸데없고 부당한 것으로 거절하게 될 위험이 있다. …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교훈 가운데 생애의 완전한 법칙을 주셨고, 일점 일획도 변하지 않은 이 율법은 세상 끝 날까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멸시의 증가와 더불어 신앙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교만과 쾌락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자아 방종이 증가된다. 그리하여 사려 깊은 사람들은 각처에서 이 우려할 만한 죄악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까 하고 근심스럽게 묻고 있다. 그 해답은 “말씀을 전하라”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권고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에서만 유일의 안전한 행동의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사본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다. -사도행적, 501~506.

## 낙심자가 용기를 회복함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딤후 4:11.

마가의 어머니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은 제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언제나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편안한 휴식을 얻었다. 마가가 그들의 선교 여행에 동행할 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의한 것도 사도들이 그의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던 때였다. 마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으며 복음 전도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었다. ...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여행을 계속하여 밤빌리아에 있는 벵가로 갔다. 그들의 길은 고생스러웠고, 그들은 고난과 궁핍을 당하였으며 또한 도처에서 위험에 둘러싸 있었다. 지나는 촌락과 도시에서 그리고 외로운 큰길에서, 그들은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배웠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하였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충실한 목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안일과 편의를 생각지 아니하였다. 자아를 잊어버린 그들은 피곤하고, 주리고, 추울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 곧 양의 우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의 구원만을 바라보았다.

마가가 공포와 낙담에 억눌려 한동안 전심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하려던 그의 목적에서 흔들린 것도 이 곳에 서였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이제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는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맞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하였다. 사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마가는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겁이 나서 용기를 완전히 잃어 앞으로 나아갈 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게 하였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후년에 마가를 위한 그의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과 어려운 지방에서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바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 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

바울은 후에 마가와 화해하고 그를 동역자로 영접하였다. 또한 바울은 마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요 “나의 위로”(골 4:11)라고 골로새인들에게 추천하였다. 바울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마가에 대하여 자기의 “일에 유익하”(딤후 4:11)라고 말하였다. -사도행적, 166~170.

70 전리의 기둥과 려

## 마가와 데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일 2:15.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중에는 그의 이전 동지들과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에서와 가이사랴에서 투옥된 2년 동안과 로마로 가는 위험한 항해에까지 그를 동반하였던 사랑받은 의원 누가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다. ...

소년에 신앙 고백을 한 이래 마가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은 깊어졌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돌아가심을 더욱 면밀히 연구하고 마가는 구주의 사명과 그분의 수고와 투쟁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인류를 위한 그분의 봉사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상처와 잃어버린바 된 사람들과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자아 희생의 크기를 알고 마가는 자원하여 주를 따라 자아 희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제 죄수 바울의 운명에 동참한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무한한 이익이며, 세상을 얻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영혼을 잃는 것은 영원한 손실이라는 것을 이전 어느 때보다도 잘 깨닫게 되었다. 마가는 혹독한 시련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현명하고 사랑하는 조력자로서 확고부동하게 나아갔다.

데마는 한동안 확고하였으나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버렸다. 여기에 언급하여 바울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딤후 4:10)렸다고 기록하였다.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데마는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을 팔아 버렸다. 그 교환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가! 세상의 부나 명예만을 가진 데마는 진실로 가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스럽게도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을지 모른다.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로 선택한 마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후사요 당신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누릴 이로 간주되어 영원한 부를 소유하였다. -사도행적, 454, 455.

만일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하늘 세계에 더 많이 두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싸움에서 강력한 격려와 지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본향이 될 더욱 좋은 저 나라의 영광을 명상할 때에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모든 세상의 매력이 거의 가치 없이 보일 것이다.

아무도 스스로 열렬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랫동안 마음을 세상 만물만을 생각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습관적인 생각을 변경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너무 자주 관심이 그것에만 끌려 흥미를 그곳에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도성에 들어가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품성이 자주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매일 일정한 시간을 특별히 이 거룩한 제목들을 경건하게 명상하는 일에 바쳐야 한다. -성화된 생애, 91, 92.

## 주인과 종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문 16.

로마에서 바울의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이들 중에는 골로새의 그리스도인 신자인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로마로 도망한 오네시모가 있었다. 바울은 친절함 마음으로 이 불쌍한 도망자의 빈곤과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였고 그리고 그의 어두워진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자 노력하였다. 오네시모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죄악을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에 귀의하였다. …

오네시모는 그의 경건과 성실, 사도를 위로하기 위한 그의 적지 않은 친절함 열려, 복음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의 열심으로 바울의 총애를 받았다. 바울은 그에게서 선교 사업에 유용한 조력자가 될 품성의 특성을 발견하고 시체말고 빌레몬에게 돌아가 그의 용서를 구하고 장래를 위하여 계획하도록 권면하였다. 사도는 빌레몬이 도난 당한 금액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주어 두기고를 파송하려 하였을 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었다. 이와 같이 잘못을 범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이 종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으나 그는 진실로 회개하였으므로 이 의무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삼았고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은 그의 평소의 재치와 친절을 가지고 회개한 종의 문제를 호소하였고 장차 그의 봉사할 계승을 계속 받고 싶다는 소망하는 표현을 하였다. 이 편지는 친구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대한 다음과 같은 사랑에 넘치는 인사로써 시작하였다. …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복음의 영향을 나타낸다. 노예 소유는 온 로마 제국 안에서 굳게 세워진 제도였고, 바울이 수고하던 교회들의 대부분에서 주인들과 노예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

사회의 기성 질서를 독단적으로 또는 갑자기 뒤집어엎는 것은 사도의 사업이 아니었다. 이것을 시도하는 것은 복음의 성공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바로 노예 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원칙들, 만일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 회개할 때 노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특권에 있어서 그의 주인과 유업을 함께 누리는 이로써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하였다. 반면에 종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엡 6:6)야 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 복음의 목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찾은 타락한 죄인 사이에 굳은 연합의 유대를 갖게 한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피로 씻음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사도행적, 456~460.

## 우리 앞에 놓인 경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 12:1.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영생을 위한 그리스도인 경주의 특징을 나타내는 성실한 목적이 지적되어 있다. …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경주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밖에 상을 받을 수 없다. …

그리스도인 싸움의 경우는 그와 같지 아니하다. 조건들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경기 끝에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기는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니며, 싸움은 강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성도도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들은 모두 승리할 것이다. 생애의 세세한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칙들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도 흔히 중요하지 않은 일로 간주된다. 곧 주목을 끌기에는 너무도 사소한 문제로 취급된다. 그러나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행위는 생애의 승리나 패배를 결정하는 저울에 그 무게를 더한다. 그리고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그들이 기울인 힘과 열심을 비례할 것이다.

사도는 자신을 경주에서 상을 얻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달리는 사람에 비유하였다. … 그리스도인 경주에서 방향 없이 달리거나 되는 대로 달리지 아니하려고 바울은 자신을 엄격한 훈련에 복종시켰다. “내 몸을 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엄격한 훈련으로 육망과 충동과 정욕을 격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해야 할 필요를 깨달았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의 생애에서 영생을 위한 경주에서 승리하려는 성실한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생애의 투쟁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그들이 날마다 경건과 도덕적인 탁월함을 구하며 법대로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호소하였다. -사도행적, 312~315.



## 한 기쁜 목소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이 신성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고 받으라. 야곱과 같은 건인 불발의 믿음과 엘리야와 같은 백절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간구하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켜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고후 4:6)고 하신 그는 그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기를 기뻐하신다. -실물교훈, 149.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의무와 원칙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확고부동하였다. 그러나 예의바른 행위가 그의 성품의 뚜렷한 특징이었으며 이것이 그로 하여금 가장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사는데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가 또는 주시기를 즐거워하실까에 대하여 도무지 의심하지 않았다. ... 그는 난관과 시련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확실한 어둠과 안개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의혹의 구름 아래 살지 않았다. 소망과 용기로 가득찬 강하고 기쁜 목소리가 각 시대를 울려 내려오면서 우리 시대에까지 들린다. 바울은 건전한 신앙경험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웅장한 주제였고, 그를 사로잡은 억제할 수 없는 능력이었다.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한 소망과 용기로 가득찬 즐거운 음성이 울려오고 있다. 바울은 건전한 종교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위대한 주제였고 그를 지배한 강권하는 힘이었다.

가장 낙망적인 환경이 닥쳐 올 때 반쪽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사기를 저하시키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는 용기와 희망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확고부동한 마음을 지녔다. ... 배의 갑판 위에서 사면에서 밀어닥치는 폭풍우를 만나 배가 산산조각이 날 때에도 그는 역시 똑같은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배의 선장에게 명령을 했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생명을 보전하게 했다. 그는 비록 죄수였지만 사실상 그 배의 주인이었고 배에 탄 누구보다도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었다. ...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좌우하는 지상의 임금들과 고관들의 앞에서라도 겁내지 않았나니 이는 그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어진 까닭이었다. 그는 그의 예의로 이러한 권세있는 사람들이나 비록 그들이 과격하고 악하고 타락했는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다. ... 그가 늘 말할 때 하던 대로 두 손을 앞으로 펼쳤을 때 절령거리는 쇠사슬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영예의 훈장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뻐했다... 은혜는 십자가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되풀이할 때에 그의 음성을 자비의 천사처럼 부드럽게 하고 분명하게 들리게 한다. -영문시조, 1879.11.6.

## 꽃대를 향하여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13, 14.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그는 현명한 교사였다. 그의 많은 편지서들은 올바른 원칙들을 제시하는 교훈들로 가득 차 있다. ... 그는 언제나 교회에 대하여 무거운 부담을 지고 다녔다. 그는 교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간절할 마음으로 일러 주었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속임을 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고쳐주었다. ... 그의 생애의 책임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자기 앞에 이 “한 일”만을 계속해서 가지고 다녔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영속적인 임재의 느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만 고정시키도록 강권했다. -서신 135, 1897.

그의 충성심을 그리스도께 바친 그 시간부터 바울의 생애는 지칠 줄 모르는 봉사로 충만하였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하면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말하고 복음으로 개심하는 사람들을 얻어 교회들을 세웠다. 이 교회들을 위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염려하였고 그들에게 많은 교훈의 편지들을 기록하였다. 때때로 그는 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업으로 일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분주한 그의 생애 가운데서도 바울은 한 큰 목적 즉 그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끈작하게 한 목표를 그의 앞에 두었다. 그 목표는 다메섹 성문 곁에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권세도 그를 이 목적에서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말과 행동에 원기를 준, 모든 다른 것을 흡수하는 최고의 동기였다.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하여금 매진하도록 강권한 그 큰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 교역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주목을 구주에게서 돌이키려고 세속적 매력들이 제시될 것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자 하는 희망은, 그것의 달성에 필요되는 온갖 노력과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한다. -사도행적, 484.

그리스도의 가장 비천한 제자라도 하늘의 거민이 될 수 있으며 썩지 않을 곧 사라지지 않을 유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오! 모든 사람이 이 하늘의 선물을 선택하여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유업 곧 끝없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오! 결코 세상을 택하지 말고 더 좋은 유업을 택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전지혜 나아가가도록 힘쓰라.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235.

미구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교회증언 9권, 287.

## 가이사에게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행 25:10, 11.

고집과 독선에서 나온 증오 때문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증은 이방인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선지자 엘리야가 구조를 받기 위하여 사르밧 과부에게로 도망한 것과 복음의 사신들이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것은 동일한 증오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증오심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교만, 형식주의, 이기심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그처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와 같은 압박의 정신이 있다. 장차 그리스도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취급할 때 취했던 것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조만간 당면하게 될 큰 위기에 있어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똑같은 무정함과, 똑같은 잔인한 결정과, 똑같은 완고한 증오심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와 확고 부동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동기가 비난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를 받고 그들의 이름이 사악한 것으로 내던짐을 당할 것이다. 사단은 그의 모든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해력을 흐리게 하여 악을 선처럼, 선을 악처럼 나타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더욱 굳고 순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이 확고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 더 맹렬하게 그들을 대적하여 의롭다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신앙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가장 초인적인 의지가 요구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이 압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거나 아니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에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 있어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곤비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들이 되실 것이다. -사도행적, 430~432.

## 하늘의 호위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딤후 4:17.

바울이 심문을 받기 위하여 네로 황제 앞에 나타나도록 소환을 받았을 때에 분명한 죽음의 전망이 가까웠었다. 그에게 씌워진 범죄의 중대성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널리 퍼진 증오로 인해 유리한 선고나 내릴 희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

바울이 네로 앞에 소환되었을 때에는 아무도 감히 그의 변호인이나 대변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에게 가해진 비난이나 그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간청한 논증의 기록을 보관할 친구도 없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시련의 때에 그의 곁에 서려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네로 앞에 선 바울, 이 얼마나 현저한 대조인가! 네로 앞에 선 바울, 이 얼마나 현저한 대조인가! 그의 신앙을 위하여 답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는 거만한 군주는 세상의 권세와 권위와 부의 절정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죄와 불의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있었다. 권세와 위대함에 있어서 그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 네로의 명령은 세계를 진동시켰다. 그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재산과 자유와 생명의 손실을 의미하였고 그의 얼굴 찌푸림은 염병보다 더 무서웠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변호인도 없는 노령의 죄수는 네로 앞에 섰다. 황제의 얼굴에는 마음속으로부터의 격노한 감정의 수치스러운 기록이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이 나타나 있었다. -사도행적, 492~494.

변덕스럽고, 성 잘내고, 음탕한 폭군 네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아들의 품성과 동기를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있었겠는가? … 정반대되는 두 교육제도의 결과가 서로 마주 대하여 서 있었다. 고삐가 풀린 자아 방종의 삶과 온전히 자기를 희생시킨 삶, 여기에 두 종류의 삶의 유형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서 있다. 즉 순간적 쾌락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없을 만큼 가치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극도로 이기적인 삶과 필요하다면 생명 그 자체까지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기부정의 참을성 있는 삶이 그것이다. …

백성들과 그 재판장은 놀라움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러 심문 광경을 보아왔고 수많은 죄수들을 보아왔다. 그러나 그처럼 거룩하고 침착한 모습을 지닌 사람은 한번도 본 일이 없었다. … 그의 말은 가장 딱딱하게 굳은 사람의 심금까지도 울려주었다. 확신시켜주는 명백한 진리가 오류를 전복하였다. … 이 기회에 한 말들은 나라들을 동요시킬 것이다. …

그는 불충실한 자들 사이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같았다. … 그의 말은 전쟁의 소란 위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함성과도 같았다. -영문서조, 1906. 12. 5.

## 선한 싸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7, 8.

오랜 봉사의 기간 내내 구주께 대한 바울의 충성심이 흔들린 적은 결코 없었다. 그는 어디 있든지 얼굴을 찌푸린 바리새인 앞에서나 로마 관원들 앞에서나, 루스드라에서 격노한 폭도들 앞에서나, 마게도나 토옥에서 죄를 깨달은 죄인들 앞에서나, 파선된 배위에서나 그는 그가 옹호하고 있는 사업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그리스도인 생애의 한 큰 목적은 한 때 자기가 그분의 성호를 멸시하였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떠한 반대나 핍박도 그를 이 목적에서 떠나게 할 수 없었다. 노력으로 굳세게 되고 희생으로 순결하게 된 그의 신앙은 그를 붙들어 주고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다. - 사도행적, 500.

바울은 그의 인생의 길을 거의 마쳐가고 있었다. 그는 디모데가 그를 대신하여 원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단순한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용하는 허탄한 이야기들과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기를 갈망하였다. ...

바울은 자신의 생애로 그가 가르친 진리를 수범하였으며, 그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항상 그의 책임감을 깊게 느꼈다. 그는 공의와 자비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활동하였다. 그는 유일의 성공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렸다. 구주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때 세상의 악의와 원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전진하였을 때처럼, 자아와의 투쟁에서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그를 붙들어 준 결코 꺼지지 않는 동기였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울처럼 자신을 유용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물에 깊은 경험을 가지며 열심과 정열이 넘치는 일꾼들의 군대이다. 성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곧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잡은 사람,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이 닿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이다. 이런 교역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쇠약해지고 치명적인 오류들이 치명적인 독약처럼 대부분의 인류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희망을 시들게 한다.

충성스럽고 수고에 지친 기수들이 진리를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마쳐 죽어가고 있는 이 때에 누가 나와서 그들을 대신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서 거룩한 임무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은 충성스러운 이들의 죽음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청년들을 노리고 있는 이기심과 야망의 자극 속에서도 사도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의무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 사도행적, 507, 508.

##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복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일 4:10, 11.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요한은 주님을 위한 충실하고 열렬한 일꾼으로 나섰다. ...

사도의 생애는 그의 가르침과 일치하였다. 그의 마음 속에서 타오른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그의 동포들 특히 그리스도교 내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마음 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여야 하였다. ...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제자들이 살아 계신 구주를 선포하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성도들과의 달콤한 교제를 만끽했다. 그들은 친절하고 사려 깊고 극기하였으며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하였다. ...

그러나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다. 실수들을 꼼꼼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

교회 내에서 우애가 감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신도들에게 이 사랑의 계속적인 필요를 역설하였다. ...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 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감화를 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은 품성의 결점과 행동의 모순을 분별하기에 민감하다. ...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불멸에 관한 복된 소망을 가진 동일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한 가정의 가족이다. 그들을 함께 묶는 유대는 매우 가깝고 부드러워야 한다. ...

사도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편지한다. - 사도행적, 546~551.



## 안팎의 위험들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일 4:1.

세월이 흘러 신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때에 요한은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보다 더한 성실과 열성으로 수고하였다. 그 시대는 교회에 위험이 충만하였다. 사단의 기만이 각처에 있었다. 사단의 사자들은 오전(誤傳)과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대하여 반대를 일으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의견 충돌과 이단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서 해방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습과 의식들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족하다고 가르쳤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선풍한 사람이었음은 인정했지만 그분의 신성은 부인하였다.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는 척하는 어떤 이들은 기만자들이었고 그들은 행실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인하였다. 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은 교회에 이설(異說)들을 들여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의주의와 기만의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요한은 이 유해한 오류가 살금살금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슬픔에 가득 찼다. 그는 교회가 직면한 위험을 알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 위기에 대처하였다. 요한의 편지서들은 사랑의 정신을 나타낸다. 이 편지서들은 마치 그가 사랑에 적셔진 붓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저희가 죄 없이 살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접촉할 때에 그는 그들의 무서운 기만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권리를 가졌다. 초대 교회의 변역을 위협한 것들과 비슷한 죄악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주의 깊게 유의되어야 한다. …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류들을 반대한 것처럼 이 시대의 당신의 백성에게 의를 위하여 확고 부동하게 서라고 요구하신다. …

그는 그가 아는 것 곧 그가 보고 들은 바를 선포하였다. … 구주께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충만한 마음으로 그는 말했다. 그러므로 어떠한 권세도 그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

그와 같이 참된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칭”(요 3:33)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사도행적, 553~556.

## 마음과 생애가 순결함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일 3:3.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체한 결과이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진다.

요한은 성화의 교사였고 그는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한 그릇됨이 없는 법칙을 제시했다. …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애가 순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인은 공허한 공언만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범죄한 인류도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영역에서 거룩하여야 한다. …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도 거룩하다고 공언하며 저희는 전부 주의 것이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주장하니 이것은 그들 편에서의 주제넘은 행위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이론을 믿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는 험잡꾼이 아니요 성령의 신앙은 공교하게 만든 우화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요일 2:4, 5, 3:24).

요한은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획득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 않지만 순종은 사랑과 믿음의 열매라고 가르쳤다. …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속에 거한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다. 성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과 일치한다. …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분투하지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경험에서의 이러한 결점은 믿음을 행사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다. 그들은 마치 소금땅과 바싹 마른 광야를 걷는 것처럼 걸어간다. 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적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오는 성화를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은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 믿음을 통하여 품성의 모든 결점은 보충될 수 있고 모든 더러움은 정결하게 되고 모든 과오들은 시정되고 모든 미덕은 계발될 수 있다. -사도행적, 559~564.

## 어두움 저편에 영광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딤후 3:12.

박해를 당한 사도 요한의 경험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위한 경이로운 힘과 안위의 교훈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음모를 방해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계책을 시련과 투쟁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과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작용하게 하신다. 흔히 복음 교역자는 핍박의 폭풍과 쓰라린 반대와 부당한 비난 가운데서 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한 때에 시련과 고통의 풀무에서 얻게 될 경험은 온갖 고통을 치르더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과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라고 그들을 가르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대처하고 신임의 지위를 감당하고 그들에게 성취하도록 주어진 능력의 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신다. ...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다. 믿음의 안목으로써만 영원한 부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도록 현세의 사물 저편을 바라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살리라는 희망을 제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극기와 비난의 길로 당신을 따라오도록 그들을 부르신다.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그분은 악의 연합 세력의 반대를 당하셨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나 그 원칙—그 기초가 되는 정신—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의 능력의 증거였다. 악인들이 육체는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은 남녀들을 감옥에 감금할 수 있으나 정신은 결박할 수 없다.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품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하여진다. 그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극기를 실천하고 쓰라린 실망을 통하여 죄의 악함과 비애를 배워 죄를 증오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그들은 흑암 저편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롬 8:18)고 말할 수 있다. —사도행적, 574~577.

76 진리의 기둥과 터

## 열 두 제자 중 마지막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 5:11, 12.

요한은 장수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의 파멸과 웅장한 성전의 멸망을 목격하였다. 구주와 친밀히 교제한 제자들 중 마지막 생존자인 그의 기별은 예수가 메시아이시요, 세계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무도 그의 성실을 의심할 수 없었으므로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불신에서 돌아섰다.

유대인의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요한의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 때문에 그를 몹시 미워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들의 노력은 요한의 증언이 백성의 귀를 울리는 한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이적들과 가르치심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담대한 증인의 음성을 침묵시켜야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신앙에 대하여 심문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소환되었다. 이 곳 관헌들 앞에서 사도의 가르침들은 허위 진술되었다. 거짓 증인들은 그가 선동적인 이단을 가르친다고 비난하였다. 그의 원수들은 이와 같은 비난으로 제자의 사형 선고를 이끌어 내기를 바랐다.

요한은 명백하고 확신을 주는 태도와 단순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변호하였으므로 그의 말은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웅변에 놀랐다. 그러나 그의 증언이 더욱 수궁이 가면 갈수록 그의 반대자들의 증오심은 더욱 깊어졌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옹호자의 논조를 반박하거나 그의 진리의 발언에 따른 능력에 어깨를 겨눌 수도 없었으나,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 위해 굳게 결심하였다.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주께서는 세히브리인을 풀무속에서 보존하신 것처럼 당신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만자를 믿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요한은 “나의 주님은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이 당신을 욕하고 고문하려고 고안해 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인내로 감수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영광을 누리다. 나는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인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무죄하시고 순결하셨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분의 입에서 간사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선언하였다.

이 말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요한을 기름 가마에 던져 넣었던 바로 그 사람이 그를 거기서 건져내었다. —사도행적, 569, 570.

## 추방되어 하나님과 동행함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계 1:9) 정죄당해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밧모섬으로 추방당했다. 그의 원수들은 여기서는 그의 감화가 더 이상 끼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는 고난과 고통 중에 죽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에게해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밧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의 앞에 요약 제시되었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들을 기록하였다. 그의 음성이 그가 사랑하고 섬긴 분에 대하여 더 이상 증언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불모의 해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타는 햇불처럼 사방에 퍼져 세상 열국에 관한 주님의 확실한 목적을 선포할 것이었다.

밧모의 절벽과 바위 가운데서 요한은 그의 창조주와 교통하였다. 그가 그의 과거 생애를 회고하고 받은 축복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평화가 넘쳐흘렀다. 그는 그리스도인적 생애를 살았으며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요일 3:14) 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를 정배시킨 황제는 그렇지 못하였다. 황제는 그의 뛰어난 고자 하는 야망의 결과인 전쟁과 살육의 마당, 황폐된 집들, 울고 있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회고할 수 있을 뿐이었다.

요한은 고립된 거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의 책과 영감의 페이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를 더욱 면밀하게 연구할 수 있었다. ... 그의 이전 생애 동안 그의 눈은 삼림에 덮인 언덕, 푸른 계곡, 과실이 풍요한 들을 보는 기쁨을 누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솜씨를 더듬는 것이 항상 그의 기쁨이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침울하게 여길 광경들로 둘러싸였으나 요한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주위 환경은 황막한 불모의 지대일지 모르지만 그를 굽어보고 있는 하늘은 그가 사랑한 예루살렘의 하늘처럼 빛나고 아름다웠다. 거칠고 험한 바위에서, 깊은 바다의 신비에서, 궁창의 영광들에서 그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기별을 가지고 있었다. ...

바위로 덮인 밧모에 정배된 사도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열렬한 영혼의 갈망, 가장 열렬한 기도가 올라갔다. -사도행적, 570~572.

##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사 46:4.

요한의 생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연로한 교역자들을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뚜렷한 예증이 된다.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봉사가 끝났으며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낡고 상한 갈대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그가 쓰시기에 적합함을 보였다. 비록 이전의 활동의 현장에서 추방되었을지라도 그는 진리를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밧모섬에서도 그는 친구를 사귀고 개심자들을 얻었다. 그의 기별은 기쁨의 기별로서 구주께서 그들을 데리러 돌아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재하시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선포하였다. 요한이 그의 모든 이전 생애 동안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주를 섬김으로 나이가 많아진 후의 일이었다.

그들의 생애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업에 결부되었던 이들에 대하여 가장 친절할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 노령의 일꾼들은 폭풍과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히 섰었다. 그들이 허약할는지 모르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들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연로하여 비록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무거운 책임들은 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줄 수 있는 조언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들이 실수들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에서 그들은 오류들과 위험들을 피해야 할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현명한 조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가? 그들은 시험과 시련을 견디었고 비록 그들의 활력을 다소 잃어버렸지만 주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

사업이 어려울 때에 그들의 주님을 섬긴 사람, 진리를 위하여 서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에 빈곤을 견디고 충실히 선 사람들은 영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주께서는 젊은 교역자들이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지혜와 능력과 성숙을 얻기를 바라신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 중에 이와 같은 교역자들이 있는 것이 그들에게 크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회의석상에서 그들에게 명예스러운 자리를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바친 이들은 그들의 지상 봉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를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업에 관계하였던 경험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진 그분의 놀라운 교제에 대한 기록, 그들을 시련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분의 크신 인자에 대한 기록이 새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연로하고 연단을 받은 교역자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서서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남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임을 다하기를 바라시며, 당신께서 벗으라고 명하실 때까지 그들의 갑주를 입고 있기를 바라신다. -사도행적, 572~574.



##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시 105:1, 2.

하나님께서서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축복을 달라고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찬미와 감사를 드리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광야를 열매가 맺히는 밭으로 만드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우리나라에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 그러나 너무 찬양이 없으므로 그분의 마음은 우울하게 된다. 그분께서는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더 강한 표현들이 백성으로부터 터져 나오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일은 자주 반복해서 말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셨음을 증거하는 표를 얼마나 자주 세웠던가! 과거의 역사를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건들을 노래로 지어 부모들이 그 노래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다. 그들은 기념물을 만들어 그들의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녀들이 이 일에 관하여 물을 때에 전체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선하심과 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히 10:32)는 권고를 받는다. 주님께서서는 이 세대의 자기 백성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사업의 과거 역사가 노유를 막론하고 백성들 앞에 자주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며,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인하여 그분께 찬양을 돌려야 한다. -교회증언 6권, 364, 365.

우리가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전보다 더욱 굳은 확신을 가지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삼상 7:12)이니 그는 또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바라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자비-눈물을 씻어 주신 것-을 언제나 새롭게 기억하자. 그리함으로 우리의 나그네 생애의 여생(餘生)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을 모든 난관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하자.

우리는 장차 오는 투쟁에 있어서 새로운 난국(難局)을 내다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장차 있을 일도 이미 지난 일과 같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이다”(신 33:25).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여된 힘의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당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착수하자. -정로의 계단, 125.

## 하나님께 영광을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 113:3.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할 데가 거의 없다. 일찍이 세상에 산 가장 선한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자세하게 말해 주는 지면이 거의 없다. 이러한 침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질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인 이상 그들의 위인(爲人)됨이 어떠한지 무엇을 성취했는지 간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성경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타락하게 되는 연고이다. 인류는 자기보다 강한 원수와 싸우고 있다. ...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싸움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로 자고하게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성경의 취지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717.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그사람 뿐만 아니라 그의 감화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한다.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은 하늘에서 빛을 받게 되고, 그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 4:14)이 되신다. 그의 말과 그의 동기와 그의 행동은 오해되고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넘치 않는다. 그는 현재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으며,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지 않는다. 그는 또한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항상 단정하게 행한다. 그는 바르기 때문에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행한다. 그는 친절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사려 깊다. ...

진정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은 그와 같다. 그는 귀중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께서 걸어 가신 것처럼 걸어가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569.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선행을 통하여 영광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일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에게 돌려야 한다.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며, 성령은 받는 자가 아닌 주신 분이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빛이 심령 속에서 빛나게 되면, 입술이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과 감사로 채워질 것이다. 그대의 기도, 의무 수행, 자선, 극기가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자신은 숨겨질 것이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것이다. -산상보훈, 80, 81.

## 고상한 모본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 17:9.

성경에 기록된 역사 중에는 참된 교육의 결과에 대한 많은 실례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그 품성을 도야한 사람들의 귀한 경험을 보여 준다. 그들은 동료 인간들에게 축복이 되는 일생을 보내었으며,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세상에 섰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중에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인 요셉과 다니엘, 가장 현명한 입법관인 모세, 가장 충실한 개혁자인 엘리사가 있었고, 또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요 7:46)던 예수님을 제외하면 세상에 서 가장 큰 교사였던 바울 같은 인물도 있었다.

요셉과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가정을 떠나 포로로 이교국으로 끌려갔다. 특별히 요셉은 그의 운명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많은 시련을 당했다.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오로지 따뜻한 사랑 속에서만 자라던 소년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후에 신임을 받아 그의 친구가 되면서 학문과, 관찰에 의한 경험과,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견문을 넓혀 정치기의 직분예까지 올랐다. 그러던 중에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을 희망도, 풀려날 가망성도 없이 국가의 죄인으로 바로의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큰 위기에서 국가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요셉으로 하여금 것처럼 일관된 성실성을 갖도록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충성은 요셉을 굳세게 만든 닻이었다. 여기에 그의 능력이 숨어 있었다. ...

요셉과 다니엘은 지혜와 정의감, 순결하고 자애로운 매일의 생애, 그리고 백성들, 특히 우상 숭배자들인 이교도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어려서부터 배운 원칙과 자신들이 대표하고 있는 분에게 충실함을 입증해 보였다. 그들은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전 국민에게서 존경을 받았다. 이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교도인 백성들까지도 이 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실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실례를 보았다.

이 고상한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평생 사업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다. 자라난 가정을 떠날 때에 그들은 장차 자신들이 가지게 될 송고한 운명에 대하여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하고 건실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위대한 진리를 오늘날의 청년 남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요셉과 다니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전심으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힘쓰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실례이다. -교육, 51~57.

##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 56:3.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순결과 진리로 지향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유력한 것은 없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별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합 1:13)시는 것이다. 이 생각은 부패한 애굽에서 요셉의 방패가 되었다. 유혹의 속삭임에 대한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 39:9). 믿음을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보호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 임재하신다는 인식만이, 겁 많은 아이가 갖는, 인생은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시 34:7)라고 하신 것을 기억에 새기게 해야 한다. 산중의 도시에서 엘리사가 경험한 기이한 이야기—그와 원수의 군대가 대치하고 그를 두른 하늘 천사들의 군대가 친 거대한 포위태세에 대한—를 읽게 해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고 투옥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무장한 수위병과 큰 문들과 쇠로 된 문지방과 큰 못으로 잠긴 옥문을 지나서 이 하나님의 종을 무사히 인도해 낸 사실을 읽게 하라. 폭풍우에 시달린 병사와 선원들이 노역과 수비와 여러 날 동안의 절식으로 피로할 때에, 심문과 처형을 받기 위해 갇힌 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 나의 속한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행 27:22-24) 하고 용기와 희망에 찬 당당한 말을 하였던 당시의 해상 광경을 읽게 하라. 이 허락을 믿음으로 바울은 그와 같이 있는 자들에게 보장하기를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행 27:34) 하였는데,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 배 안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단 한 사람이 있는 까닭에, 같이 탔던 이교도의 병사와 선원들의 생명도 구조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느니라”(행 27:44).

이런 일들은 다만 우리가 읽고 기이히 여기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오늘날 우리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옛날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

자신감이 없는 자는 자기를 신뢰할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고자 염려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서 무익한 존재가 되었을 뻔한 사람들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 255, 256.

##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잠 24:16.

그 임무에 충실한 영감의 펜은 노아, 룻, 모세,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을 정복한 죄악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며, 엘리야의 강한 정신까지라도 그 두려운 시련의 시간에 유혹에 빠져든 사실을 알려 준다. 요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과 바울과 바나바의 날카로운 대립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실패와 결함들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성령에 의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믿는 자들의 생애가 그들 뒤에 오는 모든 세대의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한 의도로서, 그 모든 결함과 어리석음이 모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만일 그들에게 흠이 없었다면 그들은 인간 이상의 존재들이었을 것이며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것처럼 탁월한 지점에 도달하려 할 때 낙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투쟁하고 넘어진 것과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고 타락한 속성으로 우리 앞길에 놓인 방해물을 극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범죄를 형벌하시는 데 성실하시다. 그분은 범죄자를 경고하고,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고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하는 자들이 비웃고 성도들이 유감으로 여길 정도로 그분의 백성들의 죄악을 명백하게 드러내었는가 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록된 악을 피하고 주님만을 섬긴 자들의 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을 필요로 한다. 이는 죄가 드러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슬픔과 통회, 죄로 병든 영혼의 통곡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왔고 그 때의 사람들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를 필요로 하였음을 알려 준다. 그것은 그분은 범죄를 벌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회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

성경의 역사는 낙심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의 소망으로 붙들어 준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실망 가운데 투쟁하고 우리가 넘어진 것처럼 유혹에 넘어졌으나 그들의 위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때,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다. 영감의 말씀은 잘못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비록 부조들과 사도들이 인간적 약점에 굴복했으나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싸움을 싸우고 영광스럽게 승리하였다. 그와 같이 우리도 속죄의 회생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역시 인간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각 세대를 통하여 비할 데 없이 크다. -교회증언 4권, 12~15.

##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기억하심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 12:12.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증인들은 진리를 위하여 비난과 박해를 당하였다. 요셉은 … 횡방과 횡박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자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맹수처럼 쫓김을 당하였고 … 스테반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신 십자가를 전파한 까닭에 돌로 침을 당하였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사자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몽둥이에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섬에 유배당하였다.

인간의 확고 부동함에 대한 이와 같은 모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당신의 영원한 임재와 한결같은 은혜-의 충실함을 증거한다. 이것들은 세상 세력을 저항할 신앙의 힘을 증거한다. -사도행적, 575.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遲延)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1.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인종과 유색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히 부당하고 잔인한 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중 더러는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히어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즐거이 손을 뻗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 버리실까? 그분께서는 홍수 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원의 도시들을 태워 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으셨던가?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훌륭한 세 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 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6, 627.



### 첫째로 할 것은 첫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이 약속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조건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결코 줄 수는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화와 만족과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 겸손한 정신과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시련들과 실제적인 어려움을 초월하여 우리를 향상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서 덜 열성적이고, 덜 활동적이며, 덜 경성할수록 마음은 자아를 더 많이 생각하고 두터지가 파놓은 흠뻑을 난판의 산으로 침소봉대 한다. ...

모세에게 지워진 하나님의 사업의 짐이 그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여러 해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그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경험을 했다. ...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세는 그 의무를 수락했다. 그 결과를 주시해 보라. 그는 자신의 무능에 맞게 그 사업을 낮추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고 성결하게 하고자 가장 열렬한 노력을 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그 사업을 해주도록 기대했다면 그는 책임 있는 그의 위치를 위하여 결코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에서 오는 빛은 그 빛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과, 감추인 보화처럼 그 빛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무활동의 상태로 전락하여 사단의 능력에 지배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감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약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업을 행할 준비를 갖추려면 많은 기도와 가장 활기로운 정신의 발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해 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은 차지해야 할 위치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 이생에서 유용하게 쓰이기에 적합한 모든 사람은 가장 혹독한 지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을 연합시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

우리의 성화되지 못한 생애 때문에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우리의 종교는 지적인 종교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생애에 올바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릇된 습관은 단 한 번의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는다. 오직 길고 고된 투쟁을 통해서만 자아는 정복된다. 이 자아 훈련은 교회의 개 교인들이 계속해야 하며, 마음의 문 주위에 쌓인 쓰레기도 제거되어야 한다. 미구에 그들은 단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정리된 생애와 경건한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공연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다. 그 때 비로소 그들은 죄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교회증언 4권, 610~612.

◇역사라는 드라마에서 각 사람에게는 고유의 배역과 위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업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업에 있는 자리를 채울 준비를 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의를 대적하면 불의의 도구가 되겠지만 이와 같은 행동 노선을 따르려고 강요를 받은 적이 없다. 가인이 불의의 도구가 될 필요가 없었음과 꼭 마찬가지로 그들도 불의의 도구가 될 필요는 없다. ...

의롭거나 불의하거나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각각 자기 자리에 설 것이다. 그들이 형성한 품성에 따라 그들은 역사의 있어서 자기의 몫을 이행할 것이다. 위기에 닥치는 바로 그 찰나에 그들은 그들이 채우기 위하여 준비한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신자나 불신자들이 그들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를 확언하기 위한 증인으로 줄을 지어 설 것이다. 안나스, 빌라도, 가야바,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협력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형시키므로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목적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아무 의식도 의도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리뷰 앤드 헤랄드, 1900. 6.12.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친히 지으신 작은 씨앗을 들여다보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씨앗 속에 감춰어 있는 아름다운 꽃과 관목과 잎을 사방으로 뻗고 있는 높은 나무를 보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발전의 최고 표준에까지 도달하기를 바라신다. ...

그분께서는 청년들이 그들에게 속한 모든 능력을 계발하고 모든 재능을 실제적인 일에 활용하기를 바라신다. ...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이 본받아야 할 모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나타내신 거룩한 욕망을 간직해야 하는데, 그 욕망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이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것이 그들이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업이다. -치료봉사, 397, 398.

이제 그대들은 그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되게 사회와 인생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게 되기를 원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6.◇



# 가장 높은 교육

-작자 미상

언젠가 축복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주님이시며,  
언젠가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네,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이 그분의 선물이었다면, 지금은 오직 그분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이며,  
언젠가 내가 치유를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은 치유자 그분 자신을 내가 모시고 있다네.

언젠가 고통스런 시험이 있었다면, 지금은 완벽한 신뢰가 있으며,  
언젠가 반만의 구원이 있었다면, 지금은 온전한 구원을 누리다네,  
언젠가 내가 끊임없이 붙잡고 있었다면, 지금은 주께서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며,  
언젠가 내가 끊임없이 표류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주께서 나의 닻이 되신다네.

언젠가 내가 계획을 세우기에 분주했다면, 지금은 내가 주를 신뢰하고 기도를 올리며,  
언젠가 내가 불안에 떨고 있었다면, 지금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네,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며,  
언젠가 내가 계속해서 물었다면, 지금은 끊임없이 찬양한다네.

언젠가 내가 할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언젠가 나의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의 일을 할 것이라네,  
언젠가 그분을 이용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그분이 나를 이용하시며,  
언젠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했다면, 지금은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할 것이라네.

언젠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그분의 소유임을 알며,  
언젠가 나의 등이 꺼져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 등이 환하게 비추고 있다네,  
언젠가 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네,  
그리고 나의 소망은 닻을 내릴 것이며, 회장 안에서 안전을 취하리라.

